



4

1979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9. 4호

(루게 378)



## ◆◆◆◆◆◆◆◆ 차 례 ◆◆◆◆◆◆◆◆

해빛 넘친 4월에 부르는 노래.....	4
미루벌 전설.....	6
진달래.....	19
만경대초가집앞에서.....	20
누리에 빛나는 언덕 (외 2 편).....	21
나는 지금 만수대로 오른다.....	22
높이 드신 위대한 손길.....	23
4월의 꽃다발.....	24
만대에 길이 빛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	25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만경대에 대한 칭송의 노래.....	32
다듬은 말.....	35
근로자들의 깊은 사랑속에 널리 읽혀지고있는	
장편소설들에 대한 반향을 특집하면서.....	36
그 사랑, 그 믿음속에 우리는 산다.....	37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끝없는 궁지.....	39
위대한 사랑속에 꽃피여난 우리의 거리.....	41

봉건말기 사회상에 대한 생동한 화폭.....	43
장편소설 《생명수》의 주인공들처럼 .....	46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 .....	47
위대한 봄 .....	48
송도원에서 .....	51
그 언제나 수령님 곁에 (외 1 편).....	52
주먹 .....	53
산촌의 기다리는 마음은 (외 2 편).....	54
좋은 고장에 오긴 왔어도 .....	54
행복 .....	55
고향의 밤 .....	56
미래의 당부앞에 (외 1 편).....	57
조국은 나의 어깨우에 있다.....	58
일터 .....	59
전선길에서 .....	66
전쟁의 나날을 더듬어 .....	72
탄부들이 사는 집 .....	74
가사는 시적으로 되여야 한다 .....	76
근로자들을 창조적로동으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인 노래 .....	78

## 해빛 넘친 4월에 부르는 노래

산에 들에 꽃들이 피고

산에 들에 새들이 노래하고

흐르는 강물도 높이 솟은 산들도

끝없는 기쁨에 설레는 이 강산

수령님 모신 영광을 안고

끝없는 행복을 안고

드리여 다함없는 감사의 마음

우러러 목메이는 환희의 꽃물결

만경대 만경대로 굽이쳐 흘러라

조선의 마음도

세계의 마음도

하나의 간절한 축원으로

꽃피는 이 아침

이 땅에 생을 받은

우리 삶을 생각하고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

기나긴 반세기를 더듬어

가슴가슴 감격의 눈물에 젖어라

아, 수령님 한평생

인민에게 안겨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이 땅의 밝은 창문마다 빛나고

거창한 철의 기지와 기름진 대지

락원의 강산으로 솟아있건만

수령님께선 만경대의 사립문을 나서시여

해방의 천리길을 걸으시던

그날의 그 걸음으로

오늘도 쉬임없이 인민을 찾으시여라

인민을 안으시고

조국을 안으시고

걸으신 길

새벽이면 새벽길은 몇천몇만리

밤이면 밤길은 몇천몇만리

그 길우에 눈비를 맞으시고

이 세상 풍파를 다 겪으시며

따사로운 해빛만을 뿌려주시는

우리 수령님!

세월이 흐를수록 잊을수 없어라

화폭을 들여놓은 밝은 창고자리

내굴고 춤고 어설프던 56년 12월

강선의 압연공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나라의 어려운 사정을 의논하시던

수령님의 뜨거우신 그 음성

-만톤의 강재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습니다

나는 동무들을 믿습니다!-

수령님의 절절하신 호소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일떠서게 한

조선의 힘이였고

위대한 천리마시대를 열어놓게 한

인민의 의지였어라

격랑이면 뚫고나가고

폭풍이면 헤쳐넘으시며

승리에서 더 큰 승리로

행복에서 더 큰 행복으로  
끝없이 이끌어주신 수령님

눈덮인 눈두렁길을 걸으시며  
오늘도 이으시는 현지지도의 길우에  
엄혹한 한랭전선은 녹아흐르고  
가을은 무르익어 백과는 주렁지고  
강산은 설레여 락원은 꽃피나라

이 땅에 기쁨의 노래 넘쳐날수록  
노래에 묻혀 행복에 묻혀  
누구나 스쳐지날수 있는  
인민의 자그마한 아픔마저 가려내시며  
가고가시는 그 모습

아, 남녘에 어머니를 두고 온  
어느 한 방직공의 두손을 감싸쥐시고  
혼자서 많은 기대를 다루기에 수고한다시며  
기대와 기대의 순회길을 헤아리시던 수령님

하루 180리를 걷게 된다는  
방직공이 올리는 보고를 들으시며  
그렇게 달려가면  
어머님 계신 남녘땅에  
이내 갈수 있다고 이르실 때  
왜 그리도 우리의 눈시울은 뜨거웠던가

백두산 끝에서 제주도 끝까지  
온 나라 온 인민을 안으시고  
쉬임없이 걸으시는 그 자욱자욱우에  
조국통일의 새 력사가 굽이치고  
주체의 새시대가 펼쳐져라

아, 수령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한 그 사랑으로  
인민의 행복을 가꾸시는  
우리 수령님

이 세상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엮는다 해도  
수령님의 위업을 다 노래하지 못하고  
이 세상 지혜의 빛발을 다 합친다 해도  
자주와 창조의 새세계를 밝히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해빛에 비길수 없나니

아, 수령님 모시여  
누리에 빛나는 조선의 이름으로  
수령님 모시여  
가장 행복한 인민의 이름으로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드리는 만수무강 축원의  
노래  
온 세상 끝까지 울리어가라  
4월의 강산에 울려퍼지여라!

**환원희**

# 미루벌전설

김삼복

## 1

해가 기울자 낮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대지를 식혀주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미루등의 넓은 초원이 설레이기 시작하고 아득한 지평선으로부터 바람에 물리운 흰구름들이 하늘을 덮으며 날아왔다.

조합원들과 같이 밭에서 김을 매던 관리위원장 방옥실은 가볍게 날리는 머리수건을 한손으로 눌러 잡으며 하늘을 쳐다보았다. 구름은 밀려왔으나 비가 올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해마다 여름이 오면 미루등은 갈증에 시달리었다. 올해는 더우기 수십년래에 처음본다는 혹심한 가물이 들어 물이 바른 미루등은 샘마저 말라버렸다. 자동차로 물을 실어들이고있는 목장으로 동이를 인 녀인들이 줄지어 물길으러 다녔다. 먼지가 폭폭 이는 밭에서는 강냉이 잎사귀들이 시들시들해서 축 늘어졌다. 비를 기다리는 농민들의 가슴은 바작바작 타들었다.

(하지만 물고생도 이제는 끝장나게 될테지!...)

희망에 넘친 옥실은 초원의 상공으로 우르르 날아다니는 새무리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얼마전에 평양에서 미루등개간을 위한 조사단이 왔던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미루등사람들은 희망의 빛을 보기에 충분했었다. 조합원들은 더위속에서도 힘든줄 모르고 일했다.

설령거리는 강냉이밭가운데 서서 땀을 들이며 읊으로 향한 신작로쪽에 무심히 눈길을 돌리던 옥실은 그쪽으로부터 웬 사람이 힘없이 털썩거리며 점점 가까이 걸어오고있는것을 보았다. 옥실이가 다시 허리를 구부리고 김매던 이랑을 마저 다 매고 밭머리에 이르렀을 때도 그 사람은 퍼그나 가까이 에 왔다.

《춘택아저씨구만.》

옆에서 같이 김을 매나오던 조합원이 말했다.

그의 말이 옳았다. 오늘 낮에 앓는 안해의 약을

구하려고 읊에 갔던 조합원 춘택이었다.

옥실은 길가에 나가 춘택이를 만났다. 춘택의 덩수룩한 수염속에서 입이 병글어지며 흰 이발이 보였는데 저으기 어색해지고 미안스러워하는 눈치였다.

《갔던 일은 잘됐나요?》

옥실은 미소를 머금고 따뜻하게 물었다.

그런데 춘택은 웬일인지 입속으로 우물거리면서 옥실의 눈길을 피하는것이였다. 옥실의 서글서글하고 온화한 눈을 마주보기 피로와하는것 같았다.

춘택은 길가의 둔덕진 풀밭에 걸터앉아서 땅바닥을 내려다보면서 힘들게 입을 열었다.

《내 좀 할 말이 있네.》

옥실이는 심상치 않은 눈치를 채고 그 옆에 나란히 앉았다. 그들이 앉은 옆에는 새풀이 자라고있었는데 바람에 풀대들이 흔들거렸다. 옥실은 바람에 나풀거리는 옷고름을 가만히 쥐고서 춘택의 땀뻘 얼굴을 지켜보았다.

《무슨 일이예요?》

《관리위원장, 내 이런 말을 듣구다닌다구 나무람말게... 읊에서 들은 소린데 미루등개간은 못한다누만.》

이렇게 가까스로 말하고 한숨을 내쉬는 춘택의 갈퀴같은 손이 가늘게 떨리고있었다.

옥실은 깜짝 놀래였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

춘택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담배쌈지를 더듬었다.

《관리위원장은 아직 소식을 듣지 못했나?》

《소식이라니요?》

《미루등개간은 수지가 맞지 않아 뒤로 미룬다네.》

춘택의 목소리는 쓸쓸하게 울렸다.

《뭐라구요?... 아니 누가 그래요?》

춘택의 팔소매를 잡아당기며 옥실은 부르짖었다. 춘택의 손에서 담배가루가 흩어져내렸다. 하지만 춘택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불길의 확 이는 듯한 옥실의 두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군인민위원회에서 들었네.》

옥실은 억이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옥실은 춘택의 팔소매를 놓고 일어섰다. 마음속깊이 간직했던 커다란 희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것 같았다.

(아니 그럴수 없어!)

옥실은 머리를 가로 저었다. 그 말을 믿기에는 개간에 대한 신념이 너무도 굳었던것이다.

《아저씨, 저는 믿을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읍에 가서 알아보겠어요.》

옥실은 머리수건을 고쳐쓰며 침착하게 말했다.

춘택은 자기가 정말 헛소문을 들은게 아닌가, 옥실이 가 갔다오면 문제가 달라질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신뢰의 빛 어린 눈으로 옥실을 바라보며 말없이 머리를 끄덕이었다.

옥실은 물에 대한 미루등사람들의 절절한 념원이 주름살마다에 스며있는 춘택의 소박한 얼굴을 마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 래 얼른 외면하고 읍을 향해 길을 떠났다.

미루등의 가없이 넓은 초원은 불안스러운듯 더욱 설레이었다. 미새풀들이 물결치듯 흔들거리는 가운데로 노루가 코등을 호물거리며 두귀를 쫓긋 세우고 달려가고 구름들이 흩어져가는 상공에는 수리개가 떠서 빙빙 돌고있었다.

한쪽 주먹을 앞가슴에 꼭 눌러붙인 옥실은 상반신을 앞으로 수긋하고 초원길을 걸었다. 머리수건과 옷고름이 어깨뒤에서 펄럭거리고 치마자락은 무릎에 휘감기었다.

읍에 다달은 옥실이 가 군인민위원회의 조사단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현지에서의 사업을 결속짓고 밤중으로 떠나려고 하던참이었다.

조사단을 책임진 농업성의 일군은 땀에 흠뻑 젖은 옥실이 방안에 들어서자 놀라운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떻게 왔습니까?》

《머느리골 관리위원장 방옥실입니다. 너무도 뜻밖의 소문이 들려오기에 알아보차고 왔습니다.》

옥실은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조사단책임자는 일순간 얼굴에 복잡한 표정을 짓고 옥실을 슬며시 외면하였다. 그가 찾아온 이유를 짐작했던것이다.

《우선 앉으십시오, 관리위원장동무.》

그는 당황해하며 결상을 가리켰다.

(사실이구나...)

그 일군의 얼굴과 몸가짐에서 옥실은 벌써 모든것을 알아차릴수 있었다. 일시에 피로가 몰려들어 다리가 떨리고 눈앞이 흐려와 옥실은 의자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조사단책임자의 무거운 음성이 들려왔다.

《관리위원장동무, 우리는 전문가들로서 미루등 개간문제를 국가적인 견지에서 연구하고 타산해보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옥실은 땀에 젖은 얼굴을 씻으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무엇보다도 미루등의 땅은 척박해서 발전전망이 적다. 그리고 미루등을 개간하는데서 기본고리는 물을 해결하는것인데 물을 잡아둘 저수지를 건설하자고 하여도 지형상으로 매우 불리해서 돈이 많이 드는 반면에 저수량은 적다. 다음으로 이 저수지물을 다시 양수기로 등판에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니 결국 미루등을 개간하자면 국가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지금 나라의 형편은 어떤가? 우리 자체의 내부 원천과 예비에 의해서 공업화의 기초를 쌓고 인민들의 의식주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5개년계획의 긴장한 사정은 한푼의 돈이라도 아끼고 효과있게 쓸것을 요구하고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나서 농업성일군은 자신의 피로운 마음을 진정하려는듯 멀리 창밖을 내다보며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이렇게 말을 맺었다.

《수령님께 미루등개간이 어렵다는 보고를 드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우리들의 심정을 리해하여 주십시오. 지금의 우리 나라 경제형편으로써는 너무나 자금이 많이 드는 미루등개간을 당장은 시작

할것 같지 못합니다.》

옥실은 머리를 들었다. 그렇다, 나라가 어려운 경제개혁권에 처해있는데 미루등만 생각해서야 되겠는가... 당과 국가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전후의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시는 어버이수령님께 미루등문제로 또 근심을 끼쳐드리게 된다면...

옥실은 물기가 어린 눈으로 농업성일군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생각이 짧았어요. 저희들이 좀더 참고 일하겠어요. 제가 부탁하고싶은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너무 근심하지 않으시도록 잘 말씀드려주셨으면 하는것입니다.》

농업성일군은 흥분되어 옥실의 손을 꼭 잡았다.

《리해해줘서 고맙습니다.》

옥실은 전쟁때 인교리에서 리위원장으로 일했던 나이지국한 군위원장을 만나보고 발걸음을 돌렸다.

등근달이 떠올라 어둠속에 잠겼던 미루등이 신비로운 빛을 은은하게 뽐냈다.

사랑하는 고향땅, 살 곳을 찾아 헤매이던 조상들이 피눈물을 뿌리며 개척하여온 미루등, 원한서린 땅에서 옥실은 나서 자랐고 자기처럼 이런 거칠은 땅 한뼘기마저 없던 가난한 총각에게 눈물을 머금고 시집갔다.

그러나 세상은 뒤집혀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루등의 주인이 되도록 하여주시었다.

이 땅이 거칠고 메말랐어도 자기의 땅을 가지게 된 그들의 기쁨은 말할수없이 컸다.

《여보, 우리 이 땅을 잘 가꾸시다. 장군님께서 주신 땅을!》

밭을 갈며 남편이 이렇게 말했을 때 옥실은 아지랑이 아물거리는 등성이를 바라보면서 소녀처럼 황홀한 꿈에 잠겨들었다. 그런데 미국놈들이 그 꿈을 짓밟으며 달려들었다. 시련의 시기가 닥쳐왔다. 남편은 미루등의 곡식들을 잘 가꿔달라고 부탁하고 전선으로 떠나갔다.

옥실은 후방에서 미루등을 지켰다...

## 2

창창하게 개인 하늘에서 별들이 반짝이고 달이

유별나게 밝은 칠월초의 밤. 바람도 없고 풀벌레들의 울음소리가 밤의 고요를 한층 짙게 하는 미루등의 깊은 밤이었다. 무연하게 펼쳐진 초원의 이슬맺힌 풀잎들과 구부러든 소나무들 그리고 길옆의 밭에서 자라고있는 조며 강냉이들이 푸르스름한 달빛아래서 이 밤의 정적을 지키고있었다.

이 꿈속같은 달밤에 명주필을 편듯 하얗게 보이는 큰길을 따라 아이를 등에 업은 한 젊은 녀인이 소달구지를 몰며 걷고있었다. 수수한 흰저고리에 갑장치마를 입고 남자넙적고무신을 신었다.

그가 머느리굴에 사는 방옥실이였다.

소달구지에는 철판으로 만든 물통이 실려있었다. 달구지바퀴 굴러가는 소리와 물통이 덜컹덜컹거리는 소리가 가락맞게 울리는 가운데 소방울소리가 유난히 맑게 울렸다. 그리고 이따금 《이랴, 빨리 가자!》 하고 소를 재촉하는 옥실의 청아한 목소리가 여기에 섞이였다.

옥실은 소고삐를 쥐고 걸으며 입속으로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뿔이 사납게 뻗친 황소는 코로 숨을 훑- 훑- 내쉬면서 녀인의 부드러운 손길에 순종하여 묵묵히 뒤따랐다.

갑자기 어딘가 남쪽하늘가에서 불빛이 확 퍼지고 뒤따라 폭음이 울려왔다. 이 밤도 미제공중비적들이 날치고있었다.

옥실은 불안스럽게 하늘을 쳐다보며 소잔등에 채찍질을 하였다. 그랬으나 황소는 별로 반응이 없었다. 사람과 함께 소도 지켰던것이다. 옥실은 얼굴에 흐르는 땀을 씻고 끄꽂거리는 애기를 뒤돌아보며 몇번 추슬러주었다.

이때 멀리서부터 불줄기가 길게 비치더니 어느사이에 옥실이앞에까지 왔다.

여러대의 승용차들이였다. 옥실은 급히 소달구지를 한옆으로 몰아붙이였다. 그런데 지나가버릴줄 알았던 승용차들이 멈추어서는것이였다.

승용차의 문들이 열리고 거기서 군복입은 사람들이 내렸다.

키가 후리후리하신분이 옥실에게로 다가오시여 미소를 지으시고

《수고합니다.》 하고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씀



하시였다.

옥실은 황급히 머리수건을 벗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렸다.

《밤중에 달구지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저 물을...》

이렇게 대답하며 고개를 드는 순간 옥실은 오매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알아뵈고 기쁨에 넘쳐, 그러나 너무 뜻박이어서 입안의 소리로 《장군님!》 하고 뜨겁게 속삭이였다. 장군님을 미루등의 초원길에서 뵈게 된줄이야 꿈엔들 생각했으랴.

미루대지의 밤은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소원도 기쁨에 넘쳐 빛을 내고 환희로 들끓는듯... 옥실의 눈빛은 기쁨에 넘쳐 반짝이였다.

《이게 물이요?》

장군님께서 달구지위에 실린 물통을 가리키시였다.

《그렇습니다, 장군님!》

옥실은 여전히 설레이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물은 어디로 실어가요?》

《밭에다 주려고 합니다.》

《가물피해가 심한 모양이구만? 물은 어디서 길어오오?》

《저- 석당리에서 길어옵니다.》

《그 먼데서? 동무네 마을은 어디요?》

《인교리 머느리골입니다.》

장군님께서 머느리골이라는 이름이 귀에 익으신 이름이어서 매우 반가워하시였다.

《동무도 머느리골에서 사오? 거기에 샘물이 있지 않소?》

옥실은 장군님께서 머느리골을 잘 알고계시는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 샘도 이번 가물에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늦도록 물을 길어나르는구만. 아이까지 업고...》

장군님께서 땅에 화락하니 젖은 옥실의 얼굴을 측은하게 바라보시다가 멍에를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수원들에게 말씀하시였다.

《작년도에 황해도에서 온 열성농민들을 만난적이 있는데 그때 미루등 머느리골에 산다는 한 농민이 거기 샘물에 깃든 전설을 나한테 얘기했소. 옛날 미루등에 시집온 녀자가 있었는데 가물철에 물기는 것이 제일 고달픈 일이었다오. 그러다가 한번은 문앞에까지 와서 쓰러졌는데 너무 슬퍼서 하늘에 대고 통곡하니 그앞에서 샘이 솟아났다는거요. 이런 고장이어서 녀자들이 시집을 오려고도 하지 않는다오. 넓은 등판을 보고 찾아들어온 리농민들이 한해 농사를 지어보고는 못살 고장이라고 믿어버렸다 하여 <미루등>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그 동무가 말했소. 나는 그 동무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것을 생각했소... 그 동무는 아직 젊은 동문데 이 미루등에서도 수확을 많이 낸 훌륭한 동무요. 머느리골에 산다니 동무도 잘 알겠구만. 강운칠이라구 하는 동무요.》

장군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까부터 안절부절못하던 옥실은 부끄러워 손에 든 수건만 뽁뽁 주무르다가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올렸다.

《저 ... 이 애 아버지입니다...》

《아, 그렇소?... 동무가 그럼... 마침 만난셈이구만, 허허...》

옥실은 고개를 점점 더 숙이였다.

장군님께서 뜻밖에도 강운칠의 안해를 만나게 되시여 여간 기쁘시지 않으시였다. 그리고보면 역시 그 남편에 그 안해가 아닌가.

《강운칠동무는 잘 있소?》

《군대에 나갔습니다.》

《음-》

옥실은 남편이 군대에 나가면서 밭에서 자라고있는 곡식들을 부락했다고 말씀드렸다.

《이 물통은 평양에 올라가 장군님을 만나뵈고 돌아와서 만든것입니다. 장군님께서 미루등때문에 걱정하시는데 농사를 더 잘 지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래 원썬놈들과 싸우러 나가면서 이 물달구지를 동무한테 맡겼겠구만?》

장군님께서 저으기 격동되시여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그때 미루등때문에 너무 심려하시지 마시라고, 이제는 우리 땅이 됐는데 우리가 힘껏 가꾸겠다고 말하던 소박한 농민의 얼굴을 되새겨보시며 뒤짐을 지시고 길우를 천천히 거니시였다.

황소가 코깅을 내뿜며 머리를 내저었다. 《쩔-렁... 쩔렁...》 방울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장군님께서는 옥실이 있는데로 가까이 다가서시며 이름은 어떻게 부르는가고 따뜻하게 물으시였다. 《방옥실이라고 합니다.》

옥실이 대답을 드렸다.

장군님께서는 옥실의 등에서 혼곤히 잠든 애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시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고 《갓난애구만. 아들이요?》 하고 물으시였다.

옥실은 부끄러워하며 딸이라고 대답을 올렸다.

《딸이면 뭐라고?》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애를 봐줄 사람이 집에 없는 모양이구만. 그런데 옥실동무, 왜 이렇게 밤에 물을 길어야 하오?》

《물통을 여러 집에서 같이 씹니다.》

《음- 그러니까 밤낮 긴겠구만... 이렇게 달구지로 물을 길어나르는것이 고생스럽지... 안되겠소. 동무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겠소!》

미루등을 가꾸어보려는 이들의 열망과 노력을 생각하실수록 장군님의 마음은 무거워지시였다.

옥실은 장군님께 근심을 끼쳐드린것이 못내 죄송스러워 웃음이 가셔진 얼굴로 말씀드렸다.

《장군님! 해방전에 비하면 지금은 괜찮습니다. 미루등이 우리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지금은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이 담긴 말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옥실의 달빛어려 반짝이는 눈을 보시며 향토애의 깊은 감정을 간직한 미루등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옥실이 입고있는 옷이며 신발을 살펴보시였다.

옥실은 당황해졌다. 그가 신고있는 해진 남자넙적고무신이 흰버선과 대조되어 달빛에 유난히도 선명하게 보였던것이다. 옥실은 부끄럽고 창피스러워 발을 치마자락밑으로 움츠리였다.

장군님께서는 그것을 못본척하시고 달빛아래 묵

묵히 누워있는 초원을 향해 돌아서시였다.

가슴이 아프시였다. 온 여름내 신이 다 닳도록 물을 길어나르며 애쓰고있는 미루등의 녀인... 남자와 무신마저 해진것을 신고다니면서도 자기들의 고달픔보다 조국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는 녀인의 가룩한 마음이 고마우시였다.

《아니요, 옥실동무! 우리는 땅은 주었지만 미루등에 물은 아직 주지 못했소. 여기에 물만 있으면 미루등은 살기 좋은곳으로 될것ियो. 자 보시오!》

장군님께서는 미루등의 초원을 가리키시였다.

그이께서 가리키시는데 따라 모두 끝없는 잠에 들어있는듯한 넓은 평원을 바라보았다. 오랜 세월을 저절로 자라났다가는 저절로 스러지고 또 자라나는 잡관목과 잡초들이 허리치도록 무성한 초원의 정적은 세기적인 잠을 깰가봐 두려워하는듯 등성이 위에 무겁게 깃들어있었다.

《얼마나 넓은 초원이요. 이것이 다 귀중한 조국의 땅ियो. 우리는 이 초원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기에 물을 올려 논을 풀면 미루등사람들도 벌방부럽지 않게 잘살수 있습니다.》

장군님의 우렁우렁한 목소리는 초원위의 넓은 공간에 울려퍼졌다.

미루등너머 어데선가 탐조등이 캄캄한 하늘을 쏘고있었다. 《쿵... 쿵...》 둔중한 폭음이 또다시 들려왔다.

장군님께서는 전선동부로 나가시는 바쁜 걸음이시였다.

《전쟁이 끝나면 미루등을 개간해야겠소. 나는 강운칠동무를 만났을 때 벌써 그 생각을 했더랬소.》

옥실의 두눈에 뜨거운 눈물이 피여올랐다.

《옥실동무, 윤칠동무에게 편지를 쓰시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미루등을 황금벌로 가꾸자고말ियो.》

《장군님, 편지를 꼭 쓰겠습니다.》

《나는 오늘 동무를 만나니 대단히 기쁘오. 승리에 대한 신심이 더 강해졌소. 자 그럼 전쟁을 이기고 다시 만남시다.》

장군님께서는 헤어지기가 서운하싯듯 그의 손을 한동안 잡고계시다가 승용차에 오르시였다.

승용차들은 발동을 걸기 바쁘게 토산방향으로 달려갔다.

옥실은 흐르는 눈물을 씻을 생각조차 잊은듯 길 위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그로부터 며칠후 최고사령부 연락군관이 군용차를 타고 머느리골로 찾아왔다.

그는 방옥실을 만나서 다음과 같은 사연을 이야기해주었다. 미루등사람들과 헤어지신후 전선으로 나가시던 장군님께서 승용차안에서 이윽도록 침묵을 지키시다가 부관에게 문득 말씀하시였다.

《평양에다 연락해서 너자고무신을 미루등녀성들에게 보내주도록 합시다. 남자신을 신고 부끄러워하던 옥실동무의 모습이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구만.》

연락군관은 자동차에 실고온 흰 고무신들을 넘겨주면서 특별히 한걸레를 끌라서 옥실이에게 발에 맞는가 신어보라고 하였다.

《됐습니다. 이제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마음을 놓으시게 되시였습니다.》

연락군관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였다...

### 3

조사단을 만나보고 돌아온뒤 옥실은 서운한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고 가물을 이겨내기 위한 김매기를 억척스레 다그쳐나갔다.

미루등개간에 대하여 커다란 기대를 걸고있던 조합원들은 뜻밖의 소식으로 하여 처음 얼마간은 침울한 얼굴로 서로 말도 잘 주고받지 않았지만 하루가 지나자 그런것을 다 잊은듯 웃음속에 발김들을 뒀다.

《오죽하면 이 땅을 미루등이라 했겠소. 웬걸 개간이 그리 쉽게 되겠소.》

《하기야 이고장에 물을 끌어온다는게 하늘에서 구름을 잡아오는 격이지, 허허허...》

발김을 매는 농민들속에서 이런 말이 오고갔다.

옥실은 호미질손을 멈추고 전갈이면 롱말로 사람들을 웃기였을 춘택을 언뜻 뒤돌아보았다. 그는 입을 꼭 다물고 우악스럽게 김을 매나갈뿐이었다.

옥실은 춘택이 뒤따르기를 기다려 나란히 고랑을 타고 나갔다. 한고랑 김을 다 매고났을 때 춘택은

먼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다시 새 고랑에 들어서는데였다.

《아저씨, 왜 말 한마디 안하세요. 아저씨까지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옥실은 그의 옆으로 다가가 땅에 호미를 박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품을 들어서 곡식이 나면 얼마나 난다구. 형 참...》

《갑자기 그건 무슨 말씀이예요?》

《글쎄 내 너무두 답답해서 하는 소리지.》

옥실은 그의 마음을 이해할수 있었다. 춘택은 원래 재령나무리별사람인데 왜정때 지주놈에게 기름진 땅을 다 떼우고 살길을 찾아다니다 미루등에 피나리보짐을 풀어놓은 농민이었다. 버리고온 고향땅을 못잊어 그는 자주 나무리별자랑을 늘어놓곤했다.

더우기 얼마전엔 나무리별에 산다는 사촌동생한테서 별방으로 이사해오라는 편지까지 받았다니 그의 마음이 들썩하지 않을수 없을것이였다.

옥실은 춘택이 이웃들과의 의리를 저버릴수가 없어 미루등을 뜨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런만큼 춘택을 고맙게 생각하느라였다.

그런데 지금 춘택의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고있는것이 분명했다.

《아저씨, 좀 더 기다리자요. 미루등이라구 왜 이렇게만 농사짓겠어요. 여기두 물만 있으면 곡식이 잘될거야요.》

옥실은 그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마디마디 힘을 주어 말하였다.

《그런거야 나두 알지. 물이 있으면 농사야 어련히 잘될라구. 관리위원장, 내 곰곰히 생각해봤네. 알아보니 떠날 사람은 떠나두 좋다더구만. 내 나이를 더 먹기전에 좋은 땅에서 농사를 한번 알심있게 지어보구싶네. 그래서 나라에 보답두 하구...》

《그런 마음은 나두 알아요. 하지만 아저씨가 어떻게... 섭섭하구만요. 아저씨가 어떻게 미루등을 떠나요? 이게 어떤 땅이예요. 옛날에 아저씨도 부모님 따라 살곳을 찾아 여기로 왔지요. 여기가 마지막으로 온곳이니 어디 더 갈데가 없어 죽지 못해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땅이 아니예

요.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째서 목숨을 내걸고 이 땅을 지켜싸웠나요. 춘택아저씨도 아주머니도 밤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난알을 거둬들여 전선에 보냈지요. 미루등에서 전선으로 싸우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청년들이 한둘이에요?... 미루등은 피로써 지킨 땅이에요.》

옥실은 갑자기 목이 메어왔다.

춘택은 호미질손을 멈추고 오래동안 멍하니 한곳만 바라보다가 다시 손바닥에 침을 뱉어 호미자루를 틀어쥐었다.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했겠나. 관리위원장 말을 듣구보니... 아마 내 생각이 짧았던것 같네.》

《아저씨, 우리 힘을 합쳐 미루등을 잘 가꿔보지요.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땅도 귀중한 조국땅이라고 하셨어요. 수령님께서는 이 등판에 물을 끌어올려 개간하면 별방부럽지 않게 잘살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저씨, 이제 며칠만 더 가물을 이겨내자요. 그러면 장마가 오고 올해의 힘든 고비도 넘기게 될거예요.》

옥실은 춘택의 꺾꺾한 손을 꼭 잡았다놓고 절절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관리위원장, 날 마음껏 욕하게나. 나살이나 먹은게 그만 새머리없이... 나땀에 속을 썩일 필요는 없네. 내 아무랬으면 옥실이랑 미루등을 버리구 흠뻑날 사람이겠나. 하두 답답하니까 그런 생각을 다한거지.》

이날 춘택은 다른 날보다 눈에 뜨이게 김을 많이 뻐했다. 그의 그늘졌던 얼굴도 전에없이 밝아진듯싶었다.

더위속에서 땀은 흘리면서 종일 일하고나니 옥실의 마음속은 저즈기 후련해졌다. 옥실은 밤이 되어 달이 뜨자 또다시 호미를 들고 등성으로 올라갔다.

낮동안 해벌에 시달리다가 밤이 되어 원기를 톨곤 강냉이들이 밭에서 조용히 숨쉬고있었다. 여름밤의 따스한 바람이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지나갔다.

옥실은 한이랑 또 한이랑 김을 매어나갔다. 어느덧 달도 기울고 미루등은 밤새들과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로 가득찼다.

옥실은 허리를 펴고 일어서서 이마에 맺힌 땀을 씻었다. 그리고 이 밤의 신비로운 음악소리를 들으며 가슴울렁이면서 지평선저쪽 북녘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쪽에 멀리 평양이 있었다...

## 4

밤은 깊어가고있었다.

넓고 환한 방안에는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들릴뿐 정숙이 깃들어있었다. 전화종소리도 이 정숙을 깨뜨릴가봐 저어하듯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뒤집을 지시고 깊은 사색속에서 조용히 거닐고계시였다. 응접탁앞에는 방금 미루등개간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끝낸 농업성일군이 그린듯이 서있었다.

수령님께서는 천천히 창문으로 다가가시여 넓게 드리운 흰 문보를 젖히시고 창문을 여시였다. 류월의 따스한 바람이 넓은 문보를 가벼이 날리고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번쩍이는 응접불광과 조명등이 불야성을 이룬 숲처럼 일어서는 거리의 건설장들에서 신호공의 호각소리와 불도젤과 자동차가 부르릉거리는 소리, 무엇을 두드리는 망치소리 그리고 노래소리들이 바람에 실려왔다. 수령님께서는 밤을 모르고 들끓으며 장엄하게 솟아오르고있는 평양의 창공 저 멀리로 시선을 주시였다. 그 하늘아래 어디엔가 미루등이 있을것이다. 이 밤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있는지?...

미루등개간을 희망으로 바라보며 시련을 이겨온 미루등사람들에게, 쨍쨍쨍 소방울소리 울리며 어린애를 업고 밤늦도록 물을 길어나르던 그 녀인에게 이렇듯 피로운 대답을 주어야 하는가?

아직 긴장한 국가의 재정이, 원썬들의 야수적인 파괴로 인하여 모든것을 새로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는 나라의 형편이 우리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러한 결론을 지을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수령님께서는 마음이 무거우시였다.

《이것이 전부요?》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시며 그이의 우렁우렁한 음성인 방안에 가득 울리였다. 조사보고를 받으신후 처음 하시는 말씀이시였다.

《…………》

농업성일군은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생각에 잠기시어 한동안 창밖을 내다보시다가 근엄해진 얼굴을 농업성일군에게 돌리시었다.

《동무들의 견해를 알만하오. 그런데 동무들이 그곳 농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해보았소?》

수령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 때 농업성일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미루등사람들자신도 조사단의 립장을 리해하여주었던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선뜻 말씀드릴수 있었다.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시었다.

《그래…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있소?》

《저희들이 떠나던 날 저녁에 미루등의 한 녀성관 리위원장동무가 찾아왔습니다. 그 동무는 몹시 흥분되어있었는데 개간 못한다는 소문을 어디서 듣고 그것이 사실인가 알아보려고 왔었습니다. 저는 몹시 난처하여 열른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무가 벌써 모든것을 알아채고 맥없이 의자에 주저앉는데 보니까 눈에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얼굴빛을 흐리시며 그를 외면하시었다. 농업성일군은 공연히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서둘러 뒤말을 이었다.

《그러나 제가 모든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자 그 동무는 저희들을 리해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서 수령님께 너무 근심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동무의 이름이 방옥실이 아니오?》

수령님께서 조용히 물으시었다.

《그렇습니다.》

농업성일군은 수령님께서 그 녀인을 알고계시는 데 몹시 놀래었다.

《나는 그 동무를 잘 아오! 잘 알고있소!》

수령님께서서는 격동되시는 마음을 진정하시지 못하시며 다시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시었다.

전쟁의 준엄한 시기에도 신념을 잃지 않고 다 해

진 남자고무신을 신고 물을 길어나르며 자기의 고달픔보다 조국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던 옥실이! 오늘도 자기들의 고생보다 나라의 형편을 먼저 걱정하는 미루등의 딸!

《우리 인민은 바로 이런 인민이요! 이런 인민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폐허우에서도 웃으며 새생활을 건설하고있는것이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흥분되신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잠시 침묵하시었다가 조용히 그러나 힘을 주시어 계속하시었다.

《우리는 인민들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것으로 투쟁의 보람을 느껴야 하오. 이것이 바로 혁명가의 립장이요… 래일 다시한번 미루등에 나가 봅시다.》

농업성일군은 죄송스러움을 금할수 없어 아무런 대답도 드리지 못했다.

…류월말의 불별이 초목을 태워버릴듯 뜨겁게 내려쬐이는 한낮이었다.

여러대의 승용차들이 미루등의 초원길을 달려가고있었다.

앞차에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군위원장과 함께 앉아계시었다.

《강윤칠동무는 어떻게 되였습니다까?》

그이께서 이렇게 물으시자 군위원장은 머리를 떨구었다.

《락동강도하전투에서 장렬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아까운 동무가 돌아오지 못했구만. 희망이 큰 동무였는데…》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이 지신 얼굴을 차창으로 돌리시고 희생된 전사에 대한 가슴아픈 추억을 더듬으시었다.

《옥실동무가 마음고생이 많았겠소.》

그이께서는 무거운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군위원장이 옥실이가 슬픔을 이겨내고 전식식량 증산을 위하여 애써온 사실과 일시적후퇴시기에 향토를 지켜 인민유격대에서 싸운 사실 그리고 농업성에서 미루등개간이 어렵다고 했을 때 미루등을 뜨려는 사람들을 설복시키고 아버지수령님만을 믿

고 동요없이 곳곳이 조합살림을 해나가고있는 사실을 간단히 말씀드렸다.

수령님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조사단일군들의 보고를 받으시고 누구보다 옥실을 생각했었는데 정작 그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그가 겪은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것이 충분히 짐작되시였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면서 다른 고장도 아닌 미루등에서 관리위원장일을 하고있으니 누구보다도 피로움을 많이 겪었을것이다. 빨리 그를 만나고싶으시였다.

승용차들은 어느덧 머느리골에 들어섰다.

차에서 내리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관리위원회에 들어서시였을 때 거기에는 통계원처녀밖에 아무도 없었다. 모두 밭에 나갔다는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옥실동무네 집이 여기서 먼가고 물으시였다. 군위원장이 가까이에 있는 자그마한 초가집을 가리켜드리였다.

옥실동무가 올 때까지 그 집에 가보자고 말씀하시며 수령님께서 먼저 그쪽으로 걸어가시였다.

수수대울바자를 둘러친 초가집은 류월의 뜨거운 해벌아래서 조울고있는듯 조용하였다. sap문앞에 이르신 수령님께서는 해바라기가 자라고있는 울바자너머로 마당안을 들여다보시였다. 마당은 감자, 오이, 호박, 줄당콩들을 심은 터밭과 여름꽃들이 피고있는 꽃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어서 손바닥만해보였다.

터밭에서 흰무명적삼에 감장치마를 입은 자그마한 처녀애가 호미를 들고 김을 매고 있었다. 그 애의 머리에는 붉은 리봉이 꽃처럼 매달려있었다. 인기척을 느낀 소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놀라며 호미를 놓고 일어섰다.

수령님께서는 sap문을 여시고 마당으로 들어가시며 《너 혼자 있냐?》 하고 물으시였다.

소녀는 손을 털고 터밭에서 달려나오더니 수령님앞에 이르러 인사를 드렸다.

《너 용하구나. 집일을 다 하고... 학교 다니느냐?》

수령님께서 소녀의 까만 머리를 쓰다듬어주시였다.

《학교 갔다 왔어요.》

《그래 ... 몇학년이지?》

《1학년입니다.》

수령님께서는 두손으로 무릎을 짚으시고 허리를 굽히시며 소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시였다. 눈이 시원하게 크고 예쁘게 생겼다.

《그러니 네가 전쟁때 어머니의 등에 업혀다니던 꼬마구나?》

소녀는 해죽해죽 웃었다.

수령님께서는 허리를 펴시며 군위원장을 돌아보시였다.

《세월이 빠르구만!》

수령님께서는 깊은 감회에 잠기시였다. 뿔뿔히 황소를 이끌고 달밝은 밤에 물을 길던 녀인의 등에서 썩근썩근 잠자던 아이가 벌써 이처럼 컸다.

《네 이름은 어떻게 부르니?》

《선희예요.》

《그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뒤집을 지시고 좁은 뜰안을 돌아보시였다. 어느 구석을 보나 집주인의 알뜰한 손길이 느껴졌다. 그러나 남자의 손이 미치지 못한 흔적들이 첫눈에 벌써 알렸다. 땀나무도 다 떨어져가고 나무굴뚝이 다 삭아서 얼마 같것 같지 못했다. 수령님께서는 굴뚝을 흔들어보시며 얼굴빛을 흐리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선희더러 부엌에 좀 들어가보자고 말씀하시였다. 소녀를 뒤따라 부엌에 들어가신 그이께서는 단지뚜껑들을 열어보시고 찬장도 열어보시였다. 찬장안에 놓아둔 밥그릇에는 맨조밥이 담겨져있었다. 그이께서는 밥그릇을 손에 드시고 선희를 돌아보시였다.

《세끼 다 조밥을 먹느냐?》

그 물으심의 뜻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어린 선희는 《네.》 하고 대답을 드렸다.

《입쌀밥이랑 더러 먹어보니?》

선희는 눈을 깜빡이며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네가 쌀밥을 구경조차 못하는 모양이구나.》

수령님께서는 저으기 갈리신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그제야 선희는 어린 생각에도 수령님

의 물으심의 뜻을 짐작했음인지

《원수님! 조밥이 맛있어요.》

하고 푹푹푹한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수령님께서서는 소녀의 불을 쓰다듬어주시었다.

《조밥이 맛이 있어?》

《당콩이랑 두고 먹으면 맛이 있어요.》

선희가 계속 조잘거렸다. 당콩을 두고 먹으면 맨 조밥보다 맛있는줄 누가 모르랴. 어린것이 수령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려는 그 기특한 마음이 더욱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찢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묵묵히 마당으로 나오시었다.

때마침 머리수건을 손에 벗어든 옥실이가 삐딱문으로 들어섰다. 옥실은 조합원들과 같이 밭에서 일하다가 급히 달려오는길이었다.

《엄마!》

하고 선희가 먼저 달려가 어머니의 치마에 매달리며 좋아서 강충강충 뛰었다.

《옥실동무구만! 잘 있었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옥실을 보시고 얼굴빛이 밝아지시었다.

《수령님, 그간 안녕하십니까?》

옥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손을 잡아주실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눈물이 견잡을수 없이 흘러내려 고개를 숙이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친딸을 오래간만에 만나신 심정으로 옥실을 바라보시었다. 예나 다름없이 키가 늘씬하고 두눈이 서글서글했으나 별에 탄 감실한 얼굴과 갈라터진 입술을 꼭 다문 입 그리고 머리수건을 움켜쥐고있는 큰손에서는 고난을 박차고 꺾끗하게 걸어온 너인의 굳센 모습이 뚜렷이 안겨왔다.

《전쟁때보다 많이 변했구만.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수령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실 때 옥실은 미루등사람들을 못잊으시여 이처럼 먼길을 또다시 찾아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로고와 은정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수령님, 저희들은 일없습니다.》

《내 얘기를 다 들었소. 동무가 어떻게 오늘까지

꺾끗하게 살아왔는지 다 들었소! 강운칠동무도 잘 싸웠소... 그는 비록 돌아오지 못했지만 옥실동무가 미루등에 있지 않소!》

옥실은 다시 눈물이 솟구쳤다.

선희가 어머니의 소매자락을 가만히 쥐여당기며 속삭였다.

《엄마, 고무신 안신나?》

옥실의 얼굴이 확 붉어졌다.

《애두...》

《아버지원수님께서 오시는 날 신겠다고 엄마가 늘 말하지 않았나?》

옥실은 얼굴을 붉히며 어쩔줄 몰라했다. 선희가 방안으로 뛰어들어가더니 해벌에 눈이 부시도록 흰 너자고무신 한켠레를 들고나와 어머니의 손에 쥐여 주었다.

《엄마, 신어!》

《.....》

고무신을 들고선 옥실의 손이 가늘게 떨리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머리를 숙이고 서있는 옥실의 손에서 고무신을 받아취시었다.

아직도 향긋한 고무냄새가 그대로 풍기는 하얀 고무신!

《동무가 해진 남자고무신을 신고 물길으려 먼길을 다니는것을 보고 마음에 걸려 이 고무신을 보내 주었는데 오늘까지 신지 않고있었던말이요?》

수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수원들은 모두 눈물을 머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농업성의 일군을 향해 말씀하시었다.

《동무들이 미루등개간이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별방으로 내려가라고까지 말했지만 미루등사람들은 떠나가지 않았소! 이들은 신이 다 닳도록 미루등을 오르내리며 물을 길어 곡식을 가꾸었고 피로써 이 땅을 지쳤소. 지금도 미루등을 가꾸며 지키고 있소. 무엇때문이겠소? 그들이 우리 당을 믿고있으며 우리의 제도를 믿고있기때문이요. 이땅이 조국강토의 한부분이라는것을 알고있기때문이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격조높이 절절하게 말씀하시었다.

《전쟁이 아니었다라면 우리는 미루등을 개간했을것이요. 나는 그때 우리가 보내준 고무신을 받아 안고 미루등녀성들이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온밤 자지 못했소. 마음은 더욱 무거웠겠소. 고무신이 아니라 개간된 미루벌을 주었어야 했을거요! 오늘 옥실동무네 집에 와보니 더욱 그것을 느끼게되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선회를 품에 안아주시며 말씀하시였다.

《이애의 아버지는 우리한테 이애를 맡기고 조국을 위해 싸우다 전사했소. 그런데 우리는 이애한테 입쌀밥 구경도 못시키고있소!》

수령님께서 되돌려주신 어머니의 흰 고무신을 가슴에 부둥켜안은 선회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머리를 숙이였다. 아버지는 영영 다시 못오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품보다 더 크고 뜨거운 품속에 안겨 있다는것을 어린것이 느꼈던것이다.

## 5

아득한 백리미루등판은 무연한 초원과 울창한 소나무수림, 황무지와 구릉들, 주름잡힌 골짜기들로 이루어져있었다. 오랜 세월을 거쳐 인간이 이 대지를 탐내여 불을 놓고 나무뿌리를 들추어내고 땅을 뿌져 개간해들어갔지만 그것은 겨우 미루등의 변두리를 건드리는데 지나지 않았고 태고연한 등판은 인간을 회롱하면서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물이 없어서 여름이면 언제나 가물에 시달렸건만 미루등의 변두리를 지나가는 레성강은 등판으로 치달아올라올수 없었다...

승용차에서 내리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미새풀이 자라고있는 초원을 가로질러 걸어나가시였다. 옥실이며 군위원장이며 수원들이 함께 걸었다. 이름모를 초원의 새들이 푸드득푸드득 날아오르고 풀대들은 옷에 쓸리어 좌-좌- 소리를 내면서 좌우로 갈라졌다가 뒤이어 합치군하였다. 해별은 뜨겁게 내려쬘이고 바람한점 없는 무더위속에서 초원은 줄고있다가 놀라 깨어난듯하였다.

초원을 얼마쯤 가로지나가자 미루등의 변두리에 다달았다. 급한 경사를 이룬 계곡이 눈아래에 굽어 보이고 그 밑으로 수면을 해별에 반짝이면서 레성강물이 유유히 흐르고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강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였다.

《레성강이요. 나는 이 강을 볼 때마다 이강이 높고먹는 강이라는 생각이 들군하오. 그런데 이 큰 강이 미루등의 변두리를 지나가고있소. 이 강은 응당 미루등판으로 올라와야 하오.》

수원들,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

《동무들이 미루등의 자연지리적특성을 운운하면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나는 미루등개간이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견해에 반대요. 우선 토질이 나쁘다고 하는데 토지가 산성화되어 그렇소. 소나무가 잘 자란다는것은 이고장의 땅이 좋다는것을 의미하오. 때문에 나는 미루등의 발전전망이 크다고 보오. 다음으로 돈이 많이 든다는데 대해서 말한다면 먼저 미루등이 중부조선의 중심지대에 전개된,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등판으로서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찾은 조국강토의 한부분이라는것을 생각해야 할것이요. 더우기 여기에는 우리 인민이 살고있소. 미루등인민들은 거칠은 땅인 미루등을 인간의 의지에 복종시켜 복된 땅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꿈을 세기적숙원으로 품어왔소. 지난날에 그것은 이루어질수 없었소. 그러나 우리 로동당시대에 와서는 하느님도 어쩔수 없었다는 물고생으로부터 그들을 해방하고 그들의 세기적숙원을 풀어주어야 하오. 공산주의자들은 낡은 사회제도만을 개조할것이 아니라 자연까지도 개조하여 인민들이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하오.》

이 무연한 초원을 전부 개간하고 저수지를 막아 골짜기의 물을 끌어올리는 한편 여기 이 레성강물을 3단, 4단 양수를 해서라도 미루등에 끌어올려 관개수를 주면 잡초무성하고 쓸모없다고 내버렸던 땅이 훌륭히 개간될것이요. 사람들에게 물고생을 시키고 고달픔을 주던 미루등이 우리 나라의 중요한 알곡생산기지의 하나로, 고기생산기지로, 살기 좋고 문명한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될것이요. 한개 군과 맞먹는 새땅이 생겨나게 되오. 그러고보면 미루등개간은 우리에게 거대한 <수익성>을 가져다주



게 될것ियो. 동무들이 문제를 이렇게 보았으면 미루등개간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을것ियो.

결국 동무들이 생각했던것보다 투자는 더 들겠지만 미루등개간을 속히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소!》

다시 초원을 가로질러 행길에 나오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저수지자리를 잡아주시기 위하여 신평동방향으로 승용차를 달리시였다.

신평동에 이르신 수령님께서서는 지형을 더 잘 살펴보시기 위하여 앞에 있는 봉우리로 오르자고 하시였다.

봉우리로 오르는 길은 따로 없고 키가 넘는 잡관목이 엉켜있을뿐이였다.

《수령님, 길이 험합니다.》

옥실이가 근심에 싸여 말씀드렸다.

《괜찮소. 올라갑시다.》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수 나무가지들을 헤치시며 산으로 오르기 시작하시였다. 개암, 진달래, 가독, 잔솔 따위들이 엉킨 숲속은 송진내와 가랑잎내가 섞인 화끈 단 대기가 질게 떠돌고 땀흐르는 얼굴에 나무잎들이 척척 달라붙었다.

옥실은 못내 죄송스러워 앞에 나서서 길을 트워드리려고 하다가 돌맹이를 밟아 하마트면 넘어질뻔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휘청거리는 그를 잡아주시며 유쾌하게 웃으시였다.

《산에 오르는데야 그래도 내가 낫지.》

옥실은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봉우리에 오르시여 두툼의 물이 합수하는 넓은 골짜기를 굽어보시였다. 골짜기는 서늘하고 음침한 그늘속에 잠겨있는데 빨간 흙이 드러난 절벽우에 세월의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은 구부러든 늙은 소나무들이 서있었다.

《바로 여기요!》 그이께서는 골짜기를 힘있게 가

리키시였다.

《할바엔 크게 해야 하오. 여기에언제를 건너막으면 큰 저수지가 되겠소.》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두손을 허리에 올리시고 미루대지를 굽어보시였다.

《미루등은 참으로 넓고 경치좋은 평원이요. 욕심이 나는 땅이요.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살아왔고 지켜온 강토요! 우리 조국강토에 이런 땅을 그대로 남겨두어서는 안되오. 이 등판을 전부 개간해서 여기에 미루벌-황금벌이 펼쳐지게 해야 하오. 조밥이 맛있다고 한 선희에게 이밥을 줘야하오.

우리가 지금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것은 사실이요. 그러나 황금으로언제를 쌓더라도 미루등에 물을 줘야 하오!》

수령님께서서는 열정적으로 손을 흔드시며 말씀하시였다.

이것은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미루등개간을 착수하라는 말씀이시였다. 뜨거운 숨결이 차오르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은 환히 열리였다.

《알았습니다. 수령님!》

농업성일군의 눈굽에 물기가 번쩍이였다. 전문가들로서는 생각할수도 없는 단호한 결심, 어려운 시기일수록 멀리 래일을 내다보시며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시는 크나큰 사랑의 품! 오로지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만이 미루등에 물을 주실수 있으시였던것이다.

미루등의 초목들도 기쁨에 넘쳐 춤추며 설레이고 새들도 감격에 겨워 노래하는가!

옥실은 수령님을 우러르며

《수령님 고맙습니다!》 하고 자신과 선희와 희생된 남편, 그리고 모든 조합원들의 마음을 합쳐 그이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이어 미루등개간의 구체적인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그이께서 말씀하시는

데 따라 옥실의 눈앞에는 래일의 미루벌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대기는 세기적인 잠에서 깨어나 생명수가 소리치며 흘러가고 가없이 넓은 벌에 황금 나락이 설레이리라. 날아갈듯이 추너를 쳐든 기와 집에서 이밥에 고기국 먹고 집집마다 수도물이 팔팔 나오고 전기불 밝은 마을들에 웃음소리 넘치리라. 과일향기 떠도는 새로 닦아진 길로 새웃 입은 아이들이 노래하며 학교로 걸어갈것이다. 기차를 타고 (조국의 동서를 연결하는 철길이 여기를 지나 가게 된다.) 찾아오는 손님들은 이 놀라운 전변의 유래를 전설처럼 듣게 되리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해가 서쪽 지평선우에 걸리고 하늘에 뜬 구름이 분홍빛으로 물들무렵 미루등을 떠나시였다.

승용차들은 노을빛어린 차장들을 번쩍이며 읍으로 향한 신작로로 달리였다.

머느리끌어귀에서 승용차들은 잠시 멈추어서지 않을수 없었다. 길옆에 조합원들이 전부 나와 서있었다. 그들은 만세를 부르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배웅하여드렸다. 수령님께서서는 기쁨에 눈물짓는 미루등사람들을 보시며 노을빛어린 얼굴에 밝은 웃음을 지으시고 손을 흔드시여 답례하시였다.

들끓는 환호속에서 승용차들은 저 멀리 지평선쪽

으로 멀어져갔다. 분홍빛 노을은 더욱 짙게 채색되어 불길처럼 붉게 타올랐다. 사람들의 얼굴도 초원도 소나무도 머리로 날아다니는 새무리도 붉게 물들었다.

《아저씨!》

옥실은 춘택에게로 다가가 그의 손을 힘껏 잡아 흔들었다.

춘택은 눈물을 툭툭 떨구었다.

《날 옥해주게. 이 못난놈을...》

《아저씨, 이제부터 더 힘을 내서 일하자요.》

옥실은 조합원들을 향해 웨쳤다.

《우리에게 땅을 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번에는 물을 주시였어요. 미루벌을 주시였어요!》

그것은 저으기 떨리고 눈물에 젖은 목소리였다.

...해방후 어느해 봄날 밭을 갈며 옥실이가 남편과 함께 황홀하게 그려보던 그 희망은 실현되였다. 잡초무성하여 쓸쓸하던 초원은 간데없고 지평선 저 멀리 아득하게 펼쳐진 논벌에서 벼바다 물결친다. 기쁨과 행복에 겨워 끝없이 설레인다. 수로에 가득 가득 차넘치게 생명수가 출렁이며 흘러간다. 미루벌개간의 전설을 이야기하며 흐르고 또 흐른다.

그렇다. 이것은 로동당시대에 태어난 새전설인것이다.

# 진달래

한덕수

바다너머 저 멀리 그리운 조국에서  
어머니들 오시여 심어주신 진달래  
4월이라 봄바람이 반갑다고 웃으면서  
어머니의 마음인양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썩고 병든 이역땅에 자라나는 아들딸도  
꽃과 같이 피어나라 심어주신 진달래  
조국의 산과 들을 물들이며 붉게 피는  
꽃들에 못지않게 송이송이 피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자 조국의 마음이라  
붉게 피여 보답하라 심어주신 진달래  
수령님께 충성다할 이역의 아들딸은  
꽃보다도 더욱 곱게 붉게붉게 피겠습니다

# 만경대초가집앞에서

변홍영

4월의 만경대

정갈한 초가집 트랙으로  
나는 들어선다  
세상에 나서  
올해에 다섯번째 봄을 맞는  
아들애의 손을 잡고

이 봄날이 좋아서  
새처럼 재잘거리며  
보고 듣는 모든것에 대하여  
그리도 묻기를 즐기더니  
어린것도 말이 없구나  
이 숨엄한 집앞에서

내 무엇이라 말해줄것이나  
울밑에 핀 한떨기 꽃도  
지붕우에 푸르른 봄하늘도  
함뻑 해빛을 안고 웃는데,  
귀여운 아들애와 함께  
나는 꽃길을 걸어  
이 트랙에 들어섰는데

아, 우리 수령님  
올바자문을 여시고  
머나먼 혁명의 길을 떠나신  
정든 고향집 트랙엔  
20년대의 풍상고초가  
그대로 서려있구나

내 무엇이라 말해줄것이나  
태어나 해빛밝은 창가에서  
행복만을 누리는 철없는것에게  
저 오지독에 서렸던  
가난이란 무엇인지 알길 없는 어린 가슴에

내 또한 수령님 품속에서  
돌밭을 갈던  
농쟁기들을 다루어본 일 없고  
저 초가지붕우에 내리고 쌓인  
눈서리를 모른채 아버지로 되지 않았더나

그토록 가난한 살림에도  
어리신 수령님의 가슴속에  
나라찾을 큰뜻만을 키워주신분들  
사나운 눈서리를 헤치시며  
조선의 봄날을 가꾸신분들

한평생을  
험난한 길우에 보내시며  
인민의 가슴에  
락원의 봄이 만발한 조국을  
수령님께서 찾아주셨건만  
이 땅에 남기신 고향집은  
너무도 소박하구나,

말로는 다할길 없는  
뜨거운 고마움과  
충성의 맑은 이슬이  
내 가슴속에 소리없이 맺혀 흐르나니

이 트랙에  
생의 첫자욱을 새겨가는  
나의 아들애도  
이제 철이 들면 알게 되리라

걸음마다  
행복이 맞아주는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세상에 나서  
첫 눈동자에 담은 우리의 하늘이  
한생에 받아안은 조국의 해빛이  
어찌하여 그리도 밝고 은혜로운가를

아, 이 땅의 모든것은 변해도  
20년대의 풍상고초를 떠이고  
변함없이 서있는 만경대고향집이여  
이 트랙에 넘치는 태양의 빛발은  
눈서리의 차거움을 다 막아준 사랑으로  
이 가슴에 영원히 파사롭구나

## 누리에 빛나는 언덕 외 2편

유성옥

락원의 창가  
은은하던 행복의 불빛들이  
잠든 밤에도  
낮에도 또 이른새벽에도  
밝은 빛이 넘치여 눈부신곳-

마치 밤이 지새고  
해돋이가 시작되는 동녘하늘인듯  
황홀하고 신선한  
새아침의 빛나는 그 모습으로  
언제나 안겨오는  
만수대!  
만수대!

아직도 이 세상엔  
한낮에도 어둠에 짓눌려  
꽃시절을 모르는  
음달이 있어  
해빛의 그리움에 마르고 탄 가슴들이  
대륙들의 숨막히는 장글속에 묻혀있어

낮과 밤, 사시절 그 언제나  
희망과 소생의 밝은 빛을 뿌리시는  
아, 인류의 태양  
우리 수령님의 동상  
여기에 높이 솟아있어라

수천수만리  
혁명의 첩첩 준령들을 넘으시며

이 나라의 어둠을 가셔주시고  
이 땅우에 락원을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

그이를 모시여  
조선의 만수대는  
이 세상 어디서나  
언제나 보여오고  
사람들은 미지의 어두운 오솔길도  
밝게 거침없이 걸어가니

밤을 모르고  
넘쳐나는  
만수대의 밝은 빛이 누리에 비끼여  
이 땅우엔  
향기론 꽃과 오곡백과 설레이고  
눈부신 주체의 그 빛발아래  
세계는 청춘을 맞아 억세게 일어서라

오, 조국의 이 강산에  
지구우에  
밝아오는 새날도 예서부터 시작되고  
공산주의 아침노을도 예서부터 비껴오는가!

해쫄은 새아침의 그 모습으로  
언제나 누리에 빛나는  
만수대!  
만수대!  
태양의 언덕이여!

# 나는 지금 만수대로 오른다

한층계  
두층계  
마치도 이 나라 력사의 장엄한 년륜인듯  
층층이 솟은  
대리석층계를 밟으며  
나는 지금 만수대언덕으로 오른다

고개 들어 우러르면  
저기  
아득한 높이에  
정중히 모셔진 수령님의 동상!

아! 눈부시여라  
무적의 천만대오를 거느리시고  
거룩한 손길 드시여  
시대의 큰길  
인류의 찬란한 미래를 가리키시는  
근엄하신 영상...

나는 오른다  
푸른 하늘이 시작되고  
참된 삶이 영원한 꽃으로 만발하는곳-  
우러를수록  
장엄하고 거창함과 신비로움에  
절로 마음 숭엄해지는 언덕이여

거기엔 한평생  
인민을 위해

눈비와 찬이슬을 맞으시며 걸으신  
수령님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 들리고  
잠시 침묵한 우주의 고요속에  
태동하는 새세계를 안은  
백두천지의 맑은 정기가 넘친다  
거기에선 위대한 사상의 붉은 기폭밑에  
지구를 울리며 나아가는  
주체의 발구름소리 울린다

오, 태양과 대륙을 넘어  
지구의 어디서나 우러르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물결이 끝없이 잇닿은  
광휘로운 언덕이여  
인류의 참된 의지와 정신을 불태우며  
빛나는 만수대여!

나는 오른다  
나는 오른다  
헤아릴수 없이 크나큰 열과 빛으로  
세계를 안아키우시는 주체의 태양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우러러 오른다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위업으로 찬란한 력사의 령봉  
그이만을 따르며 옹위하는  
충성의 별들이 빛나는곳-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위대한 사상의 절정에도 오른다

## 높이 드신 위대한 손길

이 언덕우에 오를 때면  
나는 송엄히 우리른다  
때로는 길을 걷다가도  
때로는  
무궤도전차의 차창가에서도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른다  
만수대언덕우에 거연히 서시여  
창공에 높이 드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손길을!...

그 손길아래  
그 손길아래  
이 나라 행복의 창문들은 열리고  
락원의 드넓은 대지를 누비며  
무르익은 삶의 꽃물결이 흐른다

오, 얼마나 험악한 세월의  
길없는 준령들을 헤가르시며  
얼마나 높고도 눈부신 위업의 대기념비들을  
이 땅우에 일떠세우신 저 손길이신가

백두의 푸른 창공높이  
거연히 드시여  
이 땅에 빛을 주시고  
길을 내시며  
이 나라 모든 생의 흐름을  
공산주의-하나의 목표로 이끌어가시는  
거룩하신 손길

이는 삼천리 강산을 뒤덮었던  
망국의 비운을 불사르시고  
인민의 창공에 해와 달을 띄우시여  
영원한 광명과  
참된 삶의 길을 밝히시는 해발!  
이는 한세대에  
미일 두 강도의 정수리를 내리치시고  
20세기 인류의 항로를 가리키시며

공산주의지름길을 열어가시는  
찬란한 주체의 기치!

1920년대  
화전의 언덕우에서 높이 드시여  
가난과 고역의 설움에 울던 우리 인민을  
행복과 문명의 상상봉우에 올려세우시고  
하늘의 높이에도 비길수 없는  
불멸의 혁명업적을 쌓으셨건만

아아, 오늘도  
계속혁명의 장엄한 퇴성을  
저 하늘에 올려주시는 위대한 손길이시여  
혁명은 장구하고 간고한것임을  
이 가슴에 새겨주시는 거룩한 손길이시여  
그럴수록 더 높이  
더 크게  
우러러만 보이는 태양의 손길이시여

그 손길아래  
그 손길아래  
이 나라 무적의 천만대오가 렬을 저있고  
주체조선이 솟아있다  
그 손길에 이끌려  
지구는 돌고  
지구우에 자주주의 새시대가  
빛나는 새세기가 흐르나니

오,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  
찬란한 태양의 빛발을 따라  
조선은 나아가노라  
력사의 주인된  
가장 큰 심장, 가장 큰 걸음으로  
혁명의 수억만 대오를 이끌려  
공산주의 첫대문으로  
조선은 남먼저 들어서노라

## 4 월의 꽃다발

-김일성 주석께 삼가 드림-

말가슈

이본 라자나마 씨

1912년 4월 15일

조선의 해방의 구성

**김일성** 원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조선이 지닌 위대한 날이여!

민족의 영웅을 낳은 고향땅

그 모습 아름다운 만경대

원수님께서 탄생하신 집

처마낮은 수수한 초가집은

넓고넓은 하늘의 축복을 받았거니

백두산에 솟아오른 태양

조선사람들에게 환희의 빛발 뿌리였어라

해방의 날을 안아오시여

인민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식민주의명예에서 벗어나

조선인민의 굳은 결심을 보여주셨어라

강도 일제의 죄사를 끊어버리신 영웅

조선인민과 세계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탄생기념일 4월 15일

태양도 이날은 만경대우에 더 찬란히 빛을

뿌리어라

위대하신 **김일성** 원수님의 로선따라

용감하게 나아가는 조선

일제와 미제를 때려부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조선을 일떠세우시고

선두에 서시여 이끌어가시며

제국주의자들의 반항 짓부시고

공산주의미래에로 나아가시네

평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곳

간난신고를 물리치시며 조선의 해방을 가져오신

위대한 수령님

조국의 통일위해 싸워가시네

아 경애하는 **김일성** 주석이지어

인민들은 다함없는 감사드리며

수령님께서 밝히신 항로따라 나아가네

수령님께서서는 인민 위해 온갖 로고 다하시고

인민 위해 심려하시어

인민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인민과 한마음 한뜻이 되시네

**김일성** 주석께서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벗

그들을 위함이라면 피곤도 휴식도 모르시며

잠도 잊으시고 무르익히신 구상

다음날에는 오늘의 현실로 펼쳐주시네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한몸 바치시어 싸우신것처럼

인민들의 행복을 위함이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가시는 수령님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도시, 평양이여

오늘의 그 비결은 수령님의 비상한 예지

그것은 그이께서 창시하신 주체여라

애국주의와 국제주의를 결합시키시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청산하신 수령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 만세!



# 만대에 길이 빛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

찬란한 주체의 태양아래 끝없이 룡성번영하는 은혜로운 이 강산에 경사스러운 4월의 봄명절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기념일을 맞는 뜻깊은 명절에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총서 《불멸의 력사》에 모셔진 어버이수령님의 존귀하신 형상을 우러러 되새겨본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존귀하신 형상을 우리 문학에 높이 우러러모시는것은 더없는 행복이고 영광이며 가장 영예롭고 숭고한 의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나날 지하투쟁과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 많은 동지들이 곤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도와주고 보호하여주었습니다. …항일유격대원들가운데는 적들로부터 사령부의 안전을 보위하기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동지들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동지들의 사랑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 충성다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언제나 우러러 흠모하여 몸가차이 뵈고싶어하는 우리 인민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을 화폭에 높이 모시여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길이 전할것을 절절히 념원하고있다.

우리 당은 우리 인민의 이 한결같은 소망과 우리 문학이 시대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반영하여 일찌기 4.15문학창작단을 못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전면적으로 형상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밝혀주었다.

이리하여 당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영광에 찬 혁명력사를 혁명소설들의 커다란 묶음으로 이루어진 총서체제로 반영한 《불멸의 력사》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우리 문학 발전력사에서 거대하고도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는 총서 《불멸의 력사》의 탄생, 이것은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나서는 모든 미학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준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방침의 자랑찬 승리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는 참으로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서 기본과업으로 되는 로동계급의 수령형상

창조에서 나서는 사상에술적문제들을 높은 수준에서 빛나게 해결한 모범으로 된다.

## 1

총서 《불멸의 력사》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빛나는 혁명업적을 실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매우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에 수록된 장편소설들이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끝없이 격동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실재하였던 그 위대하고도 거창한 력사적사변들과 의의깊은 생활들을 그대로 진실하게 형상하였기때문이다.

실로 인류의 자랑이며 영광인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은 총서작품들의 높은 사상에술적성과를 확고하게 담보한 근본요인으로 끝없는 원천으로 된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인민들에게 잘 알려졌을뿐아니라 어버이수령님께서 혈전만리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시면서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해나가시는 그 력사적로정이 바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과정이며 그 과정에 있는 력사적사건들과 생활이야말로 시대의 본질과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전형적으로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은 당의 주체적인 문예방침을 구현하여 력사적사실과 실재한 원형들, 특히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잊지 못해하시며 감회깊이 회상하시는 가장 의의깊은 력사적시기의 사건들과 사실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하고있으며,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은 위대한 수령님의 초기혁명활동시기의 빛나는 혁명사적을 반영하면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데 대하여 의의깊게 이야기하고있으며 《1932년》은 또한 조선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인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과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개시에 대하여 형상하고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에서 가장 간고하고도 영광에 찬 한 시기였던 남호두회의직후인 1936년 3월초부터 1936년 5월초 동강회의에 이르는 력사적시기의 실재한 사건

들과 사실들, 그리고 실재한 원형에 기초한 인물들이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되어있다.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도 실재한 역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조직령도하신 고난의 행군이 가지는 불멸의 의의와 그 승리의 요인을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밝히고있다.

실로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은 그 모두가 이렇듯 자욱마다 영광으로 빛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적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속에 재현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사건과 사실들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이처럼 세상에 널리 알려진 역사적사실들이 《불멸의 력사》에서 다시한번 더욱 비상한 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격동시키는것은 역사적사실에 철저히 기초하여 그것을 예술적진실로 전환시킬데 대한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빛나게 구현하였기때문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에 묶여진 장편소설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반영함에 있어서 해당한 역사적시기의 혁명활동토정을 포괄하면서도 매 역사적사건들을 그대로 라렬하는 년대기적인 기록에 떨어지지 말고 작품의 종자를 똑똑히 쥐고 해당한 시기의 생활을 어디까지나 예술적으로 반영할데 대한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단한정의 기관총과 15명의 대원들을 거느리시고 몸소 진행하신 백두산기슭예로의 진군은 주체의 기치, 조선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심으로써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고 일대 새로운 앙양을 이룩한 영광의 로정이 있다는 의의깊은 사상적알맹이를 심어놓았다.

소설은 또한 이 의의깊은 종자를 아름다운 형상으로 꽃피울수 있도록 역사적사실과 사건들을 문학적인 이야기속에 예술적으로 잘 구성하고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화폭의 중심에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백두산기슭예로의 진군길에 있는 거대한 역사적사건들과 감명깊은 사실들을 기본줄거리로 하면서 사령부를 찾아 모여드는 각이한 인물들의 운명선-리경준의 일행선, 한남실의 선, 그리고 《대통령감》 권학식의 선과 박문필의 선 등 흠모의 선들을 설정하고 감명깊은 문학적인 이야기로 엮어나가고있다.

소설은 또한 작품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자기의 뚜렷한 형상적과제를 가지고 주체사상을 밝히는데 복종되도록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맞물리고 있다.

인물들의 운명발전, 인간관계의 설정에서 특히

특징적인것은 그 모든것이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여 뿔뿔히 뗄수 없는 혈육의 정, 혁명적의리에 기초한 공산주의적인정선으로 뜨겁게 맺어져있다는것이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과 혁명전사, 그리고 혈육보다 더 친근하고 귀중한 혁명동지들사이에 맺어지고 굳어진 위대한 사랑과 불같은 충성, 아름다운 혁명적동지애, 이 모든것이 그대로 예술의 극치를 이루면서 펼쳐지는 극적화폭들은 작품들의 예술적높이를 규정한 근본요인으로 되었다.

장편소설들은 또한 생활속에 투쟁이 있고 투쟁속에 생활이 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깊이있게 구현함으로써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생활을 참으로 폭넓고 다양하게 펼쳐보이고있으며 그들의 높은 정신도덕적품모를 인간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서 보는바와 같이 강세호련대장과 리복철중대장과의 관계에서 전형화된 혁명적동지애, 장기명과 한남실사이에 맺어진 아름다운 혁명적사랑, 리경준일가에게서 보는 혁명가의 가정생활 등 항일유격대원들의 풍부하고 다양한 생활들을 생동하게 펼쳐보이면서 이 모든 생활에 빛과 열을 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형상을 높이 모시고있다.

이 모든 예술적진실성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에 아로새겨진 역사적사건들과 사실들은 알알이 빛나는 구슬들이 하나로 꿰여진 보석과도 같이 생활의 논리를 타고 하나의 이야기줄거리에 조화롭게 꿰여져 생동하고 진실한 예술적화폭을 이루고있는것이다.

## 2

총서 《불멸의 력사》는 또한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을 끝없이 숭고한 인간적품모속에서 매우 빛나게 형상하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은 로동계급의 수령형상창조에서 정치성과 인간성을 옹계 결합할데 대한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은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기폭의 중심에 정중히 모시고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과 전략전술, 현명한 정도와 고매한 품모를 전면적으로 폭넓게 그리며 형상전반을 통하여 수령님의 위대성을 일관하게 밝혀내는데 복종되도록 작품의 대를 바로세울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은 무엇보다도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통찰력, 강철의 의지와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을 지니시고 몸소 진두에서 조선혁명의 난국을 한몸으로 헤쳐가시며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해나가는 로동계급의 걸출한 수령으로서의 수령님의 위대성을 최상의 높이에서 빛나게 형상하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는 모든 작품들에서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항일혁명투쟁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조선혁명의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신 탁월한 사상가로서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들의 의깊게 형상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은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에서도 빛나게 형상되었다.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길림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전개하신 초기혁명활동시기의 혁명사적을 훌륭히 반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 시기 일제의 온갖 모략과 탄압의 마수가 뒤따르며 종파분자들과 기회주의자들, 민족주의운동의 우두머리들이 제가끔 자기를 지도자로 자처하면서 서로 령도권을 다투고있던 길림의 복잡한 정치무대에서 독자적으로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시었다.

장편소설은 이렇듯 복잡하고 간고한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닥치시게 된 두가지 문제 즉 하나는 조선민족해방운동을 한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대중을 떠나서 상층부 몇몇 사람끼리 모여앉아 말공부만 하고 실지 혁명운동에 대중을 불리일으키지 않던 사실과 다른 하나는 조선공산주의운동안에 심하게 나타났던 파벌싸움의 해독성을 비판적으로 예리하게 간파하신데 대하여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두가지 현상을 보시고 혁명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자극을 강하게 받으시고 자신께서는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며 따라서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투쟁하여야 하겠다는 것과 자기문제는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자기 자신이 투쟁을 더 잘하면 남에게 승인을 받고 안받는것이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시었다.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발전에 커다란 충격을 준 이 두가지 측면을 생활적으로 잘 천명함으로써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조선혁명의 앞길을 찬란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이시야 말로 얼마나 위대한 수령님이신가를 의의깊게 보여주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는 위대한 사상리론가로서

의 경애하는 수령님의 품모와 함께 특히는 몸소 고난의 진두에 서시여 혁명의 난국을 한몸으로 타개하시며 간고하고도 시련 많은 조선혁명을 확고한 승리로 이끌어나가는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가장 빛나게 형상하였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이 보여준바와 같이 력사적인 남호두회의방침을 관철하시기 위하여 자신께서는 한몸으로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시면서도 일찍부터 친히 키우시고 이끌어오신 친위전사들을 모두 조선인민혁명군의 각 부대에 지휘성원으로 멀리 떠나보내시며 씨하의 진필과 눈보라를 헤쳐나가는 그 어려운 행군길과 원수들과의 치열한 격전속에서 주력부대의 핵심들을 한사람한사람 키워나가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리경준을 비롯한 우수한 혁명전사들을 각 지방에 정치공작원으로 파견하시여 전민족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복회창건준비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시며 침상 아닌 침상에서 풍찬로숙하시며 끼니도 건느셔야 하시는 그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밤을 지새워가시며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을 한자한자 새기시고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자원단원의 운명》**의 대본을 손수 집필하시는것이다.

소설들은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시련과 고생과 가슴아픔을 한가슴으로 이겨내시며 한평생을 오로지 조선혁명위업에 고스란히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끝없는 로고와 불면불휴의 헌신성, 현명하고도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해서만 조국의 해방은 성취될수 있었다는 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은 또한 항일혁명의 전설적영웅이시며 군사전략가이신 수령님의 신출귀몰한 유격전술과 천변만화의 전법에 대한 감명깊은 묘사에서 잘 형상되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모시는데서 이룩한 가장 특출한 사상예술적성과는 정치성과 인간성을 깊이 결합시킴으로써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은 또한 가장 위대한 인간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한데 있다.

참으로 총서 《불멸의 력사》는 인간에 대한 가장 숭고한 사랑과 믿음, 혁명적의리를 그 한몸에 체현하시며 간고하고도 곡절많은 혁명의 길에서 겪어야 하는 천만가지의 고초들을 인간이 지닐수 있는 최상의 의리와 사랑과 감정으로 이겨내는 위대하고 풍부한 정신력과 그지없이 소박하고 겸허하고 소탈하신 품모를 감동깊이 형상하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형상에서 우리는 수령님께서 몸소 창시하

신 주체의 인생관의 위대성을 뚜렷이 보게된다.

주체의 인생관은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보며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철학에 기초한 혁명적인생관이다.

그리하여 혁명적인생관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할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주체의 인생관은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혁명투쟁에 한몸 바쳐싸우는것을 더없는 영예로 간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들만이 지닐수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간적품모는 무엇보다도 주체의 철학적신념에 기초한 혁명적사랑관에서 가장 빛나게 형상되었다.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것은 주체의 인생관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그것은 혁명투쟁이란 곧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며 따라서 혁명의 한길에 한몸 바쳐 나선 사람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울수 없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랑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있고 부자간의 사랑, 모자간의 사랑도 있으며 형제간의 사랑, 친구들사이의 사랑, 동지들사이의 사랑도 있습니다. 이 여러가지 사랑가운데서 가장 값있고 귀중한 사랑이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입니다. 부자간의 사랑이나 모자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이 동지적인 사랑과 결합될 때 그것은 더깊은 사랑으로 될것입니다.》**

인간이 지니고있는 모든 사랑가운데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약속하고 혁명의 한길에 함께 나선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부모형제와 떨어져서는 살수 있어도 혁명동지들과 떨어져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다는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주체의 혁명적사랑관이다.

이러한 주체의 혁명적사랑관이 가장 참다운 사랑관으로 되는것은 바로 혁명동지들사이의 사랑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혁명대오에서 끝까지 싸워나갈수 있도록 고무함으로써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이게 하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체현하신 이 위대한 사랑의 철학을 비할바없이 심오하게 밝히고 혁명전사들과 우리 인민모두에게 배풀어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믿음, 철석같은 혁명적의리를 감명깊게 형상한 바로 여기에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을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대작으로 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는것이다.

숭고한 인간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는 우선 그이께서 남만원정에 앞서 잠시 들리셨던 유서깊은 소사하집에서의 강반석어머님과 마지막 상봉속에, 량강에서 찾아오신 철주동지와 객주집에서 언두부 한모를 놓고 나누신 눈물겨운 장면속에, 그리고 그랑그랑, 형님을 따라오면서 나아린 영주동생이 주머니속에 넣어드린 두알의 군감자속에 참으로 가슴뜨겁게 그려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머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조국해방의 그날을 위하여 좁쌀 한말을 올리신 채 병환에 계시는 어머님결을 떠나 원정의 길에 오르시였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바로 그 귀중한 혁명적사랑을 위하여 사랑하는 동생들과의 그토록 가슴아픈 리별의 언덕을 넘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바로 부모님과 동생분들에게 못다하신 그 뜨거운 사랑을 그대로 한가슴에 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고 그것을 고스란히 혁명전사들과 동지들에게, 우리 인민모두에게 바치시였다.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들은 혁명전사들과 동지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 의리를 참으로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장편소설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체현하고계시는 인간철학, 그것은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는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한 뜨거운 인간애의 철학이며 계급적원칙에 기초한 끝없는 인간신뢰의 철학이며 혁명적의리의 철학이라느것을 심오하게 해명하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혈전만리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전로정은 자욱마다 감격의 눈물로 수놓아진 위대한 사랑의 로정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체현하고계시는 인간에 대한 끝없는 신뢰는 《백두산기슭》에로 나가시는 길에서 《민생단》 문서보따리를 태워버리던 그 불길속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인간에 대한 온갖 의혹과 불신을 깡그리 불태워버리며 활활 타오른 그 거세찬 불길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열렬한 주장으로, 천만장의 문서보다도 인간의 혁명적량심을 믿어야 한다는 인간신뢰의 최고의 상징으로 영원히 력사에 기록될것이다.

인간에 대한 이렇듯 확고부동한 신뢰는 또한 《고난의 행군》길에 실재했던 소금사건속에 다시한번 감명깊게 그려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체현하신 그 뜨거운 인간애와 혁명적의리는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서 혈벗고 굶주린 마안산아동단원들을 위하여 돌려주신 뜻깊은 혁명의 돈 20원에 대한 감명깊은 이야기와 열

병으로 고통받는 혁명동지들을 위하여 친부모처자간에도 격리시킨다는 그 귀틀집병원문을 서슴없이 들어서시는 화폭속에 아름답게 수놓아였다.

그것은 또한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에서 미더운 친위전사 최성택련대장을 어려운 싸움길에 떠나 보내시며 그 작별이 그리도 아쉬우시여 몸소 멀리까지 배웅해보내시고도 아직 못다주신 사랑이 남아 계신듯 전사를 다시 부르시여 자신께서 친히 쓰시던 권총까지 선물로 안겨주시는 숭엄한 형상에서 감동적으로 그려졌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전사들을 위하여 기울이신 이 모든 뜨거운 사랑속에는 부모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친우간의 사랑보다도 더 뜨겁고 더 귀중하고 더 값높고 숭고한 혁명적사랑과 의리가 깃들어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에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간적품모는 그이께서 체현하신 주체의 혁명적사랑관과 함께 또한 더없이 위대하면서도 그지없이 소박하시고 겸허하신 품모와 이렇듯 더없이 평범한 그속에 바로 최상의 비범성을 체현하고계시는데서 매우 친근하게 형상되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서 유격대를 찾아와 처음 위대한 수령님을 뵈게 된 《대통령감》 권학식은 너무도 소박하시고 겸손하시며 또 소탈하시기에 수령님이신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매우 친절하신 젊은분과 마주앉아있는줄로만 생각했을 뿐이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느 대원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장작도 패시고 정하게 기운 군복 솜바지를 입고계시었으며 언제나 인자하신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시고 조용히 말씀하시였기때문이다.

장군님을 만나뵈옵는 권학식의 머리속에는 지난날 서울과 상해와 연해주에서 만나보았던 공산주의 운동의 《거두》라고 자처하던 사람들의 표상이 떠올랐던것이다. 그자들은 최신류행복차림에 《맑스 머리》를 하고 개화장을 들고 다니였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영웅호걸》이나 《위인》들에 대한 표상과는 너무도 같지 않으신 평범한 모습이었었던것이다.

《비범성》대신에 이토록 철저한 평범성에 접하게 된 권학식은 바로 가장 인간적인이 철저한 평범성이야말로 그 어느 《영웅호걸》이나 《위인》에게도 없었던 절대적인 비범성으로 된다는것을 확신하게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소박성은 또한 혁명동지들과 전사들을 아무런 간격도 없이 친혈육의 정 그대로 대해주시는 한없이 친근한 모습에서 더욱 감명깊게 형상되었다.

간고하고도 시련많은 조선혁명을 일대양양에로 이끌어올리실 비장한 결심을 안으시고 백두산기슭에로의 뜻깊은 큰 걸음을 내어디신 그 력사의 시각에 큰일을 받들어주고 도와줄 사람이 그 어느때보다도 그리우시여 일찌기 오가자에서부터 키워오신 사랑하는 전사 강세호를 그리도 보고싶어하시는 장군님.

근거지해산후 뒤일을 맡기시여 왕청에 남겨두고 온 리경준부부와 그들의 자녀들까지 그토록 가슴깊이 생각하시며 그들이 엄동설한에 어린것들까지 데리고 사령부를 찾아 길을 떠났다는 소식을 받으시고는 그 간고한 행군길에서도 민가에 들리실적마다, 마을을 지나게 되실적마다 아이들을 이끌고오는 어떤 내외간을 보지 못했는가고 물으시며 통신원들까지 보내시여 그들의 소식을 탐문하도록 이르시군하시는 장군님,

위대한 수령님의 이 숭고한 형상은 그대로 멀리 떠난 자식들을 그리며 생각하는 부모의 심정 그대로이시었다.

이와 같이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들은 감동적이고 특징적인 생활과 세부를 통하여 그렇듯 위대하고 뜨거운 사랑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인간적품모를 친근하고 소박하게 그리고있는것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은 또한 감동적인 생활들로 충만된 심각한 극정황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내면세계를 감격과 눈물없이 읽을수 없는 숭엄한 화폭속에 그대로 진실하게 생활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그러한것은 우선 사랑하는 전사들에게 기울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에서 가슴뜨겁게 그려졌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더없이 알뜰하고 부지런하고 바느질에 솜씨있기로 유명했던 유격대의 재봉대원이며 언제나 충성다해 장군님의 군복을 지어드리던 그 대원, 지금은 부상당한 몸이 되어 의식이 희미해지고 생명조차 위급한 중태에 빠져있으면서도 마지막 힘을 가다듬어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르는 그 순간 그이의 군복을 눈길로 더듬다가 정하게 기운 그 자리에서 못박힌듯 차마 눈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전사 최선금, 그러한 혁명전사가 바로 《민생단》의 협의를 입고, 고통스러운 마지막시간을 보내고있다는것을 아셨을 때 아버지수령님의 심중에서 소용돌이치는 놀라우심과 피로우심을 참으로 극적으로 그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넓고 깊으신 내면세계는 특히 원쑤와의 혈전에서 그이결을 떠나간 사랑하는 전사들을 두고 그토록 슬프심을 금할길없어하시는 모습

에서 더욱 눈물겹게 그려지고있다.

죽음의 언덕을 넘고헤치며 장군님의 품을 찾아온 전사, 부르면 언제나 첫마디에 달려오군하던 사랑하는 전사 리경준, 이제라도 부르면 금시 나타날듯 싶으시여 마음속으로 전사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시는 장군님, 기동처럼 믿고 어려운 싸움길에 내보낸 최성택위령대장이 그렇게도 빨리 갈줄 아시었다라면 숨웃이라도 두릅히 해입혀보내고 조카애 만이라도 남겨두게 했을것이라고 아쉬움과 슬픔에 가슴조이시는 사령관동지, 길림시절부터의 오랜 대원인 오상권의 희생이 너무도 가슴아프시여 그가 희생된 미루나무를 바라보시고 쓸어보시며 한밤이다 가도록 그와의 영별을 위하여 그 산언덕에서 새벽을 맞이하시는 아버지수령님.

참으로 총서의 모든 작품들은 곡절많은 조선혁명을 한몸으로 헤쳐나가는 길에서 인간의 한 가슴으로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아름답고 엄혹하였던 그 모든것을 비범한 의지와 사상과 감정으로 이겨나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다함없는 그 정신세계를 깊이 있게 밝혀내고있다.

사랑하는 전사들을 위해서라면 그처럼 뜨겁고 살뜰하고 친근하신 아버지수령님이시였으나 혁명의 배신자들에게는 추호의 용서도 주시지 않는 엄하신 장군님이시였다.

혁명의 미래가 그토록 귀중하신 아버지수령님이시기에 그 귀중한 아이들에게 《민생단》의 루명을 씌워 처참한 지경을 만들어놓은 좌경기회주의자들의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두고 분기를 참으실수 없으시였고 그이의 안팎에서는 시퍼런 번개불같은 것이 연거퍼 번쩍이였다.

《당신도 인간이요?》, 《당신도 공산주의자요?》라고 하시며 정치주임을 향하여 준절히 말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눈길은 참으로 엄하시였고 그토록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신 그이께서는 정치주임에게 악수조차 하시지 않으시였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다함없는 계급적사랑으로 뜨거운 아버지수령님의 가슴에서는 그만큼 원쑤에 대한 강렬한 계급적증오가 불타고있었던것이다.

《동창생》의 허울을 쓰고 감히 사령부에 나타났던 혁명의 변절자, 일제의 주구 박종학은 준엄한 심판을 받았던것이다.

이렇듯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에서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과 숭고한 인간적품모를 가장 폭넓고 깊이 있게, 그리고 매우 친근하고 감명깊게 생활적으로 모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지니신 이 모든 위대성과 숭고한 인간적품모는 장편소설 《백두산

기슭》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광복회의 강령을 발표하시는 력사의 그 시각에 이 불멸의 업적에 새겨진 아버지수령님의 고귀한 로고와 심혈을 눈물겹게 돌이켜보면서 《대통령감》권학식이 다함없는 흥미의 정을 담아 마음속깊이 아뢰이는 그 이야기속에도 뜻깊게 아로새겨졌다.

### 3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존귀하신 형상을 매우 감명깊게 모시고있다.

우리 당은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이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의의깊게, 예술적으로 감명깊게 그리는것을 근본원칙의 하나로, 반드시 지켜야 할 근본요구로 밝히였다.

총서작품들은 우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적에 깃든 거대한 력사적사건들과 사실들을 감명깊은 문학적이야기로 전환시킴으로써 생활소재가 이미 널리 알려진것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적인 화폭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단 한정의 기관총과 15명의 대원을 거느리시고 그 멀고 험난한 백두산기슭에서의 진군길을 진두에서 헤쳐나가는 《백두산기슭》의 이야기줄거리와 해발 1,000미터를 넘는 룡강산맥의 대밀림, 100년래의 대강설, 하늘과 땅으로 덤벼드는 수십만 적과의 피어린 격전, 령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광란하는 눈보라, 게다가 기근,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준엄하고 엄혹한 시련으로 이어진 100여일의 《고난의 행군》길을 헤쳐나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은 참으로 얼마나 숭엄한것인가.

총서작품들은 이 격동적인 이야기줄거리를 일관하게 끌고나가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우려투 땀어지는 각이한 인물들의 운명선을 참으로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랑하시는 친위전사들인 강세호, 리복철, 리경준, 그리고 최성택, 한태혁, 오상권에게 베풀어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의리에 대한 이야기, 혁명의 시련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은 《민생단》 협의자들, 아동단원들, 그리고 소금사건때 주송섭로인에게 돌려주신 철석같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 갈길 몰라 헤매던 《대통령감》 권학식에게 혁명의 길을 밝혀주시고 부유한 가정의 울타리를 박차고 혁명의 길에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주신 박문필선...

참으로 아버지수령님의 형상을 우려투 땀어지고 발전해나가는 인물관계와 인물들의 운명선은 모두가 다 눈물과 감격 없이는 읽을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들이다. 가장 위대한 인간적사랑과 가장 깨끗

한 충성심이 하나로 합쳐지는 이 눈물겨운 화폭들이야말로 인간의 정신력이 그 얼마나 위대하고 강대하며 아름다운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것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이 그토록 감동적으로 그려진것은 또한 아버지 수령님의 형상에 바쳐진 감명깊은 생활을 안고 눈부신 빛을 뿌리기때문이다.

댕기, 술방울, 군복, 꽃다발, 담배, 그림자, 잣...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는 이렇듯 언제나 생동하게 기억되는 세부들이 많이 묘사되고있으며 그것들은 작품에서 비상한 감화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일편단심 장군님을 우러러 그리는 리경준일가의 충성심을 상징하는 댕기는 이야기줄거리에 일관하는 극적굴곡을 거쳐 작품의 마감부분에서 리경준의 전사에 대한 비통한 소식에 접하신 장군님께서 명숙이를 품에 안으셨을 때 천진란만한 명숙이의 댕기자랑과 장군님의 비통하신 심정의 교차속에서 독자들의 가슴을 뒤흔들어놓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생단》 혐의자들을 만나실 때 머리가 성기어진 윤칠너를 보시고 예전과 다름없이 어머니라 불러주시고는 더는 다른 말씀이 없으시였다. 바로 이러한 장군님을 뵈게 되였기에 윤칠너는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의 가슴아픈 사연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으며 지어는 자신이 지금 《민생단》 혐의자로 여기에 있다는것마저 잊어버리였으며 예전 유격대에서 사열을 하던 그때처럼 등에 진 배낭을 손으로 더듬으며 식기들이 배낭에 제대로 매달려있는가를 확인하는것이다. 그리고 칠너는 아무 말씀도 울리지 못한채 사령관동지의 모습이 멀어져갈때 그이의 젖은 옷자락이 점점 마르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또렷해지는 흙탕물자리를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떤 역경속에서도 한 전사에게 베풀어주시는 변함 없으신 믿음과 전사의 가슴에 차넘치는 충성심이 그 얼마나 티없이 맑고 깨끗한것이며 신념화되고 체질화된것인가를 생동하고 감명깊게 보여주는데는 백마디의 설명으로써도 이 하나의 주옥같은 세부를 대신할수 없는것이다.

소설은 묘사의 문학이며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생활세부를 골라잡고 그것을 깊이있게 그려내는데 형

상을 강렬하고 명백하게 창조하는 비결이 있으며 성격을 인상깊게 특징지으며 생활을 의의있게 묘사하는 열쇠가 있는것이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서 《민생단》 혐의자들의 문서보따리를 보시는 장면에서의 심려어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세계를 보여주는 장면의 묘사는 내면세계를 그린 세부묘사에서 고전적본보기로 된다.

아직 언제 한번 피워보신적 없으신 담배, 항상 대원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도록 권하시던 그 담배를 자신께서 찾으시고는 담배를 찾으시였다는것마저 잊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심려깊으신 심중의 묘사,

실로 이 세부묘사는 가장 위대한 인간의 가장 깊고 풍부한 내면세계를 심각하게,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리고 눈물겹도록 감명깊게 정서적으로 그린 모범으로 된다.

실로 이 빛나는 화폭은 천백마디의 말로써는 대할수 없는 내면세계의 깊이,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에서 일어나고있는 사색의 깊이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장편소설은 이와 같이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며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깊이 해명하고 세부묘사를 잘 할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작품의 높은 감동성과 사상예술적성과를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이 모든 사상예술적성과로 하여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들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우리 문학에 높이 우러러모시는데서 이룩한 특출한 성과로, 대기념비적결작으로 된다.

총서 《불멸의 력사》는 만대에 길이 빛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훌륭한 예술적화폭속에 아로새긴것으로 하여 우리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를 이어 아버지수령님께 충성 다하도록 하는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힘있는 무기로, 참다운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있으며 앞으로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할것이다.

**최연경**

#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만경대에 대한 칭송의 노래

오늘 조선인민과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최대의 기쁨과 감격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탄생하신 가장 경사스러운 날인 4월의 명절을 맞이하고 있다.

이 영광의 날을 맞는 세계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류의 가슴마다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며 세계혁명의 걸출한 령도자의 한분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끝없는 경모의 정이 끓어넘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 수 없는 세계적조류로 되고있습니다. 현시대는 지난날 큰 나라의 지배와 예속 밑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며 지난날 력사의 대상에서 버림받던 인민들이 력사의 주인,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 자주성의 시대를 펼쳐주시였으며 반세기를 넘는 간고하고 시련에 찬 불멸의 혁명활동으로 전 세계 피압박 근로대중의 혁명위업에 불후의 공적을 쌓아올리시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열렬히 신봉하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경모하여 따르는 열화같은 심정은 진보적인류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어있는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지향이며 념원이다.

그러기에 오늘 세상사람들은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로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 《세계혁명을 이끄시는 유일한 중심》 《세계혁명의 태양》으로 끝없이 흠모하고 높이 우러러 칭송하고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류의 심장과 심장마다에 세차게 융솟음치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존경과 흠모의 정은 다함없는 송가로 되어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되어 온 누리에 높이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대륙과 대양을 건너 메아리치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송가는 결코 몇몇 시인들에 의하여 노래되는 것이 아니며 수억만 인류의 숭고한 지향과 절절한

심정을 담아 누구나가 삼가 드리는 가장 뜨거운 심장의 노래, 영광의 노래인것이다.

알제리 플렐센종합대학의 한 교수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노래하는 장시의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 삼가 드리려는 이 송가는 그 내용에 있어서만 시적가치를 가진다. 왜냐 하면 이 송가는 시인에 의해 씌여진 작품이 아니며 그 주체자체가 즉 **김일성** 원수님의 혁명력사자체가 혁명적이고 시적인 사변들로 엮어진 불멸의 서사시인것이다.》

그렇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은 곧 빛나는 시이며 불멸의 업적으로 수놓아진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곧 불후의 영웅서사시이다.

그러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칭송하는 노래는 몇몇 시인의 재간에 의해서 씌여지는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소박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으로 부르는 다함없는 송가인것이다. 다시말하여 이 영광의 노래들은 주체사상의 화불로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경모하여 마지않는 세계의 모든 지역, 모든 인민들의 심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열렬한 찬가, 만민이 충심으로 우러러 부르는 다함없는 송가인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정은 만경대를 동경하는 심장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그것은 영광의 땅 만경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큰뜻을 키우시고 력사의 새시대의 려명을 안아오신 혁명의 요람이며 온 누리에 주체의 광휘로운 빛을 뿌리는 마음의 고향이며 진보적인류와 세계혁명적인민들이 끝없이 동경하고 우러르는 혁명의 성지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하기에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존함과 더불어 만경대를 시에 담아서 이처럼 열렬히 노래하는것이다.

오늘 진보적인류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마음속 깊이에는 주체의 혁명전통이 깊이 뿌리박힌 만경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곳으로 튼튼히 자리잡고있다.

혁명의 요람 만경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곳으로 노래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이에 대하여 외국의 한 벗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이하여 수령님께 삼가 드린 가사



《영원히 빛나라 만경대여》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1. 만경대는 혁명의 요람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곳  
주체의 붉은 태양 여기에서 높이 솟아  
싸우는 인민들에게 위대한 힘을 주네  
(후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하신 만경대는 혁명의 요람  
아! 주체사상의 책원지 만경대여  
전인류의 마음속에 높이 솟아있으라

2. 만경대는 우리의 심장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곳  
주체의 빛발 온 누리에 비쳐가니  
전세계의 미래는 밝아오고있네  
(후렴)

만경대가 전인류의 마음속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는곳으로 소중히 간직되어있는것은 그곳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주체의 빛발로 인류의 미래를 밝혀주시고 싸우는 인민들에게 불패의 힘을 안겨주시기때문이다.

만경대는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유서깊은 땅이며 주체의 기치밑에 세계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혁명의 책원지이다.

그러기에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은 만경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곳》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곳》이라고 긍지높이 읊고있으며 소중한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며 《우리의 심장》이라고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경사스러운 탄생일에 즈음하여 수령님께 바쳐진 수많은 송가들에는 주체의 찬란한 태양이 솟아오른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우러르는 끝없는 동경심, 그곳을 찾는 크나큰 기쁨과 감격에 대하여 노래한 시가들이 적지 않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여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력사의 땅 만경대를 찾고싶어하는것은 전인류의 심장깊이 간직된 절절한 념원이다.

이 간절한 소망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정과 결합된 세상사람들모두가 지닌 아름답고 숭고한 사상감정이다.

레바논의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성원 알리 후세인은 시 《만경대, 찬란한 태양이 솟은 땅이여!》에서 자기들이 만경대를 그리는 뚫어넘치는 동경심과 영광의 땅, 만경대로 물밀듯 찾아오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결한 심정을 긍지높이 읊고있다.

만경대, 만경대  
찬란한 태양이 솟은 땅이여

주체의 화불이 처음으로 타오른 땅  
혁명의 고향-혁명의 성지여

여기서  
전설적영웅이시며  
결출한 혁명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  
탄생하시였으라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안고  
우리는 가장 훌륭한 노래를 안고  
여러 나라와 민족의 마음 안고  
4월의 만경대를 찾아왔으라  
우리는 부르노라  
가장 위대한 **김일성** 주석만세,  
모든 자유투사들의 수령,  
혁명가들의 수령이신  
**김일성** 원수 만세!

.....

송가는 만경대를 찬란한 혁명의 태양이 솟아오르고 주체의 화불이 처음으로 타오른 력사의 땅으로, 전설적영웅이시며 결출한 혁명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탄생하신 영광의 땅으로 가장 숭고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노래하고있다. 그리고 4월의 명절을 축하하기 위하여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찾는 진보적인류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맑고 깨끗한 심정을 시적으로 훌륭히 일반화하고있다.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가장 훌륭한 노래》를 안고 만경대를 찾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뜨거운 경모의 정이야말로 오늘 세계의 모든 대륙과 모든 지역 인민들의 가슴속에 가장 소중히 간직되어있는 한결같은 심정인것이다.

하기에 뜨거운 축원의 마음을 안고 4월의 만경대를 찾는 사람들은 뚫어넘치는 경모의 정을 담아 만경대를 노래하고 《**김일성** 동지 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는것이다.

송가는 계속하여 《로동자들, 농민들, 학생들》 《젊은이도, 늙은이도, 어린이들도》 누구나 할것없이 나라와 민족, 직업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구상이 모든 사람들이 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안고 우러러 따르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흠모하여 여기 만경대로 끊임없이 찾아오고있으며 오늘도, 래일도 모든 세대들이 여기를 찾고 주체와 혁명적기치를 영원히 받들어가리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우리는 이 송가들을 통하여 오늘 세상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력사의 땅 만경대를 얼마나 열렬히 동경하며 마음속 깊이 소중히 간

직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와 그 빛발아래 밝아올 세계의 미래에 대한 확신에 넘쳐있는가를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는것이다.

만경대가 수억만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전인류의 마음속에 영광의 땅으로 높이 솟아있기에 만경대를 뜨겁게 동경하고 구가하는 송가들이 서로 다른 언어와 각이한 노래의 선율을 타고 대륙을 넘고 대양을 건너 끝없이 울려퍼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인류력사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혁명의 영재이시다. 따라서 주체사상에 대한 뽐어넘치는 찬양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칭송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은 모든 송기들에 넘쳐나는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전인류의 절절한 찬양의 목소리로서 위대한 수령님을 경모하여 삼가 드리는 송가의 기본내용을 이루고있다.

파키스탄 카라치 발루치스탄 **김일성**주의연구소조 일동의 집체작으로 된 시 《우리는 원수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불패의 위력에 대하여, 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숭고한 마음으로 우러러 레찬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는 과학적사상, 만능의 철학  
그것은  
정의와 부정의를 가려내는 시금석  
대중에게 혁명의 진로 밝혀주는 등대  
민족해방의 길 밝혀주는 지침!

송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이며 현시대의 유일하게 옳은 혁명의 지도사상으로서 새로운 력사적시대, 자주성의 시대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주며 혁명을 승리에로 이끄는 만능의 철학이라고 하면서 주체는 정의와 부정의를 가려내는 유일한 기준이며 혁명투쟁에서 근로인민대중이 나아갈 앞길, 민족해방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이며 지침이라고 소리높이 레찬하고있다.

이것은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광휘로운 앞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해불이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에서 백전백승하는 불패의 무기인 위대한 주체사상에 대한 깊이있는 시적일반화이다.

카메룬의 한벗은 송가 《인류의 태양》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인류의 위대하신 붉은 태양이라고 높이

우러르고 그로록 목마르게 기다리던 주체의 해발이 머나먼 아프리카대륙에도 비쳐와 위대한 주체사상이 그곳 인민들모두의 심장속에 튼튼히 자리잡고 그들의 심장을 뜨겁게 불태우며 영원히 꽃피난다고 자랑차게 노래하면서 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자주성의 시대가 열리고 주체의 기치따라 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혁명투쟁에 떨쳐나섰다고 격동적으로 구가하고있다. 송가의 이 시련들은 근로인민대중이 력사무대에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력사적시대, 자주성의 시대의 혁명의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세상사람들의 심장에 깊이 뿌리내린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뜨거운 마음으로 긍지높이 칭송하고있다.

오! 불멸의 사상  
영광스러운 주체사상의 찬란한 빛발아래  
평화와 자유, 정의를 사랑하는 인민들앞에 자  
주의 시대 열렸습니다

위대한 주체사상  
인류의 앞길 밝히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혁명의 폭풍우를 불러오니  
온 세상 인민들  
높이 솟은 위대하신 붉은 태양  
우러러 따릅니다

송가에서는 백전백승하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가 것처럼 념원하던 자주성의 새시대를 열어주시고 세계인민들을 투쟁으로 힘차게 부르시여 인류를 광명한 미래에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절대적인 신뢰의 사상감정을 감동적으로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는것이다.

계속하여 송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읊고있다.

오, 인류의 위대하신 붉은 태양이시여  
당신의 불멸의 주체사상이 있기에  
암흑속에 헤매이던 인민들  
해방의 길 찾았습니다

오, 높이 솟은 태양  
경애하는 수령님이시여  
인류는 당신을 우러러  
탁월한 령도자  
창조의 천재  
자애로운 인민의 아버지  
세계혁명의 앞길 밝히시는 스승이라 부르거니

당신의 성스러운 위업  
영생불멸합니다

우의 시련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류의 붉은 태양으로 솟아오르시여 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발로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시기에 암흑속에 헤매이던 세계의 수억만 인민들이 자유와 해방의 길을 찾을 수 있었다고 노래하면서 인류는 경애하는 수령님은 세계혁명을 승리로 이끄시는 탁월한 령도자, 혁명과 건설의 걸출한 영재, 인민의 운명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그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따사로운 은정을 베푸시는 인민의 아버지, 세계혁명의 앞길을 밝히시는 위대한 스승이라고 다함없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그러면서 송가는 다음과 같은 시련으로 시를 맺고있다.

오, 가장 높이 우러르며 따르는  
수령님이시여  
당신에게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하신 붉은 태양  
**김일성**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다함없는 우리의 마음  
4월의 명절을 즐겁게 맞는  
꽃피는 만경대로 달려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이 모시고 우러러 따르는 위대한 수령님께 영광을 드리며 만수무강을 축원하고자 4월의 명절을 즐겨맞는 꽃피는 만경대로 달려가는

한결같은 인류의 마음, 이것은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류와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지향이며 가장 뜨겁고 절절한 념원이며 열망인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뜨겁고 열렬한 경모의 정은 모든 대륙, 모든 나라 인민들이 한결같이 간직하고있는 가장 고결한 사상감정이다.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흠모의 정은 지구의 구석구석을 굽이쳐흐르는 거세찬 대하처럼 사람들의 가슴마다에서 용솟음치고있다.

송가는 이처럼 아름답고 숭고한 흠모의 정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이 시를 읊는 우리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신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영광과 민족적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게 되는것이다.

우리들은 외국의 벗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신뢰하고 경모하여 드린 다함없는 송가들을 읊어보면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공지와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끝없는 행복감을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다. 그리고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할 충성의 한마음을 철석같이 다지게 되며 충심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는것이 다.

**럼희래**

## 다듬은 말

본래말

과실 짬  
과즙수  
과히  
과언  
관건 자치  
관람권  
관목  
관수  
관찰구  
광계  
광분하다  
광조파

다듬은말

과일 단줄임  
과일 단물  
그리, 그다지, 너무...  
지나친 말  
쇠결이  
표, 구경표  
떨기 나무  
물대기  
불구멍  
넓은 철길  
미쳐날뛰다  
넓게 뿌리기

본래말

광천  
광천욕  
광활하다  
광야  
권양능력  
난방  
날염  
년륜  
노크  
농가  
농번기  
내면

다듬은말

약(물)샘  
약샘미역  
넓다, 넓고, 넓다...  
넓은 벌, 넓은 들  
들힐  
방뎃히기  
무늬찍기  
해돌이  
손기척  
농사집  
농사철, 바쁜, 농사철  
아낙(면)

## 근로자들의 깊은 사랑속에 널리 읽혀지고있는 장편소설들에 대한 반향을 특집하면서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영광의 이날을 맞이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는 우리 작가들의 가슴은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끝없는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로 한없이 설레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의 절박한 념원과 민족의 피타는 갈망을 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후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암흑에 짓눌리우고 원한에 사무쳤던 이 땅이 오늘은 행복의 노래, 충성의 노래 울려 퍼지는 지상락원으로 되였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심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수난에 찬 암흑의 역사를 끝장내고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주체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기에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정치, 경제 분야에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을뿐 아니라 문학예술분야에서도 슬기롭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혁명투쟁에서 문학예술이 노는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진정으로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문학예술은 전면적으로 찬란히 개화발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배려 밑에 우리 소설문학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소설문학이 대중교양과 문학예술발전에서 노는 역할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시고 소설문학을 앞세워 발전시키기 위하여 커다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세심한 배려 밑에 최근년간 특히 장편소설창작에서 전례없는 《만풍년》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대서사

시적화폭에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 가운데서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 《1932년》, 《고난의 행군》, 《백두산기슭》이 나온것은 우리 소설문학이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한 이 혁명적대작들은 자나깨나 수령님을 항상 흠모하고 그이를 언제나 가까이 뵈고싶어하는 우리 인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요구에 훌륭한 예술적해답을 준 혁명적교과서로 된다. 이 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소설형상에 담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한 기념비적대작으로 될뿐아니라 사회주의적사실주의문학의 근본문제이며 중심과업인 로동계급의 수령형상문제를 빛나게 해결한 걸출한 본보기로 된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한 형상을 정면으로 모신 혁명소설창작에서뿐아니라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주제로 한 혁명적장편소설창작에서 특출한 성과를 거두었다.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장편소설을 비롯하여 민주개혁과 사회주의현실주체의 장편소설이 많이 창작되었으며 지난날의 계급투쟁을 보여주는 력사주제와 장편소설도 훌륭히 창작되어 우리 문학의 화원을 풍만하게 장식하여주었다.

이 모든 소설책들의 갈피마다에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헤아리시느라 그토록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소설의 종자와 소재를 잡아 주시고 자그마한 세부와 대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도를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깃들어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태어난 우리의 혁명적장편소설문학은 오늘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자들속에서 끊임없는 반향을 일으키면서 널리 읽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예술의 진정한 평론가는 인민들입니다. 인민들보다 더 총명한 평론가는 없습니다. 인민들의 판정에 합격한 작품은 좋은 작품이고 인민들의 판정에 합격하지 못한 작품은 좋지 못한 작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소설, 시, 음악, 영화 그밖에 다른 모든 예술은 인민대중이 알수 있는것으로 되어야 하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어데 가건 소설책을 들고

다니며 보고 소설형상을 가지고 흥분해서 토론하며 자기의 사상문화적소양을 높이고있다. 우리의 노동자, 농민들은 소설에 대해 토론하면서 단순한 감상이나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종자와 언어형상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사상예술적성과를 아주 높은 수준에서 평론하고있다.

지난날 무지와 몽매 속에 허덕이며 낫놓고 7자도 모르던 우리의 노동자, 농민들이 오늘은 장편소설을 읽는것을 생활화하고 그 성과를 열정적으로 옹호하고 선전하는 진정한 평론가로, 가장 충명한 평론가로 되었다.

인류문화사는 소설을 비롯한 문학예술이 근로자들의 생활과 이렇듯 밀접히 결합되고 그들의 실효투쟁의 무기로 되어본 실례를 아직 알지 못하였다.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아래 마음껏 창작의 나래를 펼치고 진정한 평론가인 광범한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속에서 혁명의 필봉을 든 우리 작가

들의 행복은 그 무엇에도 비길데가 없다.

《조선문학》 편집부는 최근에 나온 혁명소설 《백두산기슭》을 비롯하여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1부), 《평양시간》, 《새봄》, 《생명수》, 《갑오농민전쟁》(1부) 등 혁명적소설에 대한 각계 각층 근로자들의 열렬한 반향중에서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독자들은 이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그 구현인 당문예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체득할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불멸의 주체적문예사상이 훌륭히 구현된 우리 소설문학의 성과를 열렬히 옹호하고 발전시키려는 근로자들의 높은 지향을 찾아보게 될것이다. 편집부는 독자들이 앞으로도 이런 건설적인 반향들을 많이 보내줄것을 바란다.

-편집부-

## 좌담회

# 그 사랑, 그 믿음속에 우리는 산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두고-

-김종우동무소속구분대군인들과 나눈 이야기-

참가자

김종우-(조선인민군 상좌)

조내옥-(조선인민군 소좌)

최정현-(조선인민군 상위)

김규현-(조선인민군 중위)

김동걸-(조선인민군 하사)

전세왕-(조선인민군 상등병)

김복희-(조선인민군 상등병)

기자-총서 《불멸의 력사》 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을 읽고난 감상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과 혁명전사들에게 돌려주신 한없이 뜨거운 어버이사람에 대한 이야기만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세왕-저는 신문에 련재된 이 작품을 한회분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몇번이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김복희-참말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눈물없이 읽을수 없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신문에 련재되는 소설의 다음회분을 무척 기다리곤했습니다.

김종우-작품의 모든 대목들이 다 감동적이지만 그가운데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그린 장면들은 읽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줍니다.

기자-그렇습니다.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은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의 미래를 위해 배푸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입니다.

조내옥-작품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을 주체의 한길우에 높이 올려세우시기 위하여 남호두로부터 동강에 이르신 빛나는 력사적로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최정현-위대하고 거창한 력사적사변들과 감동적

인 이야기들로 가득찬 이 길은 그대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엮어진 로정이기도 합니다.

**기자**-이 위대한 로정에는 만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거운 이슬로 적시게 하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아로새겨져있습니까.

장편소설에 묘사된 감동적인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더듬어봅시다.

**김규현**-(잠깐 생각에 잠겨있더니 랑송조로) 《장군님께서는 봉길이를 정겹게 돌아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우리 봉길동무한테 명절로 되는 날입니다. 봉길동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지요.>

장군님의 기쁨에 넘치신 말씀을 듣고 권학식이나 쌍둥이 전령병 종삼이보다 당자인 봉길이가 더 놀랐다. 그는 오늘이 자기의 생일날이라는것을 전혀 모르고있었던 모양이다.》

**기자**-장편소설의 한 대목이군요.

**김규현**-제가 왜 이 대목을 인상깊게 머리속에 새겨넣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많은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항일무장투쟁의 그 간고한 나날에 어버이수령님께서 관심하실 일인들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조선혁명을 이끄시며 준엄한 사선을 헤쳐나가시면서도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대원들자신조차 모르고 지내는 생일날까지 기억하셨다가 생일상을 차려주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으로 살며 싸워야 할 우리 정치일꾼들이 군인들을 그처럼 세심히 알고있지 못하며 그들의 사업을 그처럼 잘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최정현**-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대원들의 생일날뿐 아니라 그들이 어떤 집안에서 자라났고 어떤 성격과 취미를 가지고있으며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생활습성을 가지고있는가 하는것까지 죄다 알고계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고민하며 기본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하여 하나하나 헤아리시며 세심히 돌봐주십니다.

**김동결**-가까이에 있는 자식들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을 더 그리워하는 어버이심정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령부를 찾아 떠난 혁명전사들에게도 크나큰 사랑을 돌려주십니다.

**김복희**-조선혁명을 주체의 한길위에 높이 올려 세우기 위해 걸으시는 행군길은 분초가 새로운 혁명의 길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사령부를 찾는 몇명의 대원들의 행처를 찾으시려고 대오를 멈추어세우십니다.

**최정현**-행처도 정확히 알지 못하던 대원들을 끝내 찾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의 손길은 얼마나 따사롭습니까.

**기자**-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뜨거운 어버이 사랑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이 주체사상의 기초입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것도 사람을 위한것이며 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장편소설에 형상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체사상의 이 심원한 원리를 더욱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는것입니다.

**최정현**-위대한 수령님께서 체현하고계시는 드팀 없는 신념은 바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힘있는 존재로 보는 주체철학의 원리에 기초하고있으며 혁명전사들에 대한 혁명적의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조내옥**-장편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과 혁명적의리에 대하여 눈물겨웁게 그리고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안산아동단원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미혼진밀영에서 부모들도 접근하지 못한다는 열병환자들을 찾으시여 병원귀틀집에 들어서시는 장면들이 그렇습니다.

**김복희**-저는 사랑하는 한 전사의 죽음을 두고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작품의 마감장면을 뜨거운 눈물속에 읽었습니다.

《(저렇게 회의장도 거의 다 때가고 동무가 앓을 자리까지 저기 마련됐는데... 동무는 어디 있소? 그렇게도 애써 조국광복회장전사업을 준비해온 동무가 창립대회를 열게 된 이 기쁜 때에 십여리밖에 안되는데까지 와서 못들어오고 거기 누워있단말이요?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밀영문밖에까지 와서 누워있는 법이 어디 있소? 내가 기어이 오라구 했구 동무도 오겠다구 약속해놓고 못오다니? ...)》

**김규현**-만사람의 운명을 한가슴에 안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전사들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에게 줄수 있는 가장 숭고한 높이의 사랑을 안겨주십니다.

**조내옥**-작품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저주로운 《민생단》문서보파리에 불을 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뜨거운 화폭입니까!

**최정현**-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것은 혁명전사들에 대한 믿음의 최고표현이며 위대한 사랑의 찬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자**-그렇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품이 있어 이 나라 인민들은 혁명의 길에 떨쳐나설 수 있었고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으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받아안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왕**-아버이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의 그 간고한 나날에 마안산의 아동단원들을 단 한벌밖에 없는 자신의 외투까지 벗으시어 따뜻이 감싸주시고 강반석어머님의 사랑이 어린 돈 20원으로 그들의 옷을 해입히신 자애로운 사랑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 군인들은 보살펴주시고 계십니다.

**김복희**-아버이수령님께서 구분대마다에 텔레비존수상기며 악기들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기재들을 보내주시었습니다.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서 우리 군인들은 혁명의 수도 평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회주의조국의 방선에서도 적막감을 모르고 랑만에 넘쳐 살고 있습니다.

**김동걸**-아버이수령님께서 온 나라 어린이들과 근로자들에게 철따라 새옷을 입혀주시면서도 우리 군인들에게도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질 좋고 맵시있는 군복을 입도록 배려해주셨습니다.

**김규현**-참으로 우리 군인들이 늘 쓰는 바늘과 실로부터 아담한 병실과 교양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에는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이 어려 있습니다.

**최정현**-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기에 우리 인민과 혁명전사들은 그지없이 행복한 것입니다.

**일동**-그렇습니다.

**기자**-항일의 그날 사랑하는 전사 리경준이의 아들딸에게 기어이 조국을 찾아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 땅위에 조국해방의 봄을 꽃피우시고도 통일된 조국을 우리 인민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늘도 백두산기슭으로 진군하시던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사랑의 길을 이어나가시는 우리 수령님이십니다. 우리모두 3대혁명의 기치높이 새교육년도 전투정치훈련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아버이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합니다.

##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끝없는 금지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1부)을 읽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을 내용으로 한 혁명적인 소설을 더 많이 써내야 하겠습니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1부, 석유키)은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훌륭한 혁명적소설이다.

소설은 나온지가 퍼그나 오래되었지만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깊은 사랑속에 날이 갈수록 더욱 널리 읽혀지고 있다.

소설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숭엄한 세계에 깊이 들어갈수록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사는 더없는 민족적금지감을 가슴뜨겁게 불러일으킨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1부)은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지 못한 탓으로 파란곡절을 다 겪으며 시들어가던 우리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해발을 받아안고 무성하는 혁명의 해바라기들로 억세게 자라나는 과정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작품은 암초에 부딪혔던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단계으로 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거대한 혁명업적을 폭넓은 서사시적화폭을 통하여 일반화하고 있다.

일제와 조선인민사이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었던 1920년대말~1930년대초를 시대적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주인공 유철의 곡절 많은 투쟁과 쓰디쓴 피의 교훈만을 남긴 그 하많은 《폭동》들을 통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목마르게 기다리는 인민들의 간절한 념원과 당대 조선혁명의 절박한 요구를 예리하게 밝혀내면서 혁명투쟁에서 로동계급의 수령이 노는 결정적역할을 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무작정하고 걸은 그 길이 가닿은 서대문감옥, 그리고 5, 30폭동이 무모한 짓임을 알면서도 달리는 어찌할수, 없었고 그런 전철을 밟는 무모한 폭동을 그만두도록 설득시키려다가 결국은 《배신자》라 배격당해야 했던 주인공 유철이, 그후 두번째 감옥살이와 주삼녀의 희생...

당시 혁명가들이 어떻게 해야 조국을 찾을 수 있는지 아무런 로선도, 방침도 없이 무턱대고 《혁명》의 구호를 웨치며 무모한 폭동만을 부르짖을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피라는 갈망을 안으시고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이께서 높이 드신 항일무장투쟁의 불꽃은 어둠을 뚫고 온 나라 방방곡곡에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퍼져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선과 방침을 접하고 그이의 현명하고 세심한 지도를 받게 되자부터 유철을 비롯한 혁명가들은 비로소 혁명의 앞길을 환히 내다 보고 보람찬 투쟁의 길을 개척해가며 혁명은 양양되기 시작한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만이 조선혁명을 난국에서 구원하시고 조국과 인민에게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주시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라는 사상을 힘있게 천명하였다.

그러면서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는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의 형상을 통하여 혁명의 주인은 억압받고 천대받는 소박한 인민대중이며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되지만 하면 력사발전에서 참으로 커다란 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철을 비롯하여 주삼녀, 박두성, 로채숙, 김삼덕, 규화(쌍가매), 강봉이, 박병섭 등의 형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점차 각성되고 혁명화되어가는 참신한 전형들이다.

억압과 천대 속에 시들고 감옥과 단두대에서 죽절없이 스러져야 했던 식민지사회의 수난자들이였던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해발을 받아안고 주체의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이전엔 것처럼 무시무시하게만 보이던 일제의 폭압정치를 제손으로 때려부시는 위력한 혁명력량으로 자라난다.

소설에서 주인공 유철의 형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이께 끝없이 충성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빛나는 전형으로 창조되었다.

유철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신념화하고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 아버지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것을 최상의 의무, 최고의 영예로 간직하였다.

그는 늘 가슴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말씀

이 적혀있는 공책을 품고다니며 보풀이 일 때까지 읽고 또 읽으면서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었고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속에 꾸준히 해설침투해준다.

심하게 앓는 몸으로 꼬지개섬의 무장대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강의해주기 위하여 깊은밤 70여리의 생ন길을 헤쳐가는 모습도 감동적이지만 위대한 수령님께 자랑찬 보고를 가지고 떠나는 김기창을 40리나 따라가면서 《우리 사업과 형편에 대해 물으시는대로 낱알이 말씀드리되 그이께 걱정을 끼쳐드려서는 절대로 안되요.》라고 신신당부하는 그의 말은 얼마나 절절한것인가.

동지들을 구원하기 위해 홀로 적과 혈투를 벌리는 모습, 가장 어려운 안골혁명화를 직접 맡아 수행하면서 한몸의 고통도 피로움도 곳곳이 이겨나가는 모습, 인민들과 흠없이 어울리며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꾸준히 교양개조하여나가는 모습 등은 주체형의 혁명가로서의 품성을 잘 보여준다.

《혁명가의 불타는 사랑은 혁명을 하는데서 표현됩니다.》 귀전을 두드리며 울려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말씀, 그리고 손수 입혀주시던 양털외투의 폭신하고 따뜻한 촉감만이 아닌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이 언제나 유철의 가슴을 후덥게 감싸주었고 그이의 열화같은 혁명사상-민족과 계급에 대한 위대한 사랑이 유철의 가슴에 영원히 식을줄 모르는 불을 지펴주었다. 유철은 그날 눈물과 함께 삼킨 닭곰이 언제나 마를줄 모르는 피줄이 되어 자기의 온몸을 세차게 굽이치고있다고 생각하는것이였다.

바로 그랬기에 기승을 부리는 눈보라속에 파묻혔다가도 눈을 툭툭 털고 일어났으며 피로도 아픔도 피로움도 곳곳이 이겨내면서 1년반동안에 안골을 혁명화하고 하강지구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드리는것이다.

우리는 이 소설을 통하여 파란곡절 많던 지난날의 조선혁명의 길우에 어떻게 련명이 비쳐왔으며 그 길이 어떻게 오늘과 이어졌는가를 뜨겁게 느끼게 된다.

민족수난의 시기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이땅에 사회주의자력쟁쟁의 나라, 주체의 조국을 일떠세워주시고 지난날 정치밖에서 멸시와 수모만 받아오던 우리 인민을 은혜로운 한품에 안으시여 모두에게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소설의 페이지를 더듬어갈수록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감을 더욱 두텁게 가지게 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을 따라 나간다면 산악도 격랑도 단숨에 넘고 헤칠 수 있으며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게 된다.

참으로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1부)은 독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끝없는 민족적 긍지감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고 어버이수령님께서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도록 하는 혁명전통교양의 참다운 교과서로 된다.

나는 소설의 주인공들처럼 순간을 살아도 일생을 살아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며 백두의 혁명정신, 천리마의 혁명정신, 속도전의 혁명정신으로 힘차게 살며 일해나가겠다는것을 굳게굳게 결의다진다.

나는 끝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정도를 따라 충성의 한길을 드림없이 걸어나가는 사랑스러운 주인공들의 그후의 운명과 빛나는 투쟁모습을 빨리 보여 주게 하여줄것을 이 소설의 작가에게 부탁한다.

김형직사범대학편집부  
홍성해

## 위대한 사랑속에 꽃피여난 우리의 거리

-장편소설 《평양시간》을 읽고-

마가을밤,

렬차는 질풍같이 달리고있다.

제대군인 복장을 한 두 청년이 차창결에 마주앉아있다. 한 청년은 이마에 굵은 두오리의 주름살이 잡히고 진한 왼쪽 눈섭은 상처자국이 뚜렷하다. 다른 한 청년은 잠이 들어있는데 자주 입술을 실룩거리며 미소를 짓고있다. 꿈속에서 사랑하는 안해를 보는 모양이다.

1957년 군대에서 제대되어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이 기다리는 그리운 고향으로. 사회주의건설장으로 떠나가는 청년들이다...

이것은 장편소설 《평양시간》에 나오는 첫장면의 내용이다.

나는 이 소설을 두번이나 읽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인민들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과 은덕을 높은 예술적화폭속에 담은 소설의 장면장면들을 읽어나가면서 나는 저도모르게 눈물을 흘리곤 하였다.

소설의 마지막장을 덮은지 오랜 지금에 와서도 나의 눈앞에는 리상철이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문화린, 오월이, 박수진 등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자주 그려보게 된다.

전쟁의 가렬처절하던 나날에도 한시도 잊지 않고 크나큰 포부와 희망을 가슴속에 고이 간직해온 리상철, 그는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가 될것을 희망하면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리라 결심했

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온 그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도시는 전쟁의 상처를 점차적으로 씻어버리며 현대적인 도시로 자라고있건만 리상철이가 태어난 보통강기슭에는 아직도 움막집이 그대로 있었고 탁한 냄새가 풍기는 보통강도 정리되지 못한채 그대로 흐르고있었다.

사랑하는 누이와 동생을 삼켜버린 원한의 흐름이였던 보통강, 비오는 날이면 개구리가 제일먼저 뛰여드는 움막집...

우리 인민은 전쟁의 상처를 빨리 가시고 현대적인 새 도시를 세워야 했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한 이 땅에 문명한 새생활을 안겨주시려고 도시건설에 대한 휘황한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우리의 주인공 리상철은 생각이 깊어졌다. 천문학자가 되는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꽃피워나가는 그 길에 앞장서야 한다. 리상철은 건설자가 될것을 결심한다.

리상철이와 박수진, 손월석이 병사생활을 끝마치고 사회주의건설자로서의 첫출근을 하게 되는 전날밤, 세 벗은 저녁상에 둘러앉았다. 습습히 보낼수 없는 밤이었다....

소설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잘 가거라. 잊지 못할 병사시절이여.

달쳐올 생활. 이날이 새면 시작될 로동생활은 어떠한것일가! 쓴것보다 아직 쓰지 않은 자리가 더 많은 리력서의 넓은 공백엔 어떤 생활이 기록될것인가?...》

이렇듯 소설은 거대한 건인력을 가지고 점차 독자들을 이끌어가는것이다.

어느덧 소설은 평양시를 웅장하고 아름다운 현대적인 대도시로 건설하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살림집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시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건설부문일군들과 설계가들을 친히 부르시여 건설분야에서 채래식방법을 버리고 당의 조립식건설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장건설에서나 다리건설에서나 이르는곳마다에서 전반적으로 조립식방법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를 더욱 높일수 있습니다.**

**주력건설을 두고 말하더라도 이 방법으로 건설하여야만 조상때부터 몇천년 내려온 오막살이들을 허물어버리고 훌륭한 문화주력을 대대적으로 지을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립식건설방침, 여기에는 진정 아름답고 화려한 고층문화주력을 인민들에게 마련해주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깃들어있는것이다.

이것은 또한 건설에서 요령주의, 기회주의, 관료주의, 보수주의를 짓부시고 문화린과 같은 수많은 설계가들과 건축가들을 새로운 주체형의 인간, 참된 공산주의자로 키워내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자기가 범한 과오때문에 자책과 번민속에서 모대기던 문화린은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속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성장하는것이다.

장편소설은 또한 1946년 보통강개수공사장에서 첫삽을 뜨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상을 장엄한 화폭속에 모시고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보통강일대를 현대적인 대유원지로,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려주시기 위하여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셨다.

쌀쌀한 새벽바람이 부는 어느날 이른아침,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보통강에서 낚시질하는 리

성준로인과 허물없이 담화를 하신다. 그이께서는 한 평범한 로인에게 담배도 권하시고 성냥불까지 켜주실뿐아니라 보통강에 앞으로 대유원지를 건설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는것이다.

《이 강을 운하로 만들구 강변을 유원지로 꾸린다면 아마 대동강보다 더 좋은 강으로 될수도 있을겁니다. 배도 다니고 고기도 여러가지 고기가 다 살게 하구... 운하전체를 양어장으로 만든단말입니다. 드문드문 운하안에 섬도 만들고 정자도 앉히고 진귀한 동물들도 가져다 구경시키고 수영장과 여러가지 놀이터도 만들고...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군합니다. 지금은 구린내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물은 흐리구 나무도 없고 새들도 날아들지 않고 꽃도 피지 않고 감탕과 잡초뿐입니다. 스산합니다. 온 보통강에 숲이 덮이고 새들이 날아들어 노래를 부른다면 이 강변에 정말 락원이 생기는셈이 아니겠습니까?...》

정녕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평양은 현대적인 아름다운 혁명의 수도로, 원한과 한숨의 강이였던 보통강은 락원의 강, 행복의 유원지로 전변되였다.

지금 우리들은 아버지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시는 은혜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이 거리의 향유자로 되였다.

이와 같이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을 빛나게 그리였다.

소설을 읽고나면 참으로 생각되는바가 많아진다.

그것은 수도의 거리거리들과 거기에 일떠선 고층문화주력들, 유원지들과 공공시설물들이 어떻게 일떠섰는가, 이 모든것들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가슴뜨겁게 느껴지는것이다.

나는 아버지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이 거리에서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받은 사람들중의 한사람이다.

나는 영웅도시, 혁명의 수도 평양을 온 세상에 별처럼 빛내이기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시는 락원의 이 거리를 더욱 아름답게 꾸려가는 일에서 언제나 앞장설것이다.

그리고 우리 문학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 노력함으로써 아버지수령님과 당의 크나큰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굳은 결의를 가슴깊이 다지게 된다.

**강철**

# 봉건말기 사회상에 대한 생동한 화폭

-장편소설 《갓오농민전쟁》(1부)을 읽고-

장편소설 《갓오농민전쟁》(1부, 박태원)은 지난 날의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 모습을 실감있게 보여줌으로써 역사소설로서의 특색이 있고 우리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아주 성공적인 작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예술은 시대와 사회제도를 반영해야 하며 또 그것을 옳게 반영한것이라야 가치가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예술성도 당대 사회제도와 인민들의 생활에 표준을 두어야 합니다.》**

장편소설 《갓오농민전쟁》(1부)은 갓오농민전쟁 당시의 사회제도와 인민들의 생활을 흥미있고 인상깊게 묘사하고있다. 이 소설이 주는 흥미와 깊은 인상은 소박하고 구수하고 색갈있는 언어표현의 매력력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이 소설에서 제일 인상깊은것은 실생활에서와 같이 생생히 살아움직이는 주체적인 인간들의 산모습이다. 소설에는 주인공 상민이일가를 비롯하여 수십명의 서로 다른 인물들이 설정되고있는데 그들의 생동한 모습은 지금 바로 눈앞에서 보는듯하다. 근한세기전의 생활을 보여주는 이 작품에서 모든 인물들이 이와 같이 자기 얼굴, 자기 목소리를 가진 산 인간으로 독자들과 함께 울고 웃게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큰 인가.

그것은 중요하게 개성적인 성격의 창조에 쓰인 작가의 독창적인 수법과 사람들의 미적, 심리적특성까지도 깊이 파고든 언어형상의 감화력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성격의 개성화-이것은 문학예술작품들에서 전형창조의 필수적요구이다. 그러나 그것을 실현하는 방도와 수법은 작가마다 다르다. 어떤 작가는 인물의 외모보다도 그의 내면세계의 변화발전을 집중적으로 그려 인상깊이 보여주는가 하면 어떤 작가들은 주요인물들의 생김새는 자세하게 그리지만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스쳐지나거나 전혀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주인공은 물론 다른 부차적인 인물들에 대해서까지도 얼굴묘사를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그의 계급적 처지와 환경, 생활에 대한 태도며 개성적인 특질까지 잘 드러내 보이고있다. 그리

하여 긍정인물은 긍정인물답게, 부정인물은 부정인물답게 전형화하여 그리고있다.

《그의 일자로 다물려진 입가에는 서글픈 웃음이 떠오르고 그 크고도 서글서글한 두눈에련민의 빛이 어린다.

머리채를 감아엎은우에 수건을 동이고 누덕누덕기운 북덕무명 겹바지저고리에 목다리버선, 키는 중키, 가름한 얼굴에 이목구비가 번듯하게 생긴 나이 한 이십된 총각이다.》

이것은 작품의 첫부분에 그려진 주인공 상민의 모습이다.

가을걷이한 밭에서 낱콩을 주어먹고있는 씨둥이에 대한 동정,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도움도 줄수 없는 자기의 처지에 대한 서글픔, 짜지게 가난한 살림속에서도 끈고 대바르게 키워온 강의한 성품, 이런것들이 어리여있는 그의 만만치 않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독자들은 벌써 주인공에 대한 사랑과 호의를 가지게 되며 그의 앞날의 애국투쟁에 대해서도 믿어마지않게 된다.

그러나 탐욕으로 빚어지고 악행으로 계발린 고부군수 조병갑의 모습은 얼마나 추악한가.

《깍지동같은 몸집에 군턱이 진 넙적한 얼굴, 수염으로 절반이나 덮인 큰 입에 코는 방울코이고 눈은 또 올빼미눈이다.》

흡사 시커먼 먹장구름을 머금고 기회만 노리고있는 잔뜩 호린 하늘과 같은 초상이다. 이제 그 하늘이 이그러져 번개치고 우뢰가 울면 소나기가 올지, 우박이 쏟아질지 그 누가 알랴.

이처럼 사물현상의 생리형태적특성이 사람들의 미적감정에 주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묘사는 그 인물에 대한 독자들의 공부정적인 태도를 좌우하는 촉매제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것이다.

작품에는 이밖에도 앙상한 목에 울대뼈가 툭 빠져져나온 상민이 할머니, 눈에 맑은기라고는 없는 상민이 어머니를 비롯한 마을사람들과 전봉준, 오수동, 칠성이 그리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왕과 탐관오리들, 가게방의 왜쩍장사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계급과 계층 인물의 갖가지 군상이 펼쳐진다.

작가는 당대 사회상을 폭넓게 보여주는 이 많은 인물들을 그림에 있어서 그 인물의 특징적인 세부

를 골라쥐고 그것을 내면세계의 움직임, 외적행동의 변화와 밀접히 연결시켜 보여줌으로써 그 누구와도 같지 않은 고유한 《그》로 되게 하고있다.

노려보기 잘하는 리진사의 도끼눈, 때에 따라서는 제법 부드러워보이기까지 하나 인차 흠뻑지고 지름떠지는 리진사마누라의 뱀새눈, 왕비 민비의 알뜰한 입술과 치째진 눈, 《계뚜더기》, 《안장코》들이 바로 그러한 실례이다. 보는바와 같이 소설에서 얼굴묘사의 초점은 응당하게도 눈과 입에 돌려져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굴표정은 마음의 거울이며 그중에서도 눈은 감정변화의 계기와도 같은것이기때문일것이다.

특징적인 세부에 초점을 둔 얼굴묘사와 그에 의한 개성적인 성격의 창조, 이것은 소설을 글로써가 아니라 그림으로 보게 하고 추상으로가 아니라 표상으로 기억하게 하는 형상의 기교라고 말할수 있다.

소설에서 또한 인상적인것은 하나의 단면에서 생활의 전모를 펼쳐보이고 한두마디의 표현으로도 생활의 본질을 밝혀내는 예리한 수법과 섬세한 필치이다.

작가는 언어의 시대적특성을 잘 살려씀으로써 지난날의 생활을 꾸미지 않고 진실하고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모순된 당대 사회의 대변자들-《진사님》, 《마님》, 《도련님》으로 불리우는 《량반님네》들과 제이름을 두고도 《여보게》, 《서방》, 《어멈》으로 불리워야 하는 《쌍것》들 사이에는 어떤 넘지 못할 계선이 있는것인가.

립춘날 리진사네 집 대문에는 《천하태평춘》, 《사방무일사》라는 글이 나붙어있다. 천하는 태평한 봄이요, 세상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의 글이다. 그런데 실지 마을형편은 어떠한가. 새벽바람이 찬 2월하순부터 늙은이, 젊은이, 총각 할것없이 보막이공사에 끌려나간다. 그것이 끝나면 소작부치는 자기 집 밭일, 그 다음엔 또 울며 겨자먹기식의 묵은 땅 일구기...

농사일뿐이면 또 모른다.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참경은 또 얼마나 많은가. 《진사님》이 푸짐한 밥상에 마주앉아 《진지를 잡숫고》있을 때 며칠째 굶은 길보는 지주집대문앞에 쓰러지고 왕의 상에서는 밤새 《굶고 볶고 찌고 삶고 지지고 줄이고 끓이고 부치고 무치고》하여 차려놓은 진귀한 음식들이 숫것채로 그냥 물려나오는데 아이들은 나물조차

없어 아무런 가공도 요리도 필요없는 진달래꽃을 《보는대로 따먹는다, 따먹는다.》 백성들은 모조리 빼앗기고 빨리우고 굶하다 못해 피맺힌 원한을 품고 동네를 떠나가는데 부자놈들은 《고마운》 원에게 코아래진상을 하고 그놈의 애비를 위해 비각까지 세우려고 한다. 그러고보면 천하는 태평한것이 아니라 굶주리는 봄이요, 세상에는 일이 없지 않아 기막히는 일도 많은것이다. 《금녀의 밤나들이》나 사람아닌 강아지에게 《감투》을 씌운 《황감역》까지 만들어낸 《마다리법》과 같은 말도 그때 사회에서만 들을수 있던것들이다.

우리는 여기서 부익부, 빈익빈의 법칙이 작용하는 착취사회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알수 있다. 이것이 하늘과 땅, 희고 검은것의 차이와 같은 뚜렷한 대조의 결과라는것은 더 설명할 여지가 없다.

소설은 지난날의 생활을 그저 그려보이는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체적립장에서 옳게 분석평가하고있는데 이것은 생활의 본질이 체현되어있는 특징적인 세부에 대한 인상깊은 묘사와 결합되어있다.

소설에서 문서방이 리진사네 집을 나오는 세부에 대한 묘사는 아주 성공적이다. 부모들이 지어준 《복만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어릴적부터 불행만 겪어오던 문서방은 고역끝에 학질에 걸려 앓게 된다. 갖은 천대와 멸시를 숙명으로 여기며 저들을 위하여 삼십여년간이나 마소처럼 일해주었던 리진사네 집 식구들은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작가는 《안에서는 몸풀러 온 리진사 딸이 오늘래 일하고 바깥 행랑채에서는 문서방이 오늘래일하고 있》는 극적정황을 설정하고 《문서방 한밤중에 리진사네 집을 <나오다>》로 그들의 운명에 대한 형상적인 결론을 주고있다. 작중인물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를 같이 체험하면서 소설을 읽어 내려가던 독자들은 이 대목에 와서 동네사람들이 그렇게 권해도 듣지 않던 문서방이 무엇때문에,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한밤중에 리진사네집을 나오게 되었는가를 톡톡히 알게 된다. 그리하여 산 사람을 죽으라고 내다버린 착취자들의 비인간적인 만행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해하며 남의 노예로 살 때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도, 삶의 보람과 자유도 가질수 없다는 생활의 진리를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깨닫게 되는것이다.

따옴표와 함께 쓰임으로써 자체에 없던 수많은 뜻을 더 가지고 무게있게 울리며 시대와 사회에 대한 표상을 불러일으켜주고있는 《나오다》와 같은

단어야말로 하나에서 백을 보여주며 현상에서 본질을 밝혀주고있는 문학적인 언어라고 생각한다.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1부)이 재미있고 깊은 여운을 주는것은 지난날의 생활을 보여주면서도 그것을 단순한 복사자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에 가깝게,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 사람들의 미감에 맞게 그려낸데도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결국 모든 문화예술작품들은 오늘의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복무하여야 합니다.》**

소설은 지난 시기의 많은 역사적사실들 중에서도 오늘 우리 인민들이 받아들일수 있는 생활 즉 낡고 보수적이며 반동적인것을 반대하고 새롭고 진보적이며 아름다운것을 지향하는 우리 인민들의 고상한 민족생활을 택하고 그것을 어느 특정한 계기나 요란한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투쟁속에 있는 생활로, 생활속에 있는 투쟁으로 다양하게,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여기서 언어의 계급적 및 계층적특성을 옹계 리용한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소설에서 리진사의 아들 상문을 부르며 놀려대던 돌석이는 이렇게 말한다.

《아, 량반님네 이름을 감히 누가 부를놈이 있다고 헛갈린다고 그러십니까? 상민아-하고 부르면서 애박에 더 있나요?》

이것은 길가에서 만나서도 《고서방네 머슴》으로 불리우며 까닭없이 멸시를 받아야 하는 돌석이가 할수 있는 말이다. 깨고소한 웃음을 자아내는 그의 이 말속에는 《량반님네》를 위하여 《상놈》은 이름까지 고쳐야 하는 봉건적인 신분차별제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무지한 량반계급에 대한 통쾌한 야유가 깔려있다. 《평안감영에서 덩타고 올라온 금송아지》나 《진사님이 제불기를 치고계시네》와 같은 말들은 웃음없이는 들을수 없다. 그러나 그 웃음속에서 풍기는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풍자와 조소는 얼마나 신랄한가. 이것은 하바닥인생속에서도 비렬한 굴종을 모르며 꾀꾀하게 살아나가던 우리 인민들의 슬기로운 모습이 그대로 비껴있는 언어표현이다.

생활의 본질은 물론 그의 갈피갈피에 스며있는 정서적향취와 미묘한 음영까지도 밝혀내는 말뒤에 숨은 《말》의 힘은 참으로 큰것이다.

소설에서 가을걷이를 앞둔 사람들의 생각은 저마

끔 다르다. 고부군수 주병갑은 덧없는 세월이 사람을 안기다려주니 제때에 부지런히 굶어내자는 속심이다. 그러나 상민이는 어떤가? 그는 제 논아닌 제 논을 지키느라고 연해연방 물려드는 새들을 쫓는다.

《후여 후여! 이 망할놈의 새들! 너희 주자고 피땀 흘려 농사진줄 아냐?...》

하지만 어지러이 흩어져 날아갔다가는 곧 다시 물러와 쪼아먹을 원썬놈의 새들이였다. 이런 현실을 뼈저리게 체험한 상민이기에 《정사 잘한 원님을 위해》 《돈궤미를 좋아하고 고무래질을 잘한다》는 뜻의 《애민선정비》를 세우는것이다.

전봉준은 상민이와도 또 다르다. 지식도 있고 리치에 밝아 세상은 꿰을대로 다 꿰았으니 화침을 와서 터뜨릴 때가 거의 났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였다. 하기에 장두로 자원하여 나섰던 아버지가 가증한 원썬놈들의 손에 무참히 맞아죽었을 때 그는 불이 철철 흐르는 두눈을 부릅뜨고 《이제 더는 참을수 없다. 고부백성들은 모두 떨쳐나서라...》는 통문을 나는듯이 써내려가는것이다. 이것은 그의 복수의 맹세였고 심장의 웨침이였다.

독자들은 여기서 자기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각성해가는 각이한 인물들과 농민전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던 당대의 첨예한 사회적모순을 보면서 계급투쟁의 본질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된다.

이것을 어찌 지나간 역사적시대에 있는 이야기로만 들을수 있겠는가.

《우리도 단단히 차려야 한다.》

《고부백성들은 다들 일어나라!》

소설에 쓰인 힘있는 말마디와 표현들은 오늘날도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는 모든곳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받거나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힘있게 울리고있다. 그것은 또한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보람찬 투쟁의 한길을 달려나가고있는 우리 인민들에게도 지나간 계급투쟁의 역사와 그 교훈을 잊지 말고 더욱 긴장하게, 혁명적으로 살며 일해나가야 한다고 깨우쳐주고있다.

력사주제의 장편소설 《갑오농민전쟁》(1부)은 생활속에서 탐구되어 생활을 담고있는 개성적이며 색갈있는 언어표현으로 지난날을 생동하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통하여 오늘을 떠밀어주는 훌륭한 작품이다.

**혜산제1사범대학 교원 장효홍**

# 장편소설 《생명수》의 주인공들처럼

-장편소설 《생명수》를 읽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진실로 사실주의적이고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은 인간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세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간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세계를 펼쳐보인 문학과 예술은 사람들을 또한 숭고하게 만드는것입니다.

얼마전에 나온 장편소설 《생명수》는 지금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평범하게 읽히고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 책이 나온 다음에 한번 손에 쥐자 단숨에 쭉 내리읽었고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에 한없이 매혹되었습니다.

생명수! 해방전 지난날 큰물이 지면 물란리에 울고 가물이 들면 물가난에 하늘을 저주하고 땅을 찼던 우리 농민들에게 생명보다 귀중했던 물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해마다 만풍년이 이룩되는 천지개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준 장편소설 《생명수》는 첫장부터 저를 무한히 흥분시켰습니다.

해방전 봉산벌에 밀려든 큰물에 사랑하는 누이동생을 잃고 어린시절부터 물에 대한 농민들의 원한을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한 주인공 박대성은 아버지의 유언을 안고 제대되어오는 그 길로 관개건설장으로 향하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고향땅을 걷고싶다던 아버지의 절절한 념원이 대성의 일생을 결정한것이었습니다.

대성은 일생을 바쳐서라도 이 땅에 사랑의 생명수가 넘쳐흐르게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을 활짝 꽃피우리라 결심합니다. 하기에 것처럼 아름다운 별무리가 펼쳐진 밤에 대성이는 봉숙이와 수차를 돌리면서 멀지 않아 실현될 꿈많은 앞날을 그려보며 가슴을 불태웁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그들의 꿈을 실현해주시려고 봉산벌을 찾아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황금으로언제를 쌓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농민들에게 생명수를 어서 빨리 보내주자고 하십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에도 비길수 없는 크나큰 사랑은 청년연공작업반장 대성의 가슴을 세차게 불태웁니다.

소설에 묘사된 주인공의 숭고한 형상은 저로 하여금 우리 공장의 지난날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도 지난날 어지돈관개건설장에 보낼 양수기를 만들기 위하여 경험도, 기술자도, 설비도 모든것이 부족한 조건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모든 곤난을 박차고나갔습니다. 우리 락원의 영웅적인 로동계급도 온 나라 농민들에게 억년 가물을 모를 생명수가 넘쳐흐르게 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쳤던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양수기를 설치하려고 삼교천의 얼음을 장을 까고 물속에 뛰어들어 시운전을 보장한 공장의 한 작업반장도, 그 감격적인 어지돈관개외통수식날 농민들과 같이 생명수 넘쳐흐르는 물속에 뛰어들어 덩실덩실 춤까지 추고왔다는 장아바이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지난날을 감회깊이 회상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장편소설 《생명수》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는 충성의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우리들을 새로운 위훈으로 불려일으켜줍니다.

저도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는 보람찬 투쟁의 한길에서 영원히 주인공과 함께 나가렵니다.

**최용작**  
**(락원기계공장 로동자)**

#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

-장편소설 《새봄》을 읽고-

무릇 성공한 작품이 다 그러하듯이 장편소설 《새봄》은 손에 쥔 저는 밤을 패며 단숨에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저는 주인공과 함께 준엄하고 보람찬 투쟁의 가시덤불을 헤치고 드디어 새봄을 맞이하기라도 한 것처럼 희열에 휩싸여 책을 놓을수가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어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작품은 우리 나라에 오늘과 같은 문명한 사회주의 문화농촌이 마련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토지개혁법령을 발표하시어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가 수놓아져있기때문이라는것을 기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의 주인공인 명진은 해방의 기쁨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그가 생각한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왜놈들은 쫓겨가고 사람들은 해방된 감격에 휩싸여있었으나 지주놈은 여전히 살아있고 작인들의 처지도 별로 달라진것이 없었습니다.

행복한 생활은 투쟁을 통하여 쟁취하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명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가슴에 불을 안은 명진은 옛스승인 김락훈을 찾아갔으나 그 역시 막연한 말만 하고있었습니다. 명진은 불만을 품고 돌아옵니다. 그런 명진이기에 당장 이 땅에서 지주, 자본가를 쓸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회주의 사회를 일으켜세울것처럼 열변을 토하는 좌경기회주의자인 임광섭은 그에게 《훌륭한 정치가》고 보였으며 그의 말대로 하면 천지를 개벽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마을로 돌아와 변귀남이와 함께 사람들을 휘동하여 지주 강병기놈의 고간을 습격하는 싸움을 벌였으나 쓰디쓴 패배를 맛보게 되는것입니다.

명진은 당장 이 땅에 새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임광섭의 말에 의문을 품습니다.

명진의 이 의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파견해주신 항일혁명투사 문승범의 지도를 받게 되면서

부터 비로소 풀리게 되었습니다. 명진은 소작료불납투쟁이 아니라 농조를 무어 3.7제투쟁을 해야 한다는것 그 과정에 단결되고 조직된 힘을 키워 지주놈들과 관가리싸움을 벌려 땅을 빼앗아내야 한다는것을 깨닫습니다.

명진은 마을의 첫 공산당원으로 세포비서로 자라납니다.

소설은 명진이를 비롯한 모든 인물들이 마치 한줄기, 한줄기의 시내물이 흐르고 흘러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듯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토지개혁이라는 세기적인 목표를 향하여 억세게 굽이쳐가고있음을 생동한 화폭을 통하여 진실하게 보여주고있습니다.

이처럼 소설은 해방후 말할수 없이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 당의 계급로선, 군중로선이 정확히 관철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토지문제해결의 정당성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소설의 통속성에 대해서도 꼭 부언하고 싶습니다. 소설에는 화려하고 기발한 묘사대신에 구수한 흙냄새가 풍기는 필치로 우리가 흔히 농촌에서 익숙된 생활을 능숙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소설이 세상에 나오자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리유의 하나도 바로 거기에도 있지 않는가고 생각됩니다.

저는 소설에 묘사된 당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을 눈앞에 펼쳐놓고 대비해봅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측면에서 얼마나 위대한 비약과 전진이 이룩되었습니까.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농민들에게 것처럼 천지개벽의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고도 더 좋은 생활을 주시기 위하여 봄, 여름, 겨울 가리심이 없이 어깨우에 눈비를 맞으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계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농장에만도 몸소 아홉차례나 찾아오시어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충직한 혁명전사로 살며 싸워나가겠습니다.

리인걸  
(평남도 순안군 력암협동농장 농장원)

## 위대한 봄

김영희

주체의 태양이 높이 솟아 새시대의 기원이 열린 력사의 봄 4월이 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충성의 마음이 그대로 꽃으로 피었는가 4월의 만경대, 4월의 조선은 꽃바다를 이루었다.

만경대로 만경대로 잇닿은 꽃물결 꽃물결... 그것은 정녕 충성의 대하를 이루어 굽이친다.

4월의 만경대를 그리는 마음은 남해바다가에 피어나는 《만경화》에도, 저기 남방의 하늘밑에 곱게 피어난 《김일성화》에도 어려있거니 4월의 만경대는 온 겨레, 온 인류의 축복속에 있다.

우리의 그 어디에서나 보이는 만경대! 이 위대한 혁명의 성지에서 빛발치는 봄빛은 지구우의 그 어디에도 흘러든다. 비록 그곳이 동토대에서일지라도 이 따사로운 봄빛을 받아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봄이 깃들리라.

그뿐이라! 만경대의 봄빛은 시간의 한계를 넘어 영원토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발쳐가리라.

사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생겨 누리에는 수천수만번 봄이 오고 봄이 갔다.

하나 4월의 만경대의 봄처럼 그렇듯 희망과 기쁨에 넘친 봄,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고 계절의 의미로써는 재일수 없는 위대한 봄이 있었음을 우리는 모른다.

하기에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숭고한 노래로 인류의 영원한 봄, 위대한 주체시대의 시원이 마련된 4월의 봄을 칭송하며 가장 아름답고도 순결한 꽃송이로 4월의 봄명절을 수놓는다.

맑고도 밝은 대지우에 해발도 영광으로 하여 눈부신 조선의 4월,

사람도 산천도 은혜에 넘친 빛발속에 감격으로 설레이는 4월의 아침,

어찌하여 이 아침, 사람들은 끝없는 감격속에 잠기는것인가.

그렇다. 우리 인민은 4월의 봄. 이 위대한 봄의 은혜로움을 심장깊이 간직한 인민이다.

우리 인민은 남달리 봄을 희구하여 온 인민이다. 봄을 갈망하는 마음 이룰데 없이 절절하였다.

예로부터 4계절이 확연한 금수강산, 조선의 봄은 류달리 화창하였다.

하나 지난날 근로하는 우리 인민은 그 어느 한해도 봄의 따뜻함을 느낄수 없었고 봄다운 봄을 맞을수 없었다.

더구나 제 나라 제 땅을 송두리채 빼앗겼던 그 수난에 찬 세월에 봄이 온들 어찌 봄을 느낄수 있

었으랴.

희망과 기쁨을 떠나 봄을 말할수 없었을진대 래일에 대한 그 어떤 기약도 희망도 가질수 없었던 우리 인민에게는 봄이 없었다.

나라도, 땅도 그리고 이름마저 송두리채 빼앗겼던 그들에게 동산에 피는 꽃, 하늘에 우짖는 새가 무슨 기쁨을 주었으랴.

아니 오히려 그 모든것은 설움을 자아내었다. 피는 아지랑이와 꽃, 우짖는 봄종다리가 산천을 처량하고 구슬프게 할따름이었다.

봄이라면 설움이 앞섰고 굶주림이 따랐다.

희망, 기쁨으로 비겨말해야 할 봄은 절망과 비애의 대명사로 되었다.

산 좋고 물 맑은 내 나라, 이룰데 없이 화창한 봄이 깃드는 이 강산에서 어찌하여 지난날의 우리 인민은 그 어느 한번도 봄다운 봄을 느낄수 없었고 사람다운 삶을 누릴수 없었던가.

그것은 근로하는 우리 인민이 주인으로 되었어야 할 그 모든것을 잃었기때문이었다.

마땅히 우리 인민은 이 나라, 이 땅, 이 대자연의 주인으로 되었어야 하지만 그것이 오랜 세월 압제자들에 의해 유린되었기때문이다.

하나 세기를 두고 내려오며 력사의 밖에 있던 우리 인민, 온갖 압박과 굴욕의 멍에에 시달려 온 인민이 비로소 력사의 주체가 되고 사회발전의 추동력이 되는 위대한 시대, 주체시대의 려명이 드디어 밝아왔으니 그날은 인류의 가슴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진 1912년 4월 력사의 그 봄이었다.

압제자가 없는 새시대, 참된 삶과 기쁨을 주는 새봄을 안타까이 기다리며 그 새세상, 그 새봄에로 이끌어줄 민족의 구성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이 땅에 찬란한 서광이 비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만민의 위대한 태양으로, 민족의 구성으로 탄생하시였다.

대대로 내려오는 애국의 녀이 깃든 만경대에서 어린시절부터 민족의 세기적념원을 새겨오시였으며 천리길을 오가시며 민족수난의 비극을 통감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의 념원을 조선혁명의 대강으로 내세우시고 투쟁의 진두에 나서시였다.

이 땅에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거창한 투쟁의 력사가 시작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광휘로운 주체의 기치가 혁명의 진두에 나붙김으로써 조선의 슬



기는 위대한 힘으로 되고 인민은 싸우면 승리하였다.

인민은 자신의 힘을 믿고 일어설 때 어떤 위대한 힘을 낳는가를 알았으며 용기백배하여 투쟁의 거류에 펼쳐나섰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말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인민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시대와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자신의 힘을 믿고 일떠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인민대중은 자기자신의 력사적사명을 자각하였다.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혁명은 승승장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여 반세기의 기간에 두 제국주의아성, 일제와 미제를 때려눕히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시였으며 인류사의 두 발전단계의 거창한 과업을 실현하는 사회혁명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은 싸우면 승리하고 건설하면 기적을 창조하여 나갈수있었다.

자본주의가 몇백년을 허우적거리며 공업의 지루한 길을 걸어왔다면 우리는 단 14년으로 세월을 주름잡아 사회주의공업화의 위업을 성취하였다.

압박받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세기적락후와 가난을 털어버리고 비약의 나래 활짝 펴 세기의 봉우리를 주름잡으며 인류의 앞장에서 나아가는 슬기롭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이 땅에 창조된 그 모든 정신물질적재부를 주체의 이름으로 높이 부른다.

그 어떤 세계적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는 우리의 강유력한 자립적민족공업을 두고 한랭전선의 영향을 물리치고 해마다 만풍년을 가져오는 우리의 농업을 두고 그리고 만사람이 부러워마지않는 우리의 교육도 예술도 모두다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존엄있는 이름, 주체의 이름으로 자랑높이 부른다.

진정 이 땅에 꽃피는 그 모든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결실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이 땅에 인민의 봄, 주체의 락원을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영예와 감

사를 드리고있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위대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갈 일념에 불타고있는것이다.

인류의 오늘날이 아니라 먼 앞날까지도 휘황히 밝혀주는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 주체사상의 빛나는 날을 따라 온 누리에 찬란한 빛을 뿌린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주체사상은 조선에서 전면적으로 승리하고있을뿐아니라 세계인민들속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을 따라 배우려는 세계인민들의 열망은 날로 높아가고있으며 력사는 자주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선행한 력사적시기 인류는 너무도 오래동안 착취와 압박의 멍에에서 시달리였다. 인민들의 자주성이 무참히 짓밟히우고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도 억압과 예속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지배하였다.

하나 우리 시대는 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수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시대이다.

시대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주체의 사상과 리념은 승리하고있다.

수천년 잠자던 인간의 자주성이 활화산처럼 타번지고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합성이 온 지구우에 차넘친다.

실로 위대한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확고한 자각과 신념을 안겨주었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올바른 해답을 주었을 뿐만아니라 인민들의 실천투쟁에서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위대한 사상이다.

하기에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주체사상을 그토록 높이 찬양하고있으며 이 불멸의 지도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있는것이다.

여기 한 외국의 벗이 쓴 시가 있다.

나의 인사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성의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충성의 노래를 받아주십시오

나는 당신께 가장 아름다운 꽃뭉음을 보냅니다.

나의 마음 끝없이 설레입니다.

그이의 사상은 진정한 빛발

그이의 숭엄한 영상 미래를 밝혀주네

그이는 바로 **김일성** 동지

승리에서 승리로 이끄시는분

그이는 바로 **김일성** 동지

그이는 자유의 예언자

그이는 세계에 한분뿐인 혁명의 령도자

그이는 강철의 의지 지니시고  
혁명가들의 심장속에 정열과 투지와  
힘 안겨주시네

아, **김일성**동지  
온 세계는 그이를 우러르네  
그이는 사상과 리론의 천재,

아, **김일성**동지  
그이는 우리 시대의 해발  
그 해발 모든 그늘 가서주네  
**김일성**동지, 그이는 진정 태양이시네

그렇다. 세계의 벗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 혁명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르며 끝없이 흠모하고있다.

오늘 그들은 주체의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4월의 봄을 노래한다. 그 노래 지구의 위도와 경도를 넘어 만경대로 만경대로 흘러든다.

4월의 봄은 말그대로 만민이 노래하는 위대한 봄이다.

진정 이 력사의 봄이 있어 위대한 주체시대가 열리고 이 영광의 시대우에 인류의 영원한 봄이 꽃피어나거니 우리 인민과 온 겨레의 벗들이 이날을 어찌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로 맞지 않으랴.

참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봄, 4월의 명절이 없었다면 우리 어찌 주체의 조국에서 사는 오늘의 긍지, 오늘의 행복을 꿈엔들 생각이나 할수 있었으랴.

우리의 오늘의 존엄있는 삶도 보다 찬란할 래일에 대한 희망도 그리고 몸이 무르익는 지기 아름다운 거리와 마을, 11년제의무교육의 혜택을 받아안은 어린것들의 랑랑한 글읽는 소리도... 이 땅의 행복한 그 모든것이 력사의 봄 4월과 잇닿아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이날을 맞을 때면 가장 숭고한 마음으로 1912년 그 력사의 봄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인민의 영광의 로정을 돌이켜보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의 봄을 안아오시기 위해 바치신 로고를 두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의 봄을 마련하시기 위해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는가.

설한풍 사나운 고난의 행군은 몇 천몇 만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간의 상상으로는 생각할수 없는 엄혹한 시련을 몸소 진두에서 헤쳐오시였다.

한몸의 피로움과 슬픔도 한가슴에 안고 새기며 오직 인민의 념원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는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

인민에게 행복을 마련하여주시려는 그 한길에서 우리의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낮과 밤이 따로 없으시였으며 쉬는날 명절날이 따로 없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천만가지 인민의 소망을 다 헤아리시고 그 모든것을 다 풀어주시였으며 인민의

행복을 위함이라면 바다도 밀고 산도 옮겨주시였다.

진정 어버이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시는 배려로 하여 우리 인민은 인간이 향유할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차지할수 있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더 없이 행복에 넘친 이 봄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신 그 모든 력사를 돌이켜보며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에 불타고있는것이다.

어떻게 하면 어버이수령님께 한생을 바쳐 충성다 할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루 하루가 어버이수령님께 더 큰 기쁨을 주는 날로 되게 할것인가?

우리 인민은 이 한가지 소망을 안고 산다.

이 나라의 평범한 녀인들이 갓 태어난 새 생명을 받아안고 마음속으로 소망하는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린것이 자라 누구보다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며 누구보다 어버이수령님께 더 많은 기쁨을 드리는 나라의 역군으로 자라는것이다.

《일을 잘해서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려라.》

이 나라의 평범한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이르는 이 말속에는 얼마나 뜨거운 우리 인민의 생활의 신조가 깃들고있는가.

우리가 하는 모든것 일하고 배우고 사는 그 모든것은 오직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하고 기쁨을 드리기 위한것이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은하리 처녀들의 기특한 소행도 오늘의 행복한 은하땅을 마련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것이였고 무산땅 3부자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그들을 은혜로운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안아주시고 모든 행복을 다 마련하여주신 어버이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것이다.

그렇다. 우리 인민은 삶도 보람도 래일의 희망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꽃피우는 한길에서 찾고있다.

하기에 은혜에 넘친 4월의 명절을 맞을 때면 누구나 숭엄한 마음으로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가슴깊이 생각하며 보다 빛나는 위훈으로써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릴 불같은 결의를 다진다.

이 불같은 충성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뭉쳐 온 나라가 다시금 위대한 비약의 나래를 펴나간다.

보라. 4월을 맞는 조국강산을! 이 땅 그 어디가나 강선의 정신 나래치고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제2차7개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수행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릴 하나의 지향이 맥박치고있다.

더구나 이 봄, 북과 남 그리고 해외에 있는 온 겨레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 통일의 광장에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실 불타는 열망을 더욱 높이고 있다.

그리고 언어와 피부색은 서로 달라도 세계의 이르는곳마다 사람들은 자주의 기치 더욱 높이 들고 제국주의도 지배주의도 다 없는 새 세계를 전취하기 위한 보다 굳은 결의를 다진다.

하거니 력사의 봄 4월은 만민이 하나의 지향속에 결의를 다지고 보다 새로운 승리를 약속하는 희망의 봄이다.

만민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력사의 봄 위대한 4월.

이 주체의 봄이 있어 누리에 인류의 영원한 봄이 오거니 만민은 다함없는 충성의 정을 담아 노래한다.

일찌기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 력사의 새 시대, 주체시대를 펼쳐주시고 이 땅에 인민의 봄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높이 칭송하며 일편단심 어버이수령님을 믿고 따를 충성의 노래를

심장깊이 부르고 또 부른다.

이 땅에 아름다운 봄을 주시고  
행복을 안겨주신 우리 수령님  
천만년 흘러가도 하늘땅 변해도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렵니다

세월의 눈비속을 헤쳐오시며  
바치신 그 사랑은 얼마이시라  
혁명의 한길에서 충성을 다하며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렵니다

수령님 모시기에 행복넘치고  
수령님 받들기에 영광 빛나라  
조국의 통일 위해 혁명의 승리 위해  
수령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 송도원에서

정화흠

여기는 동해의 기슭  
맑고 푸른 바다물이 백사장을 스치고  
푸른 솔숲사이로 산새들과 물새들이  
함께 날으며 노래하는곳  
솔숲이 고와서 송도원이냐  
바다물이 푸르고 맑아 송도원이냐  
동해안 천리길은 어디 가나 좋지만은  
여기는 한결 아름다와라

백사장이 아니라 은사장이다  
물결도 기묘해라 금물결이다  
푸른 숲 금물결을 랑옆에 끼고  
아득히 뻗어서 눈부신 은사장  
아, 이런 풍치 이런 조화가  
여기를 두고서 또 있다더냐

생각나누나 일제통치 그 시절  
송도원이 보고싶어 보고싶어서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더란다  
그럴 때면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없이 하늘을 쳐다보셨다

꿈속을 거니는듯 발목을 적시며  
나는 걷는다 뛰어도 본다

지나간 세월 더듬으며 행복에 겨워  
아직은 5월, 때는 이른데  
옷을 벗어던지고 물속으로 뛰어들다

해님이 웃는구나  
바람이 꾸짖는구나  
웃으려면 웃어다오  
꾸짖으려면 꾸짖어다오  
오랜 세월 그려오던 송도원이 아니더냐  
내 무엇을 관계하라

소나무숲사이로  
노래소리 들려온다  
... ..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설레이는 숲이여  
철썩이는 물결이여  
너도 함께 노래하자  
인민의 휴식터로 꾸려주신  
수령님의 그 은덕을 노래하자  
천년만년 그 사랑을 전하여가자

## 그 언제나 수령님 곁에 외 1 편

김홍권

내 찾아가 만난것은  
수도 평양에서가 아니었다  
항일의 그날에도  
준엄한 전쟁의 나날에도  
위대한 수령님을 모셔온 경위대원...

찾아가 만난곳은 북방천리 먼곳  
길들지 않은 오리떼 자유로이 날던곳  
갈대 무성하여 설령이던 호수가  
그가 설 자리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먼곳

끝없는 호수 반짝이는 수면에  
오리떼 구름같이 흐르는데  
그는 묵묵히 노를 젓는다  
물결은 배전에 출렁거리고...

이곳에 남게 된 그 사연  
이곳에 남아 수행한  
호위전사의 그 임무 그 일들  
알고싶어 가슴조이는 이 마음

나의 물음에  
흐르는 오리떼를 보라고  
어버이수령님 바라시는 인민의 행복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라고  
소박하게 웃음짓는 오늘의 지배인

아, 생각하면

이 기슭을 거니시던  
자애로운 그 영상 가슴에 안겨온다  
오리를 길러 인민에게 보내주라  
바라시는 그 한 말씀으로  
여기 먼 호수가에 천위전사를 남겨두신  
그 사랑이여

가까이 모셨던 그날의 생각에 사무치는가  
곁에서 받들어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  
이제는 쉬시라 새벽을 알려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노에 실어 오리떼속으로 헤여가는 투사

아, 그 사랑을 안아서가 아니던가  
오리를 기르며 날리며  
하루같이 이 자리 지켜오게 한것은  
열마리 오리를 백만마리로  
백만마리를 천만마리로 키우며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꽃피워온것은

나는 듣는다-인민의 기쁨 인민의 행복을  
수령님 보위임무로 받아안고  
이 넓은 호수를 오리로 덮어온 이야기  
나는 본다-수령님 곁을 떠나 아무리 멀어도  
수령님 바라시는 바로 그것을 위한곳이면  
호위전사의 임무 살아 계속된다는것을  
천년후에도 만년후에도 그 임무 변하지  
않는다는것을

## 주먹

북변의 메마른 돌밭을 허비며 살던 아버지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준것은  
주먹뿐이었다  
땅덩이도 아닌  
금덩이도 아닌 빈 두주먹뿐이었다

그 몇 입이 매여달렸던가  
그 몇 알몸이 매여달렸던가  
굳은 땅을 뿌지고 나무를 찍고  
풀무를 당기고  
못해낸 일이 있었으랴 이 주먹  
그러나 10전짜리 한잎 만져보지 못한 이 주먹  
베고 누우면 꿈조차 야속하던 이 주먹

땀에 젖어  
눈물에 젖어  
피줄만 굵어질뿐  
끌려가는 누이도 굵어죽는 동생도  
건져줄수 없던 이 주먹  
나라없는 사람에게는 결코  
남을 섬겨야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재산으로 될수 없는  
한낱 돌덩어리

죄없는 땅을 치고  
제 가슴을 치고  
왜놈의 목을 비틀고는 끝내 포승을 진 주먹  
이 세상 처음  
소중히 잡아주는 손길이 있었다

-동포들, 제 손으로 제 나라를 세웁시다!  
강도 일제를 몰아내신 그 손길로  
해방의 봄빛 뿌리시며  
터슬터슬한 이 손을 잡아주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

한낱 돌덩어리 같던 빈주먹  
수령님 사랑의 해빛을 받아  
이 주먹으로 가꾸면  
짓밟혀 수천년 찢겼던 땅이  
부드러운 흙밭로 넘치는 물결로  
튀길듯 영근 낱알로 춤추며 안기어왔고

한숨만 떠돌던 하늘이  
거세찬 용광로의 숨결로  
아슬한 언제에서 떨어지는 폭포소리로  
행복을 싣고 달리는 기관차의 기적소리로  
다정히 속삭이였다

-더 억세게 틀어잡으라 모든것의 주인이여  
더 높이 추켜들라 자주의 주먹을

하늘아래 오만한 원쑤-미제를 내리친 주먹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만들어낸 주먹  
위대한 수령님 따라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운 주먹

아, 이 손은 고운 비단을 만졌고  
귀여운 아기의 볼을 쓸어만졌다  
이 주먹으로 행복의 눈물 씻으며  
리력서를 펴놓고 또박또박 적었다  
살아서 사람값에 못가던 그 이름  
유산없던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 운명의 주인이 못되였던 그날 그때  
잃어버린 그 이름들을...

어버이수령님 소중히 잡아 힘을 주시고  
선조만대의 소원도 풀게 하신 이 주먹  
우리의 큰 주먹은  
이 세상 모든것 웃음으로 안아올리는  
자주와 창조의 크나큰 손이다!

## 산촌의 기다리는 마음은 외 2 편

김석주

그날은 아침부터 몹시 흐렸다고  
가랑비 부슬부슬 내렸다고  
칠순이 넘었다는 로인과 마주앉아  
이고장의 역사를 듣는다

앞문을 열면 벼바다  
뒤문을 열면 강냉이바다  
강냉이바다너머 장더기  
더기엔 방목에서 돌아오는 양떼 염소떼...

그때는 저 앞벌이 돌버덩이었다고  
그때는 저 골안에 저수지도 없었다고  
로인은 수령님 오시였던 그 몇해전  
못잊을 그날을 어제런듯 이야기하고

나는 햇빛 따사로운 창가에 앉아  
풀송구리 헤치시고 더기에도 오르시며  
온 하루 비를 맞으시며 걸으셨다는  
산촌마을 옛길을 더듬고...

개벽이라  
전변이라  
산천은 변하고 다시 변했어도  
로인은 못잊으리라오  
산천도 못잊으리라오

날이 저물어 떠나셨다고  
가랑비 맞으시며 떠나셨다고  
산촌의 밝은 길 열어주시고  
험한 길 헤쳐가신 수령님!

봄에 오시면 백살구꽃철에  
가을에 오시면 금나락 좋은 철에  
수령님 오시면  
오시는 철마다 다 좋고

더기에 오르시면 양떼 염소떼  
저수지에 이르시면 살진 잉어떼  
수령님 걸으시면  
걸으시는 길마다 다 좋으시련만...

이 풍요한 산촌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어버이수령님 모시고싶은  
그 마음 끝이 없어

좋은 때, 좋은 길로 모시고싶은  
아, 산촌의 기다리는 마음은  
더 좋은 전변으로 가는 마음  
더 좋은 앞날으로 가는 마음

## 좋은 고장에 오긴 왔어도

백살구숲 사이로 뻗은  
동구길을 걸으니  
백살구숲 사이로  
문화주택 창들이 웃네

풍요하고 아름다와  
오자 정들었는데  
살뜰하고 다정하여

놀이 살고싶은곳

과수반을 에돌아오르니

처녀들 아홉이나 일시에 말하네

오긴 좋은 고장에 왔어도

너무 늦어 왔다네

-백살구꽃 한창일 때 오실걸...

그때는 정말 좋다오

산에 길가에 집뜨락에

온통 꽃천지라

꽃에, 꽃향기에 묻혀산다오

정말 아쉬운듯 양어장 할아버지

팔뚝같은 잉어자랑 다 잊고

좋은 고장에 면바루 왔어도

너무 일찍 왔다네

-백살구 한창 익을 때 올걸...

그때는 정말 좋다오

백살구 향기에 그냥은 못지나

길가던 손님들도 들려서 간다오

기차 타고 지나던 손님들도 들린다오

꽃철은 지나고

열매철은 일러도

때맞추 나는 왔소

산촌마을 꽃피주신 수령님 그 사랑을

향기로운 꽃으로

무르익은 열매로

고스란히 보여주려는 그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보는 좋은 때 나는 왔소

아, 어버이수령님 꽃피워주신

백살구 향기로운 고장에서

천년은 살듯싶네

## 행복

뜨락엔 갖가지 약초

창밀엔 갖가지 꽃들

리병원 하도나 정갈해

이끌리듯 뜨락에 들어서니

때마침 산실을 나서는 농장아주머니

해빛이 시그러워 안은 아기 실눈을 짓네

집집마다 찾아가서 예방한다오

발머리에 따라가서 치료한다오

자랑도 아닌 소박한 말

은근한 자랑도 섞인 말

친절하고 다정한 간호원을 따라

입원실을 돌아보니 거울같은 장판방에

눈같은 흰 침대보

위생복 눈이 신 간호원의 말

-입원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앓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창효협동농장에서-

# 고향의 밤

리광제

행복한 밤이 흘러가고있어라  
다박솔향기 그윽한 만경대  
멀리 떠났던 형제들 한자리에 모인  
혁명학원의 불빛은 창가에  
고향의 한지붕아래에  
  
생각많은 밤이 깊어가고있어라  
어릴적 발자국 여기에 있고  
받아안은 그 사랑 여기에 있어  
이 밤따라 저 하늘의 별들도  
추억의 오솔길우에서  
무엇이라 자꾸만 자꾸만 속삭이는듯...

세월은 얼마나 빨리도 흘렀는가  
흙웃을 입고 짙신을 끌며  
만경대의 품에 안기던 그 나날  
흘러간 날과 달은 몇몇해던가

잊을수 없어라  
철없던 어린 시절  
아버이 수령님 학원을 찾아주시던  
봄날의 이른아침을-

감격에 기쁨에 목이 메어  
수령님 품에 안기는  
우리들을 안아주시며  
다정히 머리를 쓸어주시며  
환히 웃으시던 자애로운 그 영상

하늘가 저 멀리  
노을은 불타는데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원장에게 하시던 수령님의 말씀이어

-많은 아이들을 맡겨두고  
내가 자주 찾아오지 못해 정말 안됐소...

아, 철따라 새 옷을 주시고  
비바람 사나운 저녁이면  
전화까지 걸어주시던 수령님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날의 그 말씀  
우리들을 소리없이 울게 하였던가

지난날 찬비를 맞으며  
생활의 거친 물결속에 헤매이던 우리  
태를 묻은 땅은 있어도 집은 없어  
태어난곳은 있어도 고향은 없어

만경대의 불빛은 창가에서  
우리는 고향과 집을 찾은 몸  
수령님 탄생하신 성스러운 땅에  
눈물을 모르는 우리의 어린시절이 있었어라

고향의 밤이어라  
이 밤도 어릴적 그날처럼  
아버이수령님의 사랑 우리를 안아주시고  
어머니당의 부드러운 목소리  
조용히 가슴을 적시고...

천년을  
만년을  
그 사랑, 그 은정 못잊어  
잠못드는 이 밤

인민의 마음의 고향  
만경대의 정든 집에  
아들의 더운 눈물 방울지는  
아, 고향의 밤이어



# 미래의 당부앞에 외 1 편

오영재

채탄의 막장에서

받아보는 편지-

너도 인차를 타고 내려

긴 갯도길을 거쳐

우리의 손에 왔구나

유압의 동발밑에서

펼쳐보느라면

책받치개 깔고 또박또박 박아 썼을

아이들의 편지

-탄부아저씨들

석탄을 많이 캐주세요

불현듯 생각나네

눈덮인 초소

해발고 높은 고사총진지에서

받아보던 그 편지

-인민군대아저씨들

조국을 튼튼히 지켜주세요

아, 미래의 천진한 당부가 깃든

조국의 가장 어려운 전선에서 전선으로

우리의 젊음은

벽차게 흐르고있구나

글쭉마다 어리는

까만 눈동자, 간절한 눈동자

어버이수령님께 기쁨드리는

그것의 성스럽고 영예로움을

그리도 일찍부터 지닐줄 안 가슴들

충성으로 아름다운

새세대의 마음이어라

그것으로 더 사랑스럽고 순결한

우리의 사회 정다운 조국을 위해

더 많이 캐내리, 귀한 땀 흘려

석탄을 위해 마음 기울이시는

수령님의 그 깊으신 뜻

아이들아, 너희들이 다는 모를수 있어도

다 모르는 그 사랑의 한품에서 자라고 커서

놀랍게 변한 조국을 볼 때

알게 되리라

그 어떤 값있는 회답을

우리 너희들에게 보냈는가를...

## 조국은 나의 어깨우에 있다

탁아소의 포근한 요람속에서

인형아기 품에 안은채

잘 자라, 우리의 귀여운 아기들-

지금은 밤 12시

채탄기는 돌아간다

교대없는 건설장

기중기의 신호등은 긴 원을 긋고

원양의 선단들은

파도높은 밤바다를 가르며 나가기

탐구로 지새우는 학자들의 손끝에서

실험실의 유리관은 조용히 떨리고

시추기는 이름없는 골짜기에서

래일의 청춘도시를 그리고있으리-

지금은 밤 12시

채탄기는 돌아간다

산상에 우는 고압의 철탑

봄날을 꿈꾸며 잠든 대지

몸맵시 아름다운 정방공처녀들이

직포기사이로 바람처럼 달리고

수송렬차의 땅울림

고르로이 파동쳐오는

조국이며, 그대 귀중한 모든것이

나의 어깨우에 있다

꽃피라, 땅우의 모든것이여

확신에 찬 미래를 향하여

비약하며 전진하라

빛나는 주체의 새시대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위업으로

흐르는 이 땅의 새 력사여

우리는 젊은 20대

충성은 불같이 뜨겁고

사랑은 차넘쳐 피끓는 가슴들

번영하는 조국이며

전진하는 시대여

그대를 위해 그대를 떠받들며

우리는 이 막장깊이 삶의 뿌리를 내리우리

들려온다, 혁명의 세찬 고동소리

느껴와라, 조국의 후더운 숨결

막장에 차고넘쳐라

로동의 보람, 땀의 가치, 생활의 희열

운전대는 우리 손에 힘있게 쥐여있다

지금은 밤 12시

채탄기는 돌아간다

-룡림탄광에서-

## 일터

백남룡

멀리 지평선너머 불타는 노을이 꽤속으로 달리는 열차의 창문마다에서 어리광을 피운다. 비온뒤의 맑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들었다.

들판과 야산들이 황혼속에 멀어져갔고 검푸른 파원을 배경으로 아담한 농촌문화주택들이 펼쳐지는가 하면... 어느덧 노을빛속에 잠긴 산간도시가 다가오기도 했다.

《동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와 마주앉은 짧은 상고머리를 한 스무살전의 어린 청년은 벌써 두번째로 묻는다. 열정에 타는 그의 눈은 분명히 자기가 주장한것에 대한 긍정적대답을 바라는듯싶었다.

그의 옆에 앉은 처녀는 윤택이 흐르는 검은 머리를 쓸어만지며 호기심어린 눈길로 나를 쳐다보고있었다. 처녀의 아름다운 눈은 습관적으로 깜박이군했다.

세번째 손님, 나의 옆에 앉은 나이 지긋해보이는 청년은 아까부터 줄곧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사람들은 직업도 성격도 나서자란곳도 여행의 목적도 다르지만 두줄기 께도우에선 하나의 즐거운 집-열차에 오르면 인차 친근해지고 흥금을 터놓게 된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딘가 명상적인데가 있어보였다.

나는 잠자코 생각에 잠겼다. 인간의 삶에 대하여... 세월이 흘러도 시대와 조국과 인민의 추억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의 참다운 삶을 두고.

상고머리청년은 자기와 자기의 주장을 열렬히 변호했었다. 그는 지금 우리 나라 서북부내륙지방에 일떠설 발전조건설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부전령기슭의 어느 산촌에서 양물이를 하는 처녀는 긴 속눈썹을 내리깔며 섭섭해하였다. 그는 상고머리청년의 의견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삶의 가치가 직업과 일터와 환경에 따라 좌우된다는데서는 반대였다.

나에게는 그들이 자기의 견해에 대한 옳은 근거를 가지고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있어 인간의 삶의 성격을 특징지을 하나의 정의를 내리고싶어하는것이다.

이런 때는 명확한 철학적론리보다도 생동한 생활적사실이 더 힘있는 론증으로 뿔터인데 나에게는 그러한 생활의 추억이 없었다. 사회에 대한 커다란 흥미와 포부를 안고 고향농촌으로 돌아가는 제대병사인 내가 이들에게 과연 무슨 의의있는 말을 해줄

수 있을것인가.

나는 이 열렬한 론쟁의 주인들보다 나이가 퍼그나 우이지만 사회생활에서는 초학도인것이다.

《허, 난 아무래도 곤난하오...》

《그럼 동지는요?》

상고머리청년은 나의 옆에 앉은 그 명상적인 청년을 향해 물었다.

나를 돌아보는 그 청년은 몹시 난처한듯 열적은 미소를 지었다. 검은 바탕에 흰 줄무늬가 보기 좋게 건너간 넥타이를 단정히 맨 그의 얼굴은 네모지고 구리빛이었다. 넓고 든든해보이는 가슴에서는 로동에서 단련된 체취가 풍기었다.

《동지는 일곱정거장을 내쳐 아무말 없이 앉아오지요.》

상고머리청년은 은근히 불만을 나타냈다.

《허, 이젠 사람을 아주 밍게 볼 차비군, 그럼 아무 이야기나 좀 할가요...》

뜻밖에 그는 자리를 고쳐앉으며 시원히 말했다.

《동무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소... 이젠 내자신의 이야기요.》

청년은 머리를 천천히 쓸어넘겼다.

어둠이 깃을 편 끝없는 공간속으로 달리는 열차의 소음은 그를 깊은 추억속으로 이끌어가는듯싶었다.

X X

낮이면 들판으로, 강가로, 산으로 지칠줄 모르고 다니던 꿈많은 유년시절이었다. 신비로운 현상을 무수히 간직한 자연은 어린 소년을 유혹했다. 이름 모를 풀들과 꽃들의 향기로 가득찬 여름밤이면 소년은 노그라지는 달콤한 잠마져 잇는다. 소년은 캄캄한 어둠속에서 보석처럼 파르스름한 불을 반짝이며 떠다니는 《깨지별》을 쫓아 마을앞 들판까지 나가군했다. 거기에는 아름답리 황철나무들과 키높은 백양나무들이 밤이고 낮이고 줄창 서있었다. 마을의 안정과 고요를 지켜선듯한 그 나무들은 늘 소년의 마음을 끌었다.

어느날 밤, 소년은 하늘의 절반을 가리운것 같은 무성한 우듬지들이 펼쳐진 황철나무에 올라갔다. 거기서는 알수 없는 비밀과 수수께끼로 가득찬 거대한 우주가 더 가깝게 보였다. 호기심어린 검은 눈을 반짝이며 주위를 살펴보던 소년은 갑자기 기이한것을 발견하였다. 어둠에 잠긴 초원 저쪽 별들이 손에 닿을듯 낮게 매달린 그곳에서는 희고 누르고

붉은 구름이 타래치고있었다. 사방은 온통 밤인데 거기만은 대낮인것 같았다.

(무엇일가?...)

소년은 어리둥절하였다.

얼마후, 그곳이 아버지가 다니는 제철소쪽이라는 것을 알자 소년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수 없었다. 그 기이한 현상을 이해하고싶었고 이름짓고싶었다. 그러나 소년의 머리속에는 아무런 적중한 말마디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고 뒤머리를 긁으며 오래도록 그쪽을 바라보았다.

문득 마을쪽에서 그를 부르는 어머니의 조심에 찬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단잠에 든 마을을 깨울가봐 저어하는듯 조용히 부르는 어머니의 음성은 현악기의 부드러운 줄을 튕겨놓은것처럼 은은하게 황철나무쪽으로 가까이 온다.

《영-림-아!-》

소년은 숨바꼭질이나 하듯이 나무줄기를 안고 몸을 숨겼다. 어머니를 놀래우고싶은것이다.

막내아들의 순진한 꾀를 알지 못하는 어머니는 황철나무밑에까지 와서도 아들을 찾는다.

영림은 두손을 오그려 입에 대고 불었다.

《부-영!》

어머니는 깜짝 놀라 나무우를 쳐다본다. 그래도 소년은 숨을 죽이고있었다.

갑자기 아버지의 근심에 찬 우렁우렁한 음성이 들려왔다.

《못찾았소?》

《없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집에 있는데...》

《어델 갔을가?...》

《부영! 부-영!》

《허, 영림이요. 장난군같은니 어서 내려오나라.》

《그런걸 난... 참 애두 배고프지 않느냐?》

어머니의 기쁨에 젖은 목소리.

그러나 소년은 나무줄기를 부여안은채 자기의 발견을 소리높이 자랑했다.

《아버지, 저길 좀 봐요. 제철소가 온통 불속에 잠긴것 같애요. 야! 얼마나 굉장해요. 하늘이 막 타는것 같애요.》

《그걸 보구 제철소의 밤노을이라구 한다... 시인들도 노래하군하지.》

아버지의 말에 소년은 놀라서 입을 꼭 다물었다. 너무도 단순하고 적중한 표현이었다. 소년은 자연이 마음내키면 그려놓는 아침과 저녁노을의 기묘한 형상과 색깔들을 죄다 기억하고있었다. 하나 그 모든것들은 철의 도시의 밤하늘에 펼쳐진 저 아름다운 노을보다는 훨씬 못하였다.

《아버지, 밤노을은 어떻게 생기나요?》

《사람들이 만들지.》

《누가요?》

《제철소사람들이.》

《아버지두?》

《그럼, 나두.》

호기심에 불타는 어린 소년은 사진과 같은 진실을 보고싶었다.

다음날 영림은 아버지를 따라 제철소로 갔다.

밤하늘을 물들이는 그 붉은 섬광은 흰 방열복에 보호안경을 쓰고 길다란 쇠장대를 손에 든 멋진 용해공들이 만들어내고있었다.

아버지는 쇠물이 없는 낡은 로안에서 엉겨붙은 쇠물깡치와 내화물들을 꺼내고있었다. 증기처럼 뿜양게 서리는 벽돌가루, 내화먼지, 채 식지 않은 로에서 풍기는 뜨거운 열기로 하여 아버지의 얼굴은 땀에 얼룩졌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축로공이라고 불렀다.

밤늦어서 아버지와 함께 돌아오는 영림은 웃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어른이 된듯이 생각에 잠겨 아버지와 걸음을 맞출뿐이었다.

《영림아, 피곤하니?...》

《밤노을은 아버지가 안만들어!》

소년은 대뜸 울먹해서 내질렀다.

《허허, 너석두... 쇠물을 뽑는거나 로를 수리하는거나 마찬가지다.》

《아버진 내내 그 축...로공을 했나?》

《그럼.》

《앞으로두?》

《그러지 않구.》

《.....》

세월은 흘렀다.

소년은 열여덟살이 되었고 아버지의 머리에는 서리가 내렸다.

어린 소년이 수년간 마음속에 간직해온 희망이 성취되는 날은 왔다.

제철소에 입직한 날 밤, 영림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희망에 부른 그의 마음은 제철소에서 돌아올 아버지를 초조히 기다리고있었다.

이윽고 복도에서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영림은 아버지의 귀익은 발자욱소리를 가늠했다. 사이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담배내 섞인 아버지의 체취가 풍겨왔으나 영림은 자는척했다.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다. 아버지의 얼굴표정이라든가 말 한마디에 의해 모든것이 결정되기때문이었다.

유년시절의 그 잊을수 없는 날부터 영림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 다시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막내아들의 온갖 무리한 요구와 응석을 언제나 사랑스레 받아주던 어머니한테서 꾸짖음을 받았던것이다.

영림은 지금 두눈을 가느스름히 쏘프리고 속눈썹사이로 아버지를 내다보았다.

의자에 앉아 희스희스 세인 머리를 쓰다듬고있는

아버지의 얼굴은 여느때와 다름없었다. 그러나 영림에게는 어쩐지 더 늙어보였다. 하긴 축로일에 한 생을 바쳐온 아버지였다. 영림은 얼마전에 년로한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라는 지배인의 권고를 마다하고 축로의 기술고문으로 제철소에 남았다는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공연히 그랬지, 이제 쉬어야겠는데...)

영림은 눈을 살며시 감았다. 문득 그의 얼굴에 아버지의 굳은살이 배긴 손이 닿았다. 딱딱하고 투박한 손길이였으나 따스했다.

영림은 저도모르게 눈시울을 바르르 떨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자지 않는구나...》

준섭은 미소를 지으며 막내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일어나렴.》

아들은 장판방에 올방자를 틀고 아버지와 마주앉았다.

준섭은 대견스레 아들을 지켜보기만 했다. 성장한 아들을 보는 은근한 기쁨이 그의 주름잡힌 눈가에 실려 있었다.

영림은 아버지가 무슨 좋은 일이 있는듯 전에 없이 만족해한다는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굵은 손가락을 옷주머니에 밀어넣더니 접은 종이를 꺼냈다.

《네 배치장이다.》

영림은 다급히 받아읽었다.

(리영림, 로봇수직장 축로공...)

영림은 눈앞이 아찔했다. 다시금 읽어보아야 잘못 보지는 않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있지 않는가. 분이 치밀었다. 아버지는 무엇때문에 그리도 만족해하는것일까...

《나의 사회생활은 이렇게 시작되었소. 사람들의 얼굴도 쇠물빛에 물든듯싶고 오직 철, 철만 뿜어내는 웅장한 기업소-제철소에서 유독 벽돌을 만지는 사람이 바로 축로공이요. 용광로, 평로, 전기로... 등 불가마를 수리하는 일, 정확히 말해서 용해공들이 실컷 쇠물을 뽑아먹고 다 껴진 로를 허물고 새 내화벽돌과 내화물탈로 다시 쌓는 일이요. 로봇수작업은 세계야금력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수공업적로동이지요.

난 용해공이 된 사진을 보내달라는 동창생들에게 편지를 쓰지 못했소. 학교를 졸업할 때 온 나라가 다 아는 용해공으로 이름을 떨치겠다고 큰소리를 친 나로서는 그들에게 축로공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루루히 설명하자니 참을수 없이 안타까와지요.

그러나 싫건중건간에 난 아버지의 견습공이 되었소. 난 엄격하고 소박한 아버지를 몹시 존경하지요. 아버지는 예순이 넘도록 축로일을 해옵니다. 아버지의 손은 미술가들이 소묘하지 않고는 못견딜 훌륭한 모델이요. 힘줄이 툭툭 불거진 솜뽕같은 그

손은 내화벽돌 웅근 한장을 감싸쥐고도 남을만큼 크고 억세오. 아버지는 축로일의 능수지요. 로를 쌓는 아버지의 모습은 자기의 예술적창조물에 대한 즐기찬 정열로 조각대앞에 서서 탐구적열정과 재능을 쏟아붓는 조각가를 방불케하지요. 조각가에게는 수십가지의 기묘한 조각칼들이 도움을 주지만 축로공은 손마치 하나면 됩니다. 이등변삼각형, 제형, 평행사변형으로 벽돌을 매끈히 잘라서 타원형의 커다란 쇠물가마를 빈틈없이 쌓아야 하는겁니다. 칼날같은 틈사리도 있어서는 안되지요. 쇠물이란것은 꺾쪽한것 같아도 천길땅속에서 솟아오르는 용암의 분출처럼 틈사리만 생기면 빠져나가오...

난 아버지의 일숨씨에 마음이 끌리기도 하였지만 날이 감에 따라 차츰 흥미가 없어졌소. 비둘기 콩밭 생각한다고 마음은 출장 용해장에 가있었지요.

평로용해작업을 본적이 있는가요?... 꼭 와보오. 자기 손으로 강철을 녹인다는건 아주 거창하고, 매혹적이고, 심장이 들먹거리는 일이지요.

...어마어마한 땅크와 같은 장입대차가 파고철을 무드기 담은 바가지를 꼬나들고 불길에 룡트림하는 장입구로 돌진합니다. 거의 2천도의 식물을 품은 평로는 용해공의 가슴처럼 활활 열기를 내뿜고있지요. 지심을 울리며 육박하는 자동장입차의 그 장쾌한 모습, 열풍, 배기가스의 소음, 희고 붉은 나비들이 무수히 날뛰는 쇠물의 파도... 용해장은 바람을 안은 밀림처럼 뒤설레입니다.

아담한 조종실, 여러가지 색의 신호등과 자동기록계, 산업텔레비존, 조종단추와 무선전화기들이 그뿐하니 놓인 방에는 흰 샤쓰에 넥타이를 맨 용해공이 폭신한 의자에 앉아서 모든것을 지켜보지요. 용해작업을 땀 한방울 흘리지 않고 원격조종한단말입니다. 그가 산업텔레비존에 나타난 쇠물상태를 보고 록색단추를 누르면 장입차의 쇠물배가 긴팔을 내저으며 사람처럼 슬라크를 굵어내기도 하고 석회석을 적당히 던져넣기도 하지요. 사나운 맹수처럼 길길이 뛰던 쇠물의 파도는 용해공의 보이지 않는 손탁에 양순해지요. 꺾쪽한 앙금이 한벌 깔린 쇠물은 시뻘겋다 못해 하얀 빛으로 이글거리지요. 이런 때면 모든 조종기구들은 움직이지 않고 잠잠하지요. 옛가마를 줄이듯이 쇠물을 더 순수하게 줄이는 시간이니까요....》

청춘을 유혹하는 용해장의 그 벽찬 생활은 불앞에 있었다.

그러나 영림은 비록 마음내키지 않는 걸음이었지만 한번 내디딘 그 길을 쉽게 변경할수는 없었다. 직장장이며 로임과며 지배인의 결재까지 받아야 하는 복잡한 문서는 둘째치고라도 아버지의 기대를 배반하기에는 용기가 모자랐다. 시간이 필요했다. 그때면 아버지는 아들의 포부를 리해해줄지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또 자존심이 허락치 않았다. 사회의 첫 일터에서 물려선다 하여도 축로공들이 자기를 두고 비웃거나 동정하지 않도록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고 싶었다. 그들이 자기에 대해 불쾌한 인상보다도 소중한 추억만 간직하도록... 그러면 용해장에 가서도 량심의 그늘은 없을게 아닌가!

날은 더디게 흘러갔다. 그 하루하루는 우주의 철칙에 따르는 시간의 흐름이었지만 영림에게는 애타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날, 영림의 우울한 가슴에 밝은 빛이 스며들었다. 작업반에서 기능등급판정을 받게 된 것이었다. 매 축로공이 자기 일에 대한 재능과 질, 량, 기술적요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축로리론의 파악... 등의 점열이었다.

영림은 은근히 기뻐다. 그는 작업반에서 제일 막내급수였던것이다. 하나 다른 축로공들보다 못할 이유가 어디 있으랴. 도대체 축로일이란 어렵고 신비한데가 없는것이다.

판정점열원은 세사람이었다. 직장장과 로임과의 지도원, 그리고 축로의 가장 높은 급수를 가진 기술고문인 아버지.

2호평로의 축조작업이 시험이었다.

작업구령이 내리자 영림은 마치친 손을 번개처럼 돌려 내화벽돌을 쌓아나갔다. 한돌기 또 한돌기... 타원형의 평로는 사각물림의 벽돌만으로는 안된다. 쉼기벽돌을 매번 정확히 잘라써야 했다.

영림은 벽돌사이의 귀잡이를 물릴 때마다 한눈을 지그시 감고 손마치날로 멋지게 갈라내곤하였다. 그는 한번 결논조차 팔지 않고 일에 열중했다.

저녁에 일이 끝났을 때 영림은 자기가 다른 축로공들보다 서너돌기는 더 쌓았다는것을 알았다. 그는 흥분된 눈길을 감추지 못했다.

작업반원들이 물려선 가운데 판정원들은 매 사람들이 작업한것을 돌아보았다.

누구나 우수했다. 영림이 차례였다. 직장장은 만족한 표정으로 영림의 어깨를 툭툭 쳤고 로임과의 지도원은 영림의 작업성파에 감동되어 《기능공들보다 낫소, 나아...》 하고 말했다.

준섭은 아무말이 없었다.

사람들은 이 오랜 축로공이 자기 아들의 빛나는 성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준섭은 아들이 쌓은 로벽에 다가섰다. 굵은 나무뿌리를 련상시키는 그의 짙 벌린 손이 로벽을 천천히 더듬고있었다. 벽돌귀가 떨어진 자리들에서 준섭의 손은 움직일줄 몰랐고 얼굴은 점점 어두워지였다. 준섭은 말없이 발판아래를 본다. 거기에는 비뿔게 갈라진 벽돌들과 귀떨어진것들이 수북하였다.

《이건 어떻게 된거냐?》

《마치루 자르다 남은거지요.》

아들은 태연히 대답했다.

《마치루?...》

《.....》

사람들은 침묵속에서 축로기술고문과 그 아들을 지켜보았다.

준섭은 힘겨운듯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넌, 시험을 잘못 치렀다.》

《...?》

《일본새가 글렀다. 그만큼 말했었는데 왜 벽돌을 닦알 다루듯 하잖느냐? 마치루 아무렇게나 자르는데 말이다! ... 다른 축로공들이 쌓은것을 봐라. 로벽이 대패질한것 같지 않냐.》

영림은 눈물이 나올듯싶게 속이 울컥하였다. 로벽이 두터운데 귀떨어진것들이야 새발에 피가 아닌가... 사람들이 많은데서 아버지는 너무한다. 영림은 눈길을 내리깔았다.

아버지의 음성은 날카로왔다.

《알아두어라. 축로공의 성실성에 따라 로의 수명이 결정되고 쇠물의 톤수도 올라간다. 그런데 로를 제 살불이처럼 여기는 마음이 너에게는 없다... 시험은 락제다.》

준섭은 아들을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물려선 사람들은 누구도 영림이를 두둔해줄 말을 찾지 못했다. 직장장만이 영림이의 어깨를 아까처럼 가볍게 두드리주었다. 그를 탓하는것인지, 괜찮다는것인지, 힘을 내라는것인지 딱히 알수 없었다...

...영림은 밤 늦도록 로보수직장의 휴계실을 떠날줄 몰랐다. 터질듯한 울분의 모대김이 차츰 진정되자 마음은 쓸쓸하고 허전해졌다. 어디선가 궁궁 소음이 들려왔다. 그는 한참이나 귀를 기울여서야 비바람소리와 평로의 열풍기소리를 새겨들었다.

(또 한차지 쇠물을 녹이는구나...)

영림은 묵묵히 서있었다. 비발이 휴계실 유리창을 찰싹찰싹 때렸다. 그는 맥없이 모자를 눌러썼다. 밖으로 나서자 비줄기는 곧 그를 둘러싸버렸으나 영림은 이동속보관들이 늘어선 구내길로 천천히 걸었다.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주철가로등두리에서 부나비들이 안타까이 룰을 그리고있었다.

제철소정문을 나선 영림은 우뚝 걸음을 멈췄다. 희뵤한 어둠속에서 우산을 받고 서있는 사람이 있었다.

《영림이냐?》

《...!》

아버지였다. 두사람은 말없이 서있었다. 고즈닉이 비내리는 소리, 우산을 두드리는 비방울소리...

《여기 들어서려무나.》

《.....》

《어서!》

《난... 그냥 가겠어요.》

《…………》

영림은 아버지걸을 멀찍이 에돌아 가로수밑으로 걸었다. 모자채양으로 비물이 줄줄 흘렀고 어깨와 잔등이 축축해났다. 그래도 어쨌선지 속이 편했다. 자기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는 냉정한 아버지의 보호를 받기보다는 이런 무모한 자립성이 더 낫게 여겨졌던것이다. 그러나 주철가로등을 몇개 지나지 못해서 저도모르게 발걸음은 떠졌다. 보이지 않는 억센 손이 그의 어깨를 끌어당기는것만 같았다. 문득 영림은 아버지를 모욕한것만 같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순간 가슴이 찢르르해났다.

외등이 비치는 제철소정문 어귀에는 아버지가 우산을 받지 않은채 비속에 꼼짝 않고 서있지 않는가. 영림은 급히 고개를 돌렸으나 발걸음은 천근같이 무거웠다. 그러나 그는 나약해지는 자존심에 채찍질했다.

주룩주룩… 비내리는 소리.

처벌처벌… 물창을 밟는 무거운 발걸음소리…

경황없이 무턱대고 걸음을 내짚어서 물탕이 튀어 올랐건만 영림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채 걷기만 하였다.

집안에 두사람이 흠뻑 젖어서 저마끔 들어온것을 본 어머니는 놀라서 물었다.

《아니?!… 여보 참, … 우산이 뭐 지팽이인줄 아시우?》

《…………》

남편과 아들의 표정을 번갈아 살피고난 너인은 아무말없이 옷장을 열고 마른 옷가지들을 내놓았고, 더운 국을 떠가지고 올라와 밥상을 차렸다.

아버지와 아들은 비에 젖은 옷을 입은채 책상을 마주하고 서있었다.

담배를 꺼내는 준섭의 손은 가늘게 떨렸다. 옷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어 그였으나 불은 일지 않았다. 준섭은 젖은 성냥을 책상우에 던지고는 입에서 담배가치를 뽑았다.

《그래… 우산을 쓰지 않으니 마음이 후련했니?》

《날… 용해공으로 돌려주세요.》

《좋다. 용해직장에 가겠으면 가라! 반대없다… 그런데 넌 무엇때문에 축로열을 모독하면서 가겠다고 하는거냐?!》

《…………》

준섭은 다시금 성냥을 집어 그였으나 화약종이가 쫑 찢어져나갔다.

책상우선반에서 다른 성냥을 성급히 더듬어내리는 바람에 통이 떨어지며 연필들이 책상우로, 장판방으로 굴러내렸다.

준섭은 한참이나 담배만 태우고나서 길게 거친 숨을 토했다.

《너한텐 낡은 로를 허물고 쌓는것이 하찮은 일이

란말이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려고 하는가가 보다 중요하다.》

《사람들은 제철소 하면 쇠물과 용해공을 알지 축로공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단말이나?…》

준섭의 음성은 나직했으나 분노와 긴장이 팽팽히 에워있었다.

《난 제철소의 보조직장에서 벽돌을 쌓을바엔 차라리 큰 건설장에 가서 본때있게 일하겠어요.》

《뭐라구?!… 에-익!!》

순간 영림의 눈앞이 번쩍하더니 귀뿌리가 얼얼해났다.

《이 못된 자식아, 썩 내앞에서 사라져!…

그래 부끄럽지도 않느냐?! 기능급수관정은 단순히 채능과 숙련에 대한 검열이 아니다. 축로공으로 어떻게 일할수 있는가 하는 마음을 검열받는거란말이다… 그렇게 일하는 네가 용해공이 된들 무슨 큰 일을 하겠니! 엉?!》

아버지의 음성은 노기로 떨었다.

영림은 그만 눈물이 복받쳐올랐으나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참았다…

제철소청년은 말을 그치고 차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겨있었다.

누구도 그에게 이야기를 재촉하지는 않았다.

용해공이 되려는 열렬한 지향, 영예, 긍지, 분노, 고민과 슬픔이 깃든 제철소청년의 생활의 굴곡에 대한 공감의 좌석의 분위기를 휩쓸것이다.

《우리의 생활에서는 무수한 밤들이 지나가고 또 흘러갑니다. 그러나 추억의 갈피에서 잊혀지지 않는 밤은 얼마 안되지요.

나에게는 지금도 그날밤이… 창밖에서 비내리는 소리가 들리고, 부나비들이 유리창에 달라붙던 그 밤이 생생히 떠오르지요. 나는 어머니의 나직한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잠못 이루고있었소. 옷방, 아버지의 방은 고요했소. 그러나 아버지는 자리에 눕지 않은 모양이었소. 이따금 무엇에 놀린 의자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사이문잠으로 짙은 담배연기가 스며나왔지요…》

…영림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난생처음 아버지한테서 손찌검을 당한 마음의 아픔보다도 자기의 소중한 꿈을 들어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더 가슴을 아프게 굽어내렸다.

제철소에서 돌아오면 어린 그를 목마태워주던 아버지, 산벼랑에 핀 철쭉꽃을 욕심내며 꺾어달라고 하는 막내아들의 철없는 소원마저 고스란히 들어주던 아버지… 유년시절, 소년시절, 그의 기억에 새겨진 아버지는 얼마나 부드럽고 너그러웠던가.

이렇듯 다심하고 애정에 넘친 아버지가 어찌하여 지금, 아들의 미래와 관련되는 문제에서는 차거운

지 몰랐다. 영림은 아버지가 머리세도록 걸어온 하나의 길을 상상껏 더듬어보았다. 축로일에서 시작이 되고 오늘에 이른 변화가 없는 단순한 그 길에는 과연 어떤 보람과 긍지와 희열이 있었던말인가...

옷방에서는 나직하고 웅글은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의자가 삐걱거리고 담배연기가 새어나왔다.

아버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영림은 가슴이 쓰렸다.

(그래 그것이 과연 나의 잘못이란말인가...)

영림은 서글퍼졌다. 소박한 아버지에 대한 런던의 정이 그득히 스며올랐다. 어쩐지 아버지는 결코 아들이 빗나가게 이끌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막내아들에게 매를 내리지 않으면 안될 고귀한 그 무엇이 가슴깊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것은 자식의 꿈보다, 희망보다, 운명보다 소중한것이었다. 아니, 바로 거기에 아들의 찬란한 미래가 있을지도 모른다...

달콤하고 아늑한 사색은 언제나 잠을 빨리 청한다. 영림은 어느새 혼곤히 잠들었다. 영에도, 불안도, 꿈도 다 잊어버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누구인가 꿈속에서 그를 찾는다.

《애야... 애야...》

그는 눈시울을 무겁게 떴다.

《애야... 영림아.》

꿈속이 아니였다. 비내리는 소리에 비낀 어머니의 정다운 부름소리였다.

《오늘은 좀 일찍 출근하려무나.》

《... ?》

《아버지는 새벽에 나가셨다.》

《어데루요?》

《제철소에.》

《왜요?》

아들을 측은히 내려다보는 어머니는 나직이 한숨을 쉬었다.

《넌... 아직... 아버지 성미를 잘 모르는구나...》

...제철소는 쇠불이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다. 아침의 정적속에서 하늘을 꿰치르고 솟은 평로굴뚝들만이 새김질이나 하듯 흰연기를 뭉게뭉게 내뿜고있었다. 영림은 곧바로 어제 시험을 치던 평로보수장에 갔다.

드디어 가슴을 조이던 불안과 초조감이 현실로 나타났다. 영림이가 쌓았던 로벽에서 혼자 조용히 일하고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분명했던것이다. 아버지는 벌써 마감돌기의 벽돌들을 다듬어세우고있었다. 로벽은 틈새기 하나 없이 반반하고 매끈했다.

영림은 말없이 서서 아버지의 뒤모습만 지켜보았다. 흰서리가 내린 뒤머리는 땀발에 흥건히 젖어있었다. 목이 껍 메어왔다. 그 많은 내화벽돌들을 다

허물고 다시 쌓자면 얼마만한 정력이 든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영림이었다. 아들의 마음에 진구김살을 퍼주려고 온밤 로벽을 한장한장 다시 쌓았을 아버지에 대한 죄스러운 감정이 몰밀듯 밀려들었다. 영림은 팔을 걸어붙이고 아버지옆에서 내화벽돌을 차근차근 쌓아나갔다.

아버지는 아들을 한번 쳐다보지도 않은채 묵묵히 일손을 놀리고있었다. 고요속에서 벽돌을 다듬어세우는 규칙적인 소리만 울렸다.

《저... 아버지...》

영림의 목소리는 입안에 갇아들었다.

《아버지... 조반을 휴게실에... 국이 식겠어요.》

《마져 쌓자.》

아버지의 목소리는 보통때와 다름없이 나직하고 푹푹했다. 그러나 그 음성에 울리는 부드럽고 따듯한 정은 아들의 불안한 가슴을 녹이며 포근히 스며들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깨끗이 일을 마감지었다.

그날, 용해공들은 축로공들이 보수한 평로에 쇠물을 끓였다.

영림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 용해장으로 갔다. 200톤은 착실히 되는 쇠물을 가슴에 품은 평로는 쇠씩하며 만족한 트림을 하고있었다.

장입구앞으로 다가간 준섭은 보호안경으로 한참이나 쇠물을 들여다보았다. 쇠물빛에 물든 그의 얼굴에는 어느덧 흐뭇한 기쁨이 어리고있었다.

《히, 한국자 맛을 볼 때도 됐군. 잘 익었어... 영림아, 저 쇠나비가 막 춤추는걸 좀 들여다봐라!》

영림은 이렇듯 희열에 잠긴 아버지를 처음 보는 듯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에 아버지의 얼굴이 그렇게 젊어 보이고, 긍지에 넘쳐있는지 어렵듯이 깨달아졌다.

저녁이었다.

영림은 푸름한 외등이 비치는 제철소정문에서 생산협의회에 참가한 아버지를 오래동안 기다렸다. 검회색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많았다. 정문철기둥우에 높이 단 고성기에서는 새 7개년계획수행에로 부르는 격동적인 선율이 흘렀다. 생각이 깊어지는 밤이었다.

제철소구내길 저쪽에서 아버지가 나타났다. 구부정한 체격, 무거운 걸음걸이... 평소와 다름없는 아버지다.

영림은 어린시절의 어느 한때처럼 금시 달려가 아버지품에 안기고싶었다.

그러나 아득히 흘러간 시절의 애틋한 철부지감정은 이내 사그라들었다. 그는 아버지 시선을 피하여 고개를 숙였다.

《영림이냐? ...히, 녀석두, 비맞은 장닭처럼 휘주근해서...》

《.....》



《기다렸니?》

《…………》

《자식두, 지금이 몇시냐 먼저 갈게지… 어서 자자.》

아버지와 아들은 어깨를 스치며 나란히 걸었다.

《네가 이젠 나하구 키가 비슷하구나.》

준섭은 대견한 시선으로 아들을 쳐다보았다.

《아버지… 저, 사실… 내가 어제 쌓은 로벅은…》

《됐다, 됐어, 난 아침에 찾아온 내 얼굴을 보구다 알았지… 사나이는 순간에 자기 결함의 종처에 깊이 칼날을 박을 줄 알아야 한다.》

준섭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느럽게 불어오는 바람이 옷자락을 날렸다. 그들의 눈앞에는 언제나 장엄한 서정으로 가슴을 들먹이게 하는 제철소의 밤풍경이 펼쳐졌다.

철광석이며 석회석을 차판마다 가득 실은 구내기 관차가 빨간 불찌와 기적소리를 남기며 대형용광로 쪽으로 달려간다. 분괴직장에서 갓 밀어낸 강괴를 싣고 조강직장으로 가는 디젤기관차는 그대로 길다란 불덩어리를 달고 가는것만 같았다. 강철직장의 높다란 채광장을 태워버릴듯 불빛이 은하수를 향해 뻗어오른다. 해탄로의 사각탑들에서 검붉은 불길이 치솟았다. 폭스를 압출하는 순간이다. 어둠을 밀어젖히는 그 섬광속에서 무수한 불찌들이 축포마냥 터져오른다.

온 제철소 상공에는 창조적열정의 숨결 그대로 불과 열과 빛과 연기의 거대한 장막이 타오르고 있었다.

(밤노을!…)

영림은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피란 《깨찌벌》이 떠나니던 유년시절의 어느 별 많은 밤에 황철나무우에서 그는 이 밤노을을 얼마나 신기하게 보았던가… 그리고 아버지가 이 아름답고 신기한 밤노을을 만들지 않았을 때는 또 얼마나 서운했던가…

아득히 머나먼 그 시절이 익은수 없던 밤은 성장한 청년의 눈앞에 행복한 추억으로 펼쳐졌다.

《밤노을이구나…》

준섭은 나직이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때 어느 시인은 저 밤노을을 제철소사람들의 창조와 투쟁과 미래의 상징이라고 했었다…》

붉은 화광이 비낀 준섭의 로인담지 않은 젊은 얼굴

굴은 숨엄해졌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제철소에 오실 때마다 우리 축로공들을 찾아주시고 나라의 강철고지를 지키는 숨은 일군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영림아, 축로공이란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일이든지 사회와 인민을 위한 숭고한 사명이 있는것처럼 축로공의 어깨에도 일생을 다하지 못할 크나큰 짐이 실려있다… 땅속깊이 묻혀 웅장하고 화려한 만년건축물을 변함없이 굳건히 떠받들고있는 주춧돌처럼 사람은 한순간의 광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생을 말없이 조국을 떠받들고 살아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을 축복이라도 하듯 밤노을은 더욱 붉고 찬란하게 피어올랐다.

× ×

레루의 이음짚을 지나는 열차의 단조로운 소리뿐 좌석에는 숙연한 침묵이 깃들었다.

《…그날은 나의 사회 생활에서 새로운 출발점이었고 전환점이었소.》

창밖을 이윽히 내다보며 이야기를 마친 제철소청년의 얼굴에는 지기가 하는 일의 고귀한 사명을 심장에 간직한 사람만이 지울수 있는 긍지높은 미소가 넘치고있었다.

양몰이처녀의 얼굴은 환희로 하여 꽃송이처럼 아름답다웠다. 심산속의 외진 골짜기에서 양떼를 기르지만 사람들에게 따뜻한 털과 모직옷감을 마련해주는 자기 사업의 소중한 의의가 그를 기쁘게 했을것이다.

상고머리청년은 사색에 잠긴 근엄한 표정이였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가장 중요한것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겼으리라.

그렇다. 나도 고향에 가면 제일 어렵고 한적하고 뼈힘을 쓰는 초소에서 청춘을 바쳐야 한다.

열차방승에서는 흥겹고 랑만적인 노래가 울려 퍼졌다.

차창 저 멀리 검은 지평선이 잇닿은 기슭에서 감빛의 아름다운 밤노을이 신비롭게 흐르고있었다. 제철소였다. 용광로들과 평로굴뚝들, 해탄로들의 웅장한 분광은 불빛속에서 차츰 빨강게 타는듯했다. 창조와 번영의 길로 즐기치게 내닫는 조국의 한부분인 제철소는 이 밤도 거창하게 숨쉬고있었다.

열차는 광활한 어둠속에 기적소리를 길게 남기며 제철지구의 간이역에 접근해갔다.

## 전선길에서

신리섭

이것은 우리가 련대선봉원모임에 참가하였다가 부대로 돌아오던 때에 있는 일이다. 그때 우리 부대는 적들과 이마를 맞댄 전선중부의 방어전연에 전 개되어있었다.

별빛조차 이따금씩밖에 보이지 않는 거무칙칙하게 흐린 봄밤이었다.

우리는 땅크며 장갑차며 포차며 보병대오가 끊임 없이 흘러가며 봄비는 기본도로를 벗어나 소달구지나 겨우 다닐수 있는 지름길로 접어들었다.

점차 우리는 전선길의 그 모든 번잡과 소음으로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따금씩 들려오군하는 미제침략군 야간폭격기의 둔중한 동음이 밤의 고요를 깨뜨리곤하였으나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현실을 놓고보면 봄밤의 정서를 깨뜨리지 못하는듯싶었다.

전선

포화속의 봄

밤길

들쭉날쭉한 산봉우리들을 휘감은 젖빛안개, 그 안개가 끝짜기를 향해 서서히 내려앉는 모습을 온 몸으로 느끼기도 하고 걸음마다 물큰물큰 풍겨오는 땅냄새를 맡기도 하면서 우리는 묵묵히 걸었다.

사실 우리는 그 밤의 정서에 깊이 취해있었던것이다.

내앞에서는 키가 꺾두룩한 1중대선동원이 고개를 수긋한채 성큼성큼 걸었다. 그러던 그가 문득 걸음을 멈추더니 내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말했다.

《여, 2중대! 저 소리가 안들리나? 소방울소리여, 소방울소리!》

나는 귀를 기울이었다. 도간도간 끊어졌다 이어지며 그러다가는 어둠속으로 여운을 길게 남기며 울려퍼지는 방울소리, 그것은 틀림없이 소방울소리였다.

나의 마음은 금시에 땅속으로 녹아들듯이 이상해졌다.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전쟁때문에 까맣게 잊었던 생활의 한부분을 되찾은것처럼 기뻛고 눈물이 날만큼 반가웠다.

(발걸이를 하는 모양인가?)

그런데 방울소리는 앞으로만 나가는것이 아닌가. 우리는 걸음을 재촉했다.

얼마후에야 우리는 소방울의 대오를 따라잡을수가 있었다. 황소등에 짐을 실은 몇명의 녀인들로 된 대오였다.

나는 첫눈에 전선원호대라는것을 알아차렸다.

《수고하십니다, 아주머니들!》

나는 일행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다.

《괜찮아요.》

소고삐를 쥔 녀인이 멈칫 뒤를 돌아보며 수집음을 타는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용히 대답했다. 잠시 소를 멈춰세운채 다가오는 우리를 바라보던 녀인은 별안간 《아이》 하며 가벼운 탄성을 올렸다.

《명숙동무! 이거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1중대선동원이 나보다먼저 구를 알아보고 반색을 했다.

(뭐 명숙이?1)

치마자락을 약간 들어 허리를 가볍게 동여맨 호릿한 몸매, 동그스름한 얼굴, 뒤로 젖힐사하게 쓴 흰 머리수건밑으로 앞가슴에 늘어진 외태머리...

한손으로는 소고삐를 쥐고 다른 한손으로는 그 외태머리를 만지작거리는것이 어둠속에서도 보였다.

(그 처녀가 옳구나!)

문득 나의 생각은 보름전, 그날저녁의 일로 줄달음쳐올라가기 시작했다.

전투임무를 받고 행군을 다그치던 우리 부대는 해가 서산마루에 올라앉았을 때 산기슭에 자리잡은 한 집으로 찾아들어갔다.

해묵은 이영이 그대로 있는 세칸짜리 초가집이었다.

분대가 집앞에 멈춰서자 나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 부엌문앞에서 주인을 찾았다.

잠시후 부엌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흰 머리수건을 눌러쓴 얼굴이 동그스름한 처자가 나타났다. 해월에 얼굴이 감실하게 탄데다가 머리수건까지 폭 내려써서 처녀인지 아주머니인지 도무지 나이대중을 할수가 없었다. 물론 긴 살넉섬밑으로 어글어글하게 빛나는 두눈이라든가 랑볼에 귀인성스럽게 패인 보조개가 그닥 나이차지 않은 순진한 처녀라는 인상을 주기는 했지만 잠시 망설이던 끝에 나는 그저

《주인아주머니십니까?》

하고 말을 떴었다.

《행군하던 군대인데 좀 쉬어가려구...》

그러나 나는 말끝을 맺을수가 없었다.

나를 바라보며 방긋이 웃음을 짓던 그 녀자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어버렸기때문이었다.

웬일일까? 나는 멍적은 생각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다. 혹시 분대친구들이 등뒤에서 무슨 판전을 쓰지나 않는가 해서였다. 그러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분대친구들은 아직 대문밖에서 서성거리고있었던것이다.

내가 그 녀자에게로 다시 시선을 돌렸을 때엔 그 역시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고있었다. 그런데 가까이와는 달리 나의 첫눈에 뜨인것은 그 녀자의 봉긋한 가슴우로 한뼘이나 드리워진 기름기 흐르는 까만 외태머리였다.

(아하, 그랬었구나. 멀쩡한 처녀를 보고...)

나는 자기도모르는새에 뒤더수기로 손이 갔다.

《이거 정말 미안하게 뻘었습니다.》

하고 멍적게 웃으며 사과하듯 말하자 처녀는 귀바퀴까지 활짝 붉히면서 눈길을 떨어뜨리고 어쩔바를 몰라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듯 그대로 서있던 그는 갑자기 그 무슨 중대한것이나 잊어버렸던 때처럼 눈을 크게 뜨고 놀라는것이였다.

《아이, 왜 그러구들게세요. 어서 들어오시지 않구.》

이 한마디를 남기기 바쁘게 처녀는 얼른 방안으로 들어와 집안문을 활짝 열어젖히였다.

우리가 방으로 들어가자 처녀는 벌써 저녁차비를 서둘렀다.

그날 취사당반이였던 내가 쌀을 내놓으려 했으나 처녀는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바람에 한참이나 싱갱이가 벌어졌다. 수집음을 잘 타는것 같던 첫인상과는 달리 고집이 보통이 아니였다.

우리가 싱갱이를 하는동안 방안에서는 분대 친구들이 뜨뜻한 구들에 퍼더버리고 앉아서 이야기판을 벌리고있었다.

여느때 같으면 입이 건 분대장이 독판치기를 했겠는데 그날만은 왜 그런지 분대의 꼬마에게 자리를 내맡긴채 시물시물 웃으며 듣고만있었다.

《허, 세월이 빠르긴 한데, 저 파 자란거 좀 보지.》

《거 시벨전 고추장에 꼭꼭 찍어먹었으면 얼벌벌한게...》

《아따, 전쟁통에두 입맛은 여전하네.》

《이 친구 봐라, 입맛을 잇으면 미국놈과 싸움은 다 하게.》

이야기가 이쯤 번져지자 아래목에 엇비스듬히 기대앉았던 부분대장이 못참겠다는듯이 목을 설령하게 세우며 《고추장 걱정은 말라구.》 하더니 부엌을 내다보며 처녀를 향해 한마디 더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아무렴 고추장대접이야 못하겠나요.》

처녀는 상긋이 웃음을 지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깜빡 잠이 들었던 나는 구수한 밥냄새가 사이문틈으로 몰몰 새어드는 바람에 잠을 깨었다. 진종일 강행군을 하여 노그라진뒤라 밥냄새를 맡으니 갑자기 허기가 느껴졌다.

분대친구들도 모두 나와 같은 심정인 모양이였다. 배낭들을 메고 아무렇게나 드러누워 뚫아떨어졌던 친구들이 하나 둘 눈을 비비며 일어나앉았다. 분대의 꼬마는 눈치빠르게 두리반을 가져다 방한가운데 퍼놓았다.

그러나 부엌에서는 아무러한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는 기다렸다. 그래도 잠잠하였다. 또다시 기다렸다. 역시 침묵이였다. 극상해야 2~3분을 기다렸으랴말가한 시간이 왜 그렇게 지리하고 길게 느껴졌는지 알수 없다. 취사당반이라는 의무감, 동무들이 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것 같아서였을까? 나는 벌컥 사이문을 열었다.

밥바리가 올라갔게 듬뿍듬뿍 담아서 부뚜막에 주련이 올려놓은 밥그릇, 마감돌기를 꺼낸듯한 시큼한 냄새를 풍기는 김치, 생과를 썰어넣고 만든 젓갈찌개, 그중에서도 유별나게 구미를 돋군것은 종발 몇개에 듬뿍듬뿍 담아놓은 생과였다. 부쩍 시장기가 느껴졌다. 했지만 처녀는 보이지 않았다. 어딜 갔을까? 부엌당반우에 학습장을 뜯어 써놓은 글썽지가 눈에 띄였다. 나는 얼른 집어들었다.

《시장하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리명숙》

명숙이라... 주인의 말이니 기다리는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흘러가는 한초한초가 이때처럼 시간 맞잡이로 지루하게 느껴진 때는 일찌기 없었던것 같았다.

시간이 퍼그나 흘렀다. 그래도 명숙은 나타나지 않았다.

(허참, 별난 체네 다 보겠는데...)

다 지어놓은 밥이야 가져다먹지 못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품고 나는 몇번이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매번 실천하지는 못하였다. 분대동무들의 만류가 있었고 글썽지가 생각났기때문이었다. 인차

식사를 끝내고 한잠 푹 자고 떠나려던 당초의 계획이 틀어진것만 같았다. 나에게서는 마치도 이것이 취사당번인 나의 불찰로 해서 빚어진것처럼 느껴졌다. 이런 내 마음속을 손금처럼 들여다보았던지 부분대장은 노상 싱글벙글 웃으며 도리어 나를 뽐내대기 시작했다.

이때였다. 안타깝게 기다리던 명숙이가 나타났다. 달려오느라고 어찌나 땀을 흘렸던지 하얀 옥양목적삼이 한소나기 맞은 때처럼 화락하게 젖어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어딜 갔댔소?》

나는 직발 이렇게 물었다. 짐작컨대 그때의 내 목소리가 다 끊지 못했을것은 뻔한 리치였다. 나는 이것을 나의 물음에 대한 처녀의 반응을 보고 대뜸 짐작했던것이다.

명숙은 땀에 떠서 발갛해진 얼굴에 무슨 죄나 지은듯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눈길을 떨구며 사죄하듯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요.》

그의 눈길에 떨어진채 몇어있는 오른손에는 호박잎으로 싸서 호박잎으로 덮은것이 들려있었다. 기름이 잘잘 흐르는 새빨간 고추장이 호박잎사이로 들여다보였다.

(고추장?)

그럼 고추장 한보시기때문에 어딘가 것처럼 땀을 빼며 달려갔단말인가? 허 참, 부분대장이 룡담으로 한 말을 듣고? 그것때문에 나 역시 속을 태워야 했다고 생각하니 퍼그나 먼길을 달려온 그가 기특하다는 마음에 앞서 정말 천진스러운 처녀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그만 떨어졌댔어요. 또 담그긴 했는데 아직...》

《좌우간 수고했소.》

나의 대답은 힘이 없고 자신이 없었다.

고추장때문에 병사들의 잠을 빼앗다니... 하긴 천진스러운 이 처녀가 전선길에서 자는 병사들의 쪽잠마저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어떻게 다 알수 있을까! 이렇게 나는 자신을 위안했고 처녀를 두둔했었다.

식사가 들어왔다. 신선한 생과에 새빨간 고추장이 들어왔을 때 동무들은 환성을 올렸다. 나를 뽐내주던 부분대장이 한수 더 뻗었다. 그는 몇번이나 수고했다는 말을 명숙에게 하였다. 그것이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심이라는것을 느꼈을 때 웅색했던 나의 마음도 한결 풀려나가는것이였다.

분대 친구들과 함께 한참 식사를 하던 나는 우리

들끼리 식사를 한다는것이 아무래도 미안스러운 생각이 들어 다시한번 인사치레의 권유라도 해보려고 부엌으로 시선을 돌렸다.

명숙은 문설주에 기대혀 땀을 들이면서 떠들어대며 식사하는 우리들을 넘겨다보고있었다.

정다운 미소가 담백 어린 그윽한 눈길, 행복에 겨운듯 가벼이 들먹거리는 봉긋한 가슴, 처녀는 그저 아무말없이 가슴우에 드리워진 머리태를 만지작거리고있었는데 방싯이 열려진 입가에조차 순결한 기쁨과 웃음의 여파가 물결치고있다.

무엇이 저 처녀로 하여금 이처럼 행복감에 잠기게 했을까? 고추장인가? 고추장이 피곤마저 몰아갔단말인가? 그럴지도 모르지, 우리가 맛나게 먹으니까. 하지만 그것때문만은 아닌것 같았다. 어쨌든 나는 명숙을 못마땅히 여긴 자신에 대하여 몹시 후회했었다.

그날저녁 우리들은 밤이 들 때까지 푹 자기로 하고 자리에 누웠다. 부엌에서 들려오던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그치였다. 아마 우리가 자는데 방해가 될가보아 설것이를 뒤로 미룬 모양이였다.

못건디게 잠이 몰려들었다.

나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잠에 취해 인차 깨어나지는 못하고 집뒤에서 울려오는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그것은 실로 몇년만에 들어보는 소방울소리였다. 방울소리는 나와 가슴에 환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지나가버린 생활의 토막토막을 되살려주기도 하면서 어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처럼 나를 포근하게 감싸주는것이였다. 사랑하는 부모들, 기름진 고향별, 분여받은 땅에서 첫해농사를 지어서 사다맨 누렁황소생각을 몰아오기도 했다. 전선으로 떠나오던 날 흙물은 무명적삼대신 군복입은 내 모습이 낯설은지 툭방울같은 두눈알을 디룩거리던 누렁황소였다.

어느새 잠은 말끔히 달아나고말았다. 동무들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있었다. 하긴 나만이 그런 옛 추억속에 잠겨있었겠는가. 우리는 도무지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우리는 약속이나 한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울소리가 도간도간 울려오는 집뒤로 나갔다. 명숙이가 터밭에서 밭을 갈고있었는데 입안의 소리로 목소리를 죽여가며 소를 몰고있었다. 아마도 도로복구대에 나간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밭을 가는 모양이였다. 명숙은 성깔사나운 소를 다잡느라고 자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거나 방울소리가 좀 크게 울리면 와들 놀라며 집쪽을 바라보곤하였다. 아마 우리의 잠에 방해가 될가보아 그러한 모양이였다. 명숙

이의 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소는 여전히 감때 사납게 굴었다. 우리가 말소리를 죽여가며 가까이 다가섰을 때 소는 또다시 큰 숨을 들이쉬며 머리를 내저었다. 소방울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명숙은 기겁을 하며 소를 멈춰세우더니 얼른 앞으로 달려나가 소방울을 쥐었다. 그리고는 머리수건을 벗어 방울을 싸매려고 하였다.

나는 그가 놀라지 않게 될수록 목소리를 낮추며 조용히 말했다.

《나두십시오.》

그 소리에 명숙은 얼른 고개를 뒤로 돌리었다. 뜻밖에 우리를 발견한 그는 몹시 당황해하였다.

《야-참-!》

하며 안타깝게 부르짖던 그는 한동안이나 그대로 서서 성미사나운 소며 소방울을 바라보고있었다.

《눈을 좀 붙이셔야 할텐데...》

《아닙니다. 소방울소리를 들으니 마치도 고향집에 온것 같구만요.》

우리는 저마다 소를 끌어보고 보탑을 쥐어보았다. 방울소리도 크게 울려보았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한데는 그의 웅색해진 마음을 풀어주려는데도 있었지만 오래간만에 소방울소리를 들으니 정말 고향집에 온것 같았다.

해방의 그날 영명하신 장군님께서 주신 땅에 첫 씨앗을 묻던 때의 일이 삼삼히 떠올라 건딜수가 없었기때문이었다.

나는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보탑을 쥐었다.

우리는 좌작 떠들어대며 보습 하나에 한개분대가 달라붙어 밭을 갈기 시작했다. 분대의 꼬마는 소고삐를 쥐었다.

참으로 즐거운 시간이었다. 깊이 박힌 보습이 일직선으로 땅을 찌며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시커먼 흙밥을 좌우로 엮어놓을 때마다 텁텁하고 훈훈한 흙냄새가 물씬물씬 풍겼다. 어데선가 밤종다리가 은방울을 굴리며 날아갔다.

《꼬마! 방울소리를 더 크게 울리라구!》

부분대장이 꺾꺾거리며 소리쳤다.

《군대동무들도 방울소리가 그렇게 좋은가요?》

내열을 따르던 명숙이가 문득 속삭이듯이 물었다. 나는 얼른 대답을 하지 못했다. 어둠때문에 그의 표정은 가려볼수 없었지만 억양과 목소리로 보아서 그가 몹시 기쁨에 넘쳐있다는것이 확연했기때문이었다. 조금전만 해도 방울소리때문에 울상이 되었던 그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지금은? 그제 수집음을 잘타는 처녀로만 알았던 그가 이처럼 다감하단 말인가, 그에 대해서 통 종잡을수가 없었던것이다.

나는 처녀가 재차 물어서야 자기 상념에서 벗어나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다.

《좋은것뿐이 아니지요. 힘이 막 납니다, 힘이!》

하면서 나는 해방후 이듬해 늦가을 서리내린 새벽길로 열두발상모가 하늘공중에 원을 그리고 흙냄새 구수하게 풍기는 새납소리에 어울려 온 마을에 쌍방울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애국미를 싣고 읍으로 가던 때 일이며 허리가 늘씬하도록 온종일 밭을 갈고도 종다리, 뜸부기 노래소리에 반주하여 울리는 소방울소리를 들으며 피곤을 모르던 때를 이야기했다.

《소방울소리를 들으니 하루빨리 미국놈을 몰아내구 고향으로 돌아가 장군님께서 주신 땅에서 밭을 갈아보고싶은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그럼 방울소리를 더 크게 울리세요.》

하며 명숙은 호릿한 몸을 날려 얼른 몇걸음 앞으로 달려나가더니 꼬마의 손에서 소고삐를 받아쥐는 것이었다.

이윽고 방울소리가 크게 울리기 시작했다. 방울소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땅을 끝까지 지켜나가려는 명숙의 심장의 메아리인양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나에게는 이 밤 소방울소리를 더 크게 울리는 명숙의 뜨거운 마음이 더 말할것도 없이 우리를 승리와 위훈으로 고무해준 힘이 아니었으랴 느껴졌다.

소방울소리, 고추장으로 해서 것처럼 인상깊게 새겨졌던 명숙동무를 다시, 그것도 전선길에서 만나게 되니 내 기쁨이란 말할수가 없었다. 나는 반가운김에 전후사연을 다 잇고 명숙이앞으로 막 달려가 손을 내어밀었다. 그러나 그의 두손을 잡아흔들지는 못했었다. 수집음을 잘 타는 처녀라는 생각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는 환성을 울리다 싶이 부르짖었다.

《명숙동무! 이렇게 다시 만났군요. 정말 기쁘니다.》

명숙이도 여간 반가와하는것이 아니었다.

1중대선동원이 의아해서 나와 명숙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나는 1중대선동원더러 명숙동무를 어떻게 아는가고 묻고싶었지만 인차 단념하고말았다. 전선으로 오고가는 길에서 명숙동무의 방조를 받은 병사들이 우리 분대뿐이겠는가.

우리는 명숙이와 만나자마자 헤어져야 했다. 시간이 바빴던것이다. 고지에서 다시 만나 지나간 회포를 나누기로 하고 우리는 행군을 계속했다.

밤인지라 그들의 형체는 우리의 시야에서 곧 사라졌다. 이따금씩 울리는 소방울의 특유한 음향만

이 어둠을 뚫고 우리를 따라왔다. 그 소리는 우리에게 이상한 감흥을 주었다. 그것때문인지 우리는 명숙이네를 도와주지 못하고 그대로 먼저 떠난것이 마음에 걸려 자주 뒤를 돌아보았고 방울소리와 이어진 갯가지 추억들을 되살려 이야기판을 펼치였다.

1중대선동원이 얼마전에 신입대원들을 인솔해가지고 오다가 명숙이네 집에 들러 자고 떠난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전체 신발이 하나같이 말리워져있었고 발싸개들까지 깨끗해졌더라는 것이었다.

《이튿날 우리는 발이 거뜬해져서 나는듯이 행군을 다그쳤네.》

명숙이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우리들이 고지후면에 다달았을 때에 적기가 나타났다. 고지우에서 번개같은 화광이 일고 폭음이 일었다.

우리는 전투를 예감하며 급히 달리기 시작했다. 미제침략군놈들이 공격을 앞두고 벌리군하는 폭격이었다. 불에 그슬린 소나무가 듬성듬성 서있는데 비탈길을 에둘러뒀다 갑자기 등뒤 하늘언저리가 환히 밝아지는것을 느꼈다. 놈들이 도로상공에 조명탄을 달아놓은것이다. 명숙이네들이 위험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서로 나누기도전에 벌써 그쪽에서 폭탄이 뛰고 아찔러운 금속성을 울리며 파편이 날아왔다. 아군대공포가 불을 뿜어대기 시작했다. 매캐한 초연냄새... 가까운곳에서 숲이 타는 모양이었다. 포화에 얻어맞은 놈들의 그라망이 쾅지에 불을 달고 논판에 곤두박쳤다.

폭격은 도로보다 고지쪽이 더 심했다. 놈들이 우리의 방어전선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적기들이 쾅무니를 뺄뒀다 우리는 땀자루가 되어 고지에 도착했다. 지휘관한테 보고를 하기 바쁘게 전호를 차지했다.

고지에는 폭격끝에 뒤따르는 격전전야의 정적이 깃들었다. 매캐한 포연과 뿌리채 뿜혀 나뒹구는 나무등걸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불에 타고 그슬린 흙먼지가 채 가시지기도전에 벌써 고인물에 싸그쟁이 끓듯하는 적들의 무리가 새까맣게 기어오르고있었다.

온몸의 신경을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쥐여당기는 것 같은 숨막히는 전장의 침묵이었다.

무거운 정적... 쿵쿵 뛰는 심장의 박동소리와 함께 전투때 웨칠 선동구호를 머리속에 되새기며 탄약을 채우던 나는 그 어떤 색다른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소방울소리였다. 연하고 부드러우나 선명하게 느껴지는 소방울소리! 순간 나의 가슴속에는 이름할수 없는 감정이 샘솟아올랐다. 신성한 조국강

토를 삼키려고 원쑤놈들이 새까맣게 기어오르는 이 준엄한 결전의 시각을 앞두고 소방울소리를 듣게 된다는것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이러한 감정을 체험하게 되는것은 나 혼자뿐이 아니었다. 2~3미터사이두고 나의 옆에 엮여있는 중기사수가 입이 벅글썩해서 미소를 짓고있었다. 그 어떤 룡담이나 익살에도 언제 보나 두툼한 입술을 짜악 다물고 옷을줄 모르던 그였다. 전사들속에서 《무감정》이라고 비난을 받곤하던 그다. 조금전 새 탄띠를 갈아끼울 때만도 왕복소리 같은 특한 눈섭밑에서 불꽃을 일구던 두눈은 그윽한 추억속에 잠기고 억제할수 없는 감정으로 얼굴전체에는 미소가 피어오르고있었다.

그 다음 전사, 행군이나 전투의 여가시간이면 전사들속에서 늘 싱글벙글거리며 자기 고향 부라벌벼농사에 대해서 이야기판을 벌려놓곤하던 본대의 3보총수아바이전사의 얼굴은 몹시 심각해있었다.

그 다음 전사의 얼굴 그리고 또 다음 전사... 매 전사들의 각이한 얼굴표정을 하나하나 돌아보는 나는 가슴이 찢르르해졌다.

소방울! 그것은 소의 목에 달아매주는 장식물에 불과한것이다. 하나 삶을 수호하기 위한 판가리격전을 앞둔 참호에서 듣게 되는 소방울소리는 단순히 그런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윽한 추억속에 빛나는 중기사수의 눈앞에, 불꽃을 일구는 3보총수의 가슴속과 모든 전사들에게 아지랑이 아물아물 피어오르는 드넓은 고향별을 펼쳐보이는것이다. 알맞게 감이 든 논밭에 보습을 깊숙이 박고 고삐를 채며 봄같이하는 자기들의 모습을 그려보게 하는것이다.

굴죽같이 건 논판이 흙물결을 일으키며 보습끝에서 번져져나간다. 여기저기서 이라 찢찢!... 소모는 소리, 종다리 노래소리와 반주하여 구성지게 울리는 소방울소리... 이것은 땅의 주인이 된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제땅에서 농사짓는 비길데 없이 행복한 생활이었다.

선동원인 나는 처음으로 전투에서 선동구호를 웨치지 않았다.

이윽고 지휘관의 서리찬 사격구령소리가 울렸다.

전투는 짧은 시간이였지만 가렬했다. 가렬했지만 공격해오는 적을 통쾌하게 요정냈고 아군으로서는 적을 쓸어눕히느라고 쏘버린 총탄밖에는 거의 손실이 없는 전투였다. 더구나 우리 분대엔 머리칼 한오리 다진 전사조차 없었다. 그리하여 전투사기가 매우 높은데다가 내가 명숙이네 이야기까지 꺼내서 분대원들은 막 환성을 울렸다.

입이 항아리만해진 부분대장은 《고추장사건》을 들추어내면서 은근히 나를 꿰뚫어볼 차비였고 분대의 꼬마는 대뜸 제가 고삐를 쥐었던 누렁황소타령부터 꺼냈다.

전투가 끝나기 바쁘게 우리는 명숙이네들을 마중하여 타다 만 소나무가 듽성듬성 들어선 고지후면으로 갔다.

그들은 조금전에 도착하여 전투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쉬고있는 참이었다. 명숙은 포탄에 허리가 부러져나간 소나무밑둥에 등을 비스듬히 기대채 쪽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그 어떤 깊은 생각을 쫓고있는지 눈을 감고있었다. 밤사이에 겪은 시련을 말해주듯 그는 펍 수척해졌었다. 파편에 그렇게 되었는데 나무가지나 바위너설에 굽히웠는지 적삼이며 치마가 여러군데 찢어져나갔다. 이마와 볼에 상처가 졌는데 아직 상처가장자리에 피자욱이 남아있었다.

나는 명숙의 정상에 가슴이 알싸해져서 달려내려가던 걸음을 멈추었다. 뒤따르는 친구들이 어찌나 떠들어대며 다가왔는지 명숙은 그만 놀라듯이 자리에서 후닥닥 일어났다.

우리를 발견하자 명숙은 금시에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마주 달려왔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는 멈칫하며 자기의 옷매무시를 일른 훑어보았는데 그것으로 해서 그의 몸가짐은 몹시 웅색해졌다. 옷이 찢겨져나간것이 마치도 제 불찰이거나 한듯이.

우리는 누구도 명숙의 옷매무시에 대해 탓하지 않았다. 그래 옷매무시가 어쨌단말인가? 도리어 한 전호에서 싸운 동지와 같이 친근감이 느껴졌고 신뢰감이 더 커졌다.

《명숙동무, 어디 다치진 않았소?》

《예, 일없어요. 그런데 막 가슴이 죄여서...》

하며 명숙은 방그레 웃음을 짓는것이였다.

《수고했소!》

나는 진심으로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분대친구들이 웃고 떠들어대며 명숙이를 둘러싸고 한마디씩 했다. 꼬마는 첫마디에 황소타령이였다.

《글쎄 누렁황소가 고지방문을 왔다면서요?》

하며 꼬마가 신바람이 나서 고삐를 끌던 그날밤의 이야기를 계속하자 대원들은 저마다 그때의 일이 생각난다고 떠들어댔고 그 소가 보고싶어서 두리번거리며 찾기 시작했다.

명숙은 까만 외태머리를 만지작거릴뿐 아무말없이 서있었다.

나는 마음이 선뜩해짐을 느꼈다. 아니나다를까, 그가 그 어떤 결심을 내린듯 고개를 번쩍 들었을때 두눈에 물기가 팡 피어있었다.

《소는 폭격에 죽었어요.》

《아니, 그래두 방울소리는 계속 나던데요?》

나는 격해진 미음으로 불쑥 물었다.

《글쎄 명숙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두 처음엔 몰랐다우.》

원호대의 난 중년녀인이 명숙을 대신하여 한결을 나서며 대답했다..

《...그 쌍 돼질 미국놈새끼들의 폭격에 명숙이네 누렁황소가 죽구 명숙이까지 부상당했다우. 우리는 소잔등에 실었던 집을 나눠가지구 길을 재촉하면서 명숙이더러 내려가 치료를 받으라고 몇번이나 애걸했다우. 그런데 명숙이는 옷설을 찢어 상처를 싸매더니 소목에서 방울을 떼가지고 흔들면서 앞장서서 견지 않겠수. 그래서 우린 죽은 소를 잊지 못해 그러는가 했지요. 그런데...》

침묵이 흘렀다. 그 녀인의 말에 누구도 선뜻 적당한 말을 찾을수가 없었던것이다. 나 역시 심각해있었다.

그러자 주위를 빙 둘러보던 명숙은 침묵을 깨뜨리며 입을 열었다.

《방울소리를 들으면 힘이 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창백해진 얼굴에 밝은 웃음을 짓는 명숙이를 보는 나는 코마루가 시큰해졌다.

한순간에 모든 사연이 다 느껴지는듯싶었다.

고추장에 갇든 명숙의 마음도, 소방울에 머리수건을 싸매던 그 사연도 그리고 빈 방울을 울리며 고지로 올라온 깊은 사연도 병사들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것이라면 모든것을 다하는 명숙이였다.

명숙은 내앞으로 한결을 다가서며 《너무 걱정마세요.》 하더니 나를 위안하듯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소를 또 마련하겠어요.》

소는 문제가 아니였다. 명숙이가 울린 방울소리! 그 아름다운 마음이 귀중한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우리나라오는 걱정을 더는 참지 못하고 명숙의 두손을 꼭 쥐었다.

《고맙소! 명숙동무!》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명숙의 방울소리를 생각하며 그리고 가는곳마다에서 우리 병사들을 친자식처럼 친형제처럼 그렇게 따듯이 대해주던 로인들과 녀인들과 아이들을 생각하며 총을 쏜 병사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가리라고.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침략자들을 조국강토에서 한놈도 남김없이 소멸하리라고!

## 전쟁의 나날을 더듬어

황건

오늘 우리 작가들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뜨거운 배려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전쟁시기 회상하게 된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전쟁의 나날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작가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세심한 보살피심과 배려를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예술이 인민들과 함께 싸우는 예술, 조국을 위한 예술,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는 예술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작가, 예술인들이 미체의 만행을 폭로하는 글을 많이 쓸데 대하여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모습을 세상에 널리 알려줄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시 우리 문학예술의 창작 방향뿐아니라 사명과 임무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도 전쟁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야 하겠습니다.**

**전쟁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문학예술의 임무는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문학예술활동을 통하여 싸우는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로 더욱 힘있게 고무하여야 합니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너도 나도 군복을 갈아입고 전선으로 전선으로 달려나갔다.

나는 전쟁이 일어난지 며칠뒤 웅진해방지구에 나갔다. 그후 전투부대를 따라 의정부, 서울을 거쳐 멀리 락동강을 넘어 대구 북쪽 다부원계선까지 종군하였었다.

해방지구인민들의 환희에 넘친 얼굴들, 적들의 폭격으로 파괴된 거리,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격렬한 싸움을 벌리고있는 전투장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나뿐아니라 수많은 작가들이 싸우는 전투부대의 소대와 중대서열에 끼여 행군을 하고 같은 전호에 나란히 엮드려 총을 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작가들은 아버지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우리의 영웅한 인민군장병들과 후방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모습을 그리면서 원수들의 만행을 폭로하기 위하여 전호가와 방공호들에서 격조높은 글들을 썼다.

적화구를 가슴으로 막아 아군의 진격로를 열어준 인민군전사의 무비의 영웅성, 방어시설굴설과 각종 전선원호사업에 펼쳐나선 후방인민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희생정신, 원수들의 가지가지 만행에 대한 폭로규탄이 짧은 형식의 단편소설로 단시로 되고 종군일기로 실화문학으로 되어 싸우는 인민들의 심장에 사랑과 증오의 불길을 지펴주었다.

인천방어전에서 무비의 방어전에서 무비의 영웅주의와 높은 충성심을 발휘한 리대훈 해안포중대의 전투이야기는 6개월동안 나의 가슴을 거머쥐고 놓을줄을 몰랐다.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그들의 슬기로운 모습을 전하려 모대김하던 나는 인천우편국에서 전선통신을 보장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싸운 한 녀성통신수의 위훈을 들고 몹시 흥분하였으며 이 사실을 반드시 세상에 전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 이튿날로 후방에 들어온 나는 단숨에 소설을 써서 신문사편집부에 보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부리운 듯한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전선으로 나갈수 있었다.

우리 작가들은 전선에 나가서 취재수첩에만 기록해넣은것이 아니라 포성이 울리는 산기슭에서 농가의 어스름한 뒤방에서 휴식참의 돌우에서 영웅한 인민군전사들의 대중적영웅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작품을 썼다. 언제 어디서 적의 탄알과 파편에 맞아 희생될지 모르는 엄혹한 환경에서 하나의 글이라도 더 만들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전쟁주제의 우리의 우수한 작품치고 어느 하나도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인 가르치심과 배려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작가들이 당과 혁명앞에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도록 간곡한 가르치심과 세심한 보살피심으로 항상 우리들을 따듯이 품



어주시었다.

그중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1년 6월 30일 작가예술가들을 가까이 부르시어 주신 교시는 전쟁 주제의 작품을 쓰는데 있어서 언제나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인 지침으로 되는 것이었다. 이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음으로 하여 우리 작가들은 인민군장병들과 후방인민들의 무비의 영웅주의가 어떻게 나타나며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들의 애국심은 어떠한 것인가 또한 적들의 만행을 어떻게 그럴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작가들은 무엇보다 먼저 열렬한 애국자가 되기 위하여 애썼으며 영웅적인 인민군장병들과 후방인민들의 그 뜨거운 심장들과 고매한 정신들을 체득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전쟁기간에 쓰여졌거나 전후에 쓰여졌거나 전쟁을 주제로 한 우리의 모든 우수한 작품들은 그러한 노력 끝에 쓰여진 것이다.

전쟁의 나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작가들에게 끊임없이 기울여주신 한량없는 사랑과 배려를 생각할 때 특히 일시적 후퇴시기에 있던 일은 더욱더 잊을 수 없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당을 따라 락동강계선에서부터 험산준령을 넘어 2천리길을 걸어들어온 작가, 예술인들과 과학자들을 접견하시고 그들 모두에게 혁명가라는 높은 긍지를 안겨주시고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라는 강령적교시를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나는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과 과학자들이 당을 따라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여기까지 후퇴하여 들어온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동무들을 이렇게 만나니 참으로 기쁩니다. 나는 언제나 동무들이 보고싶었습니다.》**

믿음과 자애에 넘치신 이 말씀과 보살피심을 생각하면 지금도 감격에 목이 메군다.

이와 같이 우리 작가들은 가장 준엄한 시련의 날에도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두터운 믿음속에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강계에 찾아들어간 우리들에게 적의 폭격권내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대에 거처를 정하게 하여주시고 계속 학습을 하고 글을 쓰도록 배려하여주시었으며 날씨가 추워지자 매 사람들에게 한벌씩 솜동복까지 마련하여 보내주셨다. 험한 길을 바삐 들어오느라 미처 갈아입지 못했던 낡은 옷을 새 솜복으로 갈아입은 우리들은 서로 입은 옷들을 바라보며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에 목이 메어 뜨거운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자식들에게 지극한 아버지가 있다한들 우리 작가들을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처럼 크나큰 사랑에 비할 품이 이 세상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이 당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후퇴하여 들어간 우리 작가들을 가까이 부르시어 어떻게 후퇴의 먼 길을 걸어들어왔는가를 일일이 알아보시고 높은 치하를 주시었으며 머지않아 전체 전선에서 일대전환이 일어난다고 하시며 승리의 신심을 굳게 가지고 인민군장병들과 후방인민들을 고무할수 있는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을 더 많이 쓸데 대한 격려의 말씀을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격려의 가르치심에 고무된 우리 작가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조그마한 불편이나 애로도 모르면서 신심에 넘쳐 창작에 정열을 쏟을수 있었던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작가들을 따뜻한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다함없는 은정과 배려를 베푸시었다. 그 사랑속에서 우리들은 자랐으며 당의 문예전사로서의 영예와 행복을 누려왔다.

그 높은 은덕과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붓을 놓고 쉴 생각도 편안히 잘 생각도 다 잊게 된다. 더구나 오늘 세상에 부럼없는 배려를 받으며 좋은 창작실과 온갖 편의가 보장된 조건에서 창작을 하는 작가로서 더욱 그렇다. 붓과 총을 함께 잡았던 그 시기처럼 환경과 조건, 밤과 낮을 가림없이 쓰고 또 써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만 우리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작가들에게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사랑의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갚는 것으로 될 것이다. 오늘도 나는 그때를 생각하며 나를 채찍질하고 있다.

## 탄부들이 사는 집

김용남

기러기도 쉬어넘는다는 아득한 열두삼천리별을 배경으로 내동산기슭을 따라 준비하게 늘어선 5층, 8층집들, 솟아오르는 금빛해살을 함뿍 받으며 금시 날아오를듯 흰 채양을 건듯 펼친 탑시아파트들, 여기가 안주지구에 새로 솟아난 탄부도시 안주탄광마을이다.

연록색 바탕에 흰띠를 산뜻하게 두른 탄부들의 통근렬차가 《봉-》 하고 탄부도시의 또 하루 새생 활을 알리며 경쾌하게 달려간다.

내동산기슭에서 곧추 뻗어내린 드넓은 거리로는 화려한 통근빠스들이 거리의 운치를 한껏 돋우며 분주히 오고간다. 종합적기계화가 실현된 일터에서 보람찬 하루일을 마치고 탄부들이 돌아오는 탄전도시의 저녁은 또한 얼마나 황홀한것인가!

별무리처럼 무수히 반짝이는 아파트 창가마다에서 울려나오는 동기당기 가야금소리며 맑고 쟁쟁한 행복의 웃음소리... 방금 들어서는 통근렬차의 은은한 기적소리가 하나의 음악처럼 조화를 이루며 그대로 선율이 되고 노래가 되어 한없이 다감한 정서를 가슴가득 부어준다. 이런 때이면 나는 수도 평양의 거리 한복판에 서있는것만 같은 느낌이 들곤한다.

도시에 넘쳐흐르는 불빛이 그대로 어버이수령님 계신 당중앙 창가의 그 밝은 불빛이런듯, 설레이는 마음으로 웃길 여미며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우러러바라보던 만수대언덕의 그 찬란한 불빛이런듯 이 마음 한없이 승엄해진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저 드넓은 거리에 방금 마주 달려올것만 같은 이런 순간 또다시 가슴 뜨거이 울려오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말씀을 되새겨본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탄광마을을 평양의 락원거리 못지않게 건설해주자고 크나큰 자량을 베푸셨던 것이다.

아, 벌써 천만번도 더 되새겨보는 그 말씀의 높고도 깊은 뜻을 우리 어찌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처럼 행복한 탄부가 세상에 또 어데 있겠는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

이 교시하시였다.

《땅속에서 석탄을 캐낸다는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해방전에 이 어려운 사업을 맡고있던 탄광로동자들은 가장 천한 일을 하는 막로동군으로서 다른 로동자들보다 천대를 더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오늘에 와서는 어려운 일을 맡아하는 로동자일수록 더욱 존경을 받고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자욱이 짙히여있는 수도의 락원거리가 그대로 여기 안주탄광마을에 이어지고 드넓은 거리 그 어디에선가 환히 미소지 으시며 마주 걸어오시는 자애로우신 그 영상을 뵈울것만 같은 《락원거리》에 우리 탄부들을 세워주시고 어버이수령님의 그 넓은 품 가장 가까운곳에 우리 탄부들의 마음을 불러주신 그 높으신 뜻이 헤아려져 더더욱 가슴 뜨거워지는것이 여기 탄부도시에 사는 우리들의 심정이다.

안주탄광마을을 대탄전도시로 꾸려주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탄부도시 건설전망도를 하나하나 보아주시며 탄광마을을 평양의 락원거리 못지않게 일떠세우라고 뜨겁게 말씀하신 어버이수령님!

나라일에 그토록 바쁘신 나날에도 친히 탄부도시 건설정형을 알아보시며 고층건물들이기때문에 상하수도과 중앙난방시설을 잘해주어야 한다고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탄부들이 먹는 물맛까지 몸소 헤아려보시고 지하수를 뽑아서라도 탄부들이 맑은 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시며 시추기까지 보내주시는 육친의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오늘의 이 행복을 두고 생각할 때면 나에겐 한간 집이 없어 설음 많던 험난한 그 세월의 악몽같은 추억이 되살아오르곤한다.

땅 한패기, 초가집 한간 제것이 없어 온 식구가 류량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던 암담한 시절, 올망졸망한 여섯식구를 거느리고 살길을 찾아 정처없이 헤매이던 아버지가 보짐을 풀어놓은곳이 여기 안주탄광마을이였다.

우리가 세방살이를 시작한 다 찌그러진 판자집은

그나마도 여섯식구가 발도 제대로 펼수 없는 비좁은 방이었다.

그때 열두살이던 나는 그래도 썸이 들었노라고 막장에서 밤일을 하고 돌아올 아버지의 잠자리를 남겨놓고 거적을 깔고 토방에서 자곤했다.

별들이 총총한 어느 여름밤.

팔베개를 하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는 나의 어린 가슴엔 너무도 천진한 꿈이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저 별나라에도 사람이 산다는데 우리도 별나라에 가서 살수는 없을까?)

땅우에는 나를 위하여 마련된 집 한간 없지만 저 별나라에만은 따뜻한 잠자리가 있을것만 같았다.

이런 공상속에 어렴풋이 잠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나는 아버지의 품속에 안겨있었다.

밤일을 하고 돌아온 아버지였다.

《이눔아, 누가 밖에서 자라더냐.》

아버지는 성난 어조로 물었다.

《아버지, 난 밖이 시원해서 더 좋아요.》

아버지를 위로하려던 이 말이 오히려 아버지의 가슴을 그렇게도 아프게 허벌줄을 어떻게 알았으랴!

말없이 나를 꼭 껴안은 두팔이 부르르 떨리더니 아버지의 주름잡힌 눈귀에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다음날부터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촉촉한 누기를 맞으며 거적우에서 새우잠을 자는 어린것의 가없는 정상을 차마 더는 볼수 없어 차라리 막장에서 자는것이 좋다면서 돌아오지 않던 아버지!

나를 꼭 껴안아주었던 그 밤이 아버지와 마지막 밤이 될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아버지는 굴이 통채로 무너지는바람에 영영 돌아오지 못한채 한많은 세상을 하직했던것이다.

기동처럼 민고 살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주인놈은 집세를 물지 못한다고 눈보라 울부짖는 겨울밤 우리를 제집에서마저 쫓아냈다.

아, 집! 한간 제 집이 없어 아버지를 생매장당하고 한지에 나앉은 탄부의 가족!

《어머니, 우리에겐 왜 집이 없나요?》 하고 집없는 설음을 하소하는 나에겐 어머니는 무엇이라고 말했던가!

《탄부의 자식이 집은 무슨 집이냐!》

나의 어린 가슴속을 그로록 아프게 못질한 어머니의 이 말은 그대로 탄부들을 그렇게도 모질게 확대하는 저주로운 사회에 대한 울분이며 항변이었다.

화김에 한 어머니의 말이건만 그 말이 너무도 매정스러워 나는 얼마나 서럽게 울고 또 울었던가!

그런데 내가 하늘높이 두둥실 솟은 저 8층 탑식 아파트에서 산다고 생각하니 그저 꿈같이만 생각된다.

옛날같으면 지주나 자본가도 감히 쳐다볼수 없을 저 탑식아파트, 랭동기와 전기밥가마... 등 현대적인 부엌세간이 그쫘히 갖추어지고 더운물, 찬물이 철철 넘치는 수도까지 있는 부엌, 온수난방의 아늑한 살림방 그리고 현관에 창고까지 달려있는 정말로 세상에 부럼없는 이런 주택에서 우리 탄부들이 살게 될줄은 꿈에도 상상할수 없었다. 별나라엔 따뜻한 집이 있을것만 같던 동요시절의 그 아름다운 공장, 탄부의 자식이기때문에 집 한간이 없어 아버지를 잃고 한지에 나앉았던 내가 오늘은 바로 탄부이기때문에 이렇듯 높은 집에서 사는것이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이 사랑의 집에 이사집을 부리우고 내 이름으로 뼈젓이 문패를 달던 그날, 나는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큰절을 드리며 감격에 목매여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었다.

나를 낳아준 부모도 비바람 가릴 집 한간 주지 못한 탄부에게 해방이 되자마자 양지바른곳에 제일 선참 새 문화주택을 지어주셨고 오늘까지 벌써 세번째나 더 좋은 집으로 옮겨주신 어버이수령님!

탄부들이 사는 집을 수령님의 자애로우신 그 품 가장 가까운 《락원거리》에 높이 세워주신 그 사랑, 그 은정을 무슨 말로 다 하랴!

이렇듯 어버이수령님의 헤아릴수 없는 사랑의 무게로 억년 드눌지 않을 주춧돌을 박고 한량없는 그 사랑의 높이로 하늘 중천에 등실 솟아오른 사랑의 집.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은 있어도 불과 한해도 못되는 사이에 기적처럼 솟아난 안주지구의 대탄부도시-이것은 지난날 현대문명의 밖에서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만을 받으며 조약돌처럼 버림받아온 우리 탄부들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위대한 사랑의 선물이며 억만년 대를 두고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갈 만년대계의 기념비인것이다.

## 가사는 시적으로 되어야 한다

안정기

가사는 음악과 결부된 가장 짧은 형식의 서정시로서 다른 종류의 문예작품들보다 상대적으로 그 보급력이 강하고 빠르며 감화력이 매우 크다는데 그 특징과 생활력이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가사는 작은 그릇안에 의의있는 사상적알맹이를 담을것을 더욱더 긴절하게 요구하며 그것을 높은 시형상으로 표현할것을 제기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적인 노래를 창작하는데서 가사를 잘 쓰는것이 중요합니다. 가사를 내용있게 잘 써야 합니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쳐주고있는바와 같이 가사는 시적이면서도 사상적내용이 풍부하게 되어야 한다. 아름답고 세련된 시형식에 사상적내용을 풍부히 담는것은 고상한 예술성과 높은 사상성이 결합된 가사를 창작하는데서 기본요구로 된다.

가사 《해바라기의 노래》, 《충성의 일편단심》, 《백두산명승가》, 《탄부의 영에 빛내여가리》, 《제대군인 그 총각 영웅탄부 되였네》 등은 이 문제에 대한 훌륭한 해답을 주는 작품들이라고 볼수 있다.

이 가사들은 레외없이 정책적인 내용이 깊이있게 담겨지고 정서적인 흐름이 자연스럽고 감동적이며 언어구사가 세련되고 류창한것이 특징적이다.

주체적문예리론에서는 가사를 시화한다는것은 세련된 시형상속에 생활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정서가 풍부하게 흘러넘치게 한다는것을 말한다고 밝히였다. 그리고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작시법의 요구에 따라 운이나 글귀를 맞추는것만으로는 가사에 열정과 정서가 넘치게 할수 없고 또한 사상만 호소해서는 시의 정서적작용력을 높일수 없다.

가사 《해바라기의 노래》(백인준)는 태양을 따라 피어나는 해바라기의 생태적특성을 의인화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끝없는 충성심을 시화한것이다.

가사나 서정시에서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를 가지고 형상한것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가사에서처럼 해바라기에서 종자를 찾아내고 철학적심도가 있게 시화한것은 이것이 처음이라고 말할수 있다.

한떨기 피어도 해빛 향하고  
만떨기 피어도 해빛 향하네  
아 해바라기 해바라기야  
그 언제나 한마음 변함없는 그 마음  
아름다운 너로다

시인은 이 가사에서 해바라기를 북쪽에 피어도 남쪽에 피어도 해빛을 따르며 비바람 불어도 변함없는 꽃이라고 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의 감정을 고도로 정서화하였으며 태양을 따라 피는 해바라기처럼 충성의 일념으로 살아야 한다는 심오한 사상을 형상하였다.

문제는 노래하는 대상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 대상으로부터 찾아내는 사상적알맹이-종자에 있는것이며 또 그것은 어떻게 정서화하였는가에 있는것이다.

가사 《충성의 일편단심》(최준경)도 이러한 의미에서 본보기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향기로운 꽃을 봐도 내 가슴 설레이네  
황금벌을 바라봐도 내 가슴 설레이네  
아 수령님 모시는 길에  
언제나 기쁨드릴 충성의 일편단심

행복이 넘쳐나도 내 마음 변함없네  
비바람이 불어와도 내 마음 변함없네  
아 수령님 따르는 길에  
한생을 빛내여갈 충성의 일편단심

이 세상의 끝에 가도 내 마음 하나일세  
하늘땅이 변하여도 내 마음 하나일세  
아 수령님 길이 받들어  
영원히 꽃피워갈 충성의 일편단심

이 가사는 오직 수령님께 기쁨만을 드리며 한생을 변함없이 빛나게 살아갈 우리 인민의 충성의 한 마음을 높은 시형상으로 일반화하였다.

가사 《충성의 일편단심》은 감정조직이 치밀할뿐 아니라 그 정서의 여운이 매우 강한것으로 특징적이다.

시인은 매개 절의 첫 두줄에서 대상에 대한 설명

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세계를 자연에 의탁하여 정서화하였으며 그것을 4행에서 《충성의 일편단심》과 재치있게 무리없이 결부시켰다.

여기서 《향기로운 꽃》, 《황금별》, 《비바람》, 《하늘땅》 등은 모두 자연이면서도 그저 자연이 아니라 주정화된 자연이며 《충성의 일편단심》을 도출하기 위한 형상수단으로 동원한 자연인 것이다.

이리하여 이 가사의 첫 두줄들은 3, 4행의 수령님을 위하여 기쁨드리고, 수령님을 위하여 한생을 빛내어나가며,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다할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을 반영해주는데 훌륭히 복무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가사가 시화되는데서 특이한것은 감정구성의 짜임새라고 볼수 있다.

매개 절에서 첫 두행들의 끝부분인 《설레이네》, 《변함없네》, 《하나일세》 등이 나란히 반복됨으로써 감정을 승화시키는데 이바지하였으며 또한 매개절에서 맨끝에 《충성의 일편단심》을 넣음으로써 그 의의를 두드러지게 강조하고있을뿐아니라 다른 가사와 구별되게 하는 개성을 보여주고있다.

즉 1절에서는 향기로운 꽃을 봐도 황금별을 바라봐도 가슴이 설레이는것은 수령님 모시는 길에 언제나 기쁨을 드릴 충성의 일편단심때문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하고있으며 2, 3절에서도 비록 서술된 전제는 다르지만 결론은 같은데로 떨어지고있다.

이와 같은 구성의 미는 조립이 아니라 감정의 운동선을 타고 예술적으로 처리한 정제미인것이다.

이 가사의 형상에서 또하나 중요한것은 가사의 생활감정문제이다.

문학은 곧 인간학이며 인간학은 곧 생활을 통하여 표현되어야 한다.

생활이 없는 가사는 정서가 없고 진실성이 없으며 정서가 없고 진실성이 없는 가사는 사람들을 공감시킬수 없다.

우리 인민들속에 이미 친숙하여진 가요들인 《어서 가요 먼저 가요》, 《령넘어 오고가는 정》, 《샘물터에서》 등은 누구나 좋아하는 생활적인 가사로서 우리들을 기쁘게 하며 가슴에 오래도록 남게 한다.

이와 같이 생활의 세부를 찾아 그것을 시화할수록 가사는 보다 생동해지며 보다 감정을 자극한다.

우리의 시대는 아름답고 벅찬 송가로 가득차있는 시대이다. 가사 《충성의 일편단심》과 같이 우리 인민이 누구나 체험하고있는 생활감정을 포괄적으로 전형화하고 시화함으로써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가사들이 또한 필요한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생활의 감정을 진실하게 전형화하고 일반화하면 이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생활적인 가사라고 할수 있는것이다. 생활적인 가사라 해서 반드시 땅크병과 농장원치녀, 트랙토르 부부 운전수, 수리공과 선반공치녀, 장령과 전사 하는 식으로 두 서정적인 주인공을 내놓고 여기에 기발한 이야기거리를 담아야 하는것은 아니다.

결국은 어느 길로 가든지 주어진 종자를 시화할수 있는 양상을 잘 선택하면 되는것이고 또 어느길을 선택하든지 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훌륭히 정서화하면 되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가사의 다양성이 있고 개성화의 특징이 있는것이다.

다음으로 이 가사의 특징의 하나는 가사가 노래할수 있는 서정시로 되었다는 그것이다.

가사는 서정시이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서정시와 구별되는 자기의 독자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가사가 서정시와는 달리 노래부르기 위한 서정시이기때문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서정시가 읊는 시라면 가사는 부르는 시라고 말할수 있다.

때문에 가사의 문장조직과 운률조직은 무엇보다 중요한것이다.

가사는 운률을 잘 조성해야 하며 선들의 흐름을 타고 불리워질수 있게 순탄하고 평이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가사에서 시인이 시어를 잘 골라낸것과 함께 음악적인 흐름에 맞는 시문장을 잘 조직하였으면 그것을 반복과 대구의 방법으로 형성한것을 찾아볼수 있다.

1절에서 첫 두줄의 대구조성과 《내 가슴 설레이네》의 반복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매개의 단어의 끝은 노래하는데 편리하도록 모음계렬의 음절로 이루어놓았다. 이리하여 이 가사가 막히지 않고 류창하게 흘러갈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렵고 딱딱한 어휘가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쓰는 쉽고도 세련된 말들을 골라 쓴것이다.

《일편단심》이란 말은 비록 한자어에서 온것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늘 쓰는 친숙한 단어로서 이 가사에 없어서는 안될 가장 적절한 기둥어휘로 되고있다.

가사를 시화한다고 해서 음악성을 고려하지 않고 까다롭고 힘들게만 쓴다면 이해하기 바빠며 인식교양적기능을 옹계 수행할수 없다.

이상에서 가사의 종자문제와 형상문제를 가지고 몇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면서 더 좋고 더 많은 가사를 써서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겠다는것을 다짐한다.

# 근로자들을 창조적로동으로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인 노래

-가사 《보람찬 로동으로 내 조국 빛내자》에 대하여-

리시균

지금 온 나라 전체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7차 전원회의에서 밝혀주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신심과 투지에 넘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속에서 비약의 나래를 펼치고 온 나라가 전후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키던 때의 그 투지, 그 기백으로 패기와 열정에 넘쳐 약동하는 오늘의 들끓는 현실은 근로자들을 새 생활창조와 로력적위훈으로 힘차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인 노래를 더 많이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창조적로동으로 불러일으키는 즐겁고도 씩씩한 노래가 더욱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용기를 돋우어주는 씩씩한 노래를 부르면 고달픈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피곤한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로자들을 창조적로동으로 불러일으키는 즐겁고도 씩씩한 노래는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근로자들을 고무추동하며 그들의 로동과 생활을 흥겹고 락천적인것으로 되게 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가사 《보람찬 로동으로 내 조국 빛내자》는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매우 의의있는 작품이다.

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창조의 노래, 혁신의 노래로 되고있는것은 그것이 우리 시대의 정신을 잘 반영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자들의 생활감정과 지향을 뚜렷하게 표현하고있기 때문이다.

주체적문제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시대정신은 시대와 생활의 기본지향을 반영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

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시대의 정신이 있다.

우리 인민들은 자신의 힘으로 조국땅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앞당기려는 비상한 각오밑에 남이 열걸음을 걸을 때 백걸음을 걷고 남이 십리를 달릴 때 백리를 달리고있다.

그 무엇으로도 꺾을수 없는 우리 인민의 이러한 투쟁정신, 혁명적기상은 그대로 우리 시가의 사상적지향으로 되고있다.

가사를 시화한다는것은 바로 이러한 벽찬 시대정신을 뜨겁게 체험하고 거기서 의의있는 종자를 찾아내어 그것을 예술적으로 잘 가공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가사 《보람찬 로동으로 내 조국 빛내자》는 혁명하는 우리 시대에 가장 보람있게 산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은 실천투쟁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가사의 밑바탕에는 아름답고 부강한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자기의 힘과 지혜와 정력을 남김없이 바쳐 투쟁하는 바로 여기에 참다운 리상과 행복이 있다는 의의있는 사상적알맹이가 깊이 심어져있다.

이러한 종자는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고상한 목적과 미래에 대한 굳은 신념을 안겨주는데서 의의가 크다.

행복한 생활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창조적투쟁속에서 마련되며 바로 그 투쟁에 참가하여 몸바쳐 일하는데 혁명의 주인으로 된 사람들의 영예와 보람이 있는것이다.

가사 《보람찬 로동으로 내 조국 빛내자》는 의의있는 사상적내용을 높은 시적형상으로 밝혀내고 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가사는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높은 리상과 그것을 실현할수 있다는 신심을 주며 창조적로동이 사회주의조국을 꽃피워나가는 보람찬 투쟁이기때

문에 가장 고귀하다는것을 깨우쳐주고있다.

기발을 날려라 높이 날려라  
동무들아 억세게 달려나가자  
우리의 붉은 힘 로동에 바쳐  
사회주의조국 꽃피워가자  
에헤 에헤 붉은기 펄펄 날려라  
창조와 기적의 위훈을 떨치자  
위훈 떨쳐나가자

가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조국을 꽃피워나가는 보람찬 투쟁에 모든 힘과 재능을 다 바쳐가며 이 투쟁에서 가장 큰 기쁨과 긍지를 느끼는 우리 인민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이러한 감정은 생활의 진실을 아무런 보탬도 꾸밈도 없이 생동한 느낌을 통하여 노래한데서 오는 것으로서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보다 휘황한 조국의 미래에 대한 끝없는 랑만을 힘있게 펼쳐주고있다.

가사는 사람들을 새생활창조와 영웅적위훈으로 부르는 강한 호소성과 선동성으로 일관되어있다.

가사의 후렴에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 속에서 창조와 기적의 위훈을 떨쳐나가자는 강렬한 호소가 얼마나 격조높이 울리고있는가.

가사가 이처럼 큰 사상정서적감동을 주는것은 뜻 깊은 사상이 뜨거운 열정을 타고 울려나오기때문이다.

주체적문제리론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훌륭한 음악과 노래는 높은 사상이 뜨거운 열정과 융합되어 울리는것이 특징이다.

노래는 사상이 깊고 감정이 강렬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틀어잡을수 있고 그들에게 지칠줄 모르는 힘과 용기를 안겨줄수 있다.

가사에는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새것을 창조하는 전투적기백과 보람찬 현실을 긍정하고 옹호하는 혁명적열정이 차넘치고있다.

당정책과 눈부시게 발전하는 우리 현실에 대한 열렬한 공감, 생활긍정의 열정은 가사의 2절에 이르러 한층 심화되고 격조높이 울리고있다.

북소리 울려라 높이 울려라  
일터마다 속도전 불바람 인다

불타는 충성을 로동에 바쳐  
7개년계획을 앞당겨가자

가사의 2절에는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며 불타는 충성을 로동에 바쳐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웅대한 강령을 앞당겨 완수하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결의와 신심이 아로새겨져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 영웅적위훈은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불타는 충성심을 남김없이 바쳐가는데서 수놓아지는것이다.

가사의 구절들은 모든 근로자들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바쳐 투쟁할 때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위대한 양양을 일으킬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차있다.

우리 인민이 체험하고있는 보람찬 생활과 창조적로동의 랑만은 가사의 8절에서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훌륭히 시화되어 더욱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다.

가사의 8절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를 높이 들고 부닥치는 난관들을 자체의 힘으로 용감히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일으켜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결의를 노래하고있다.

찬란한 조국의 번영을 위해  
자력갱생구호를 높이 들어라  
모두다 한마음 로동에 바쳐  
사회주의조국 영예 빛내자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조국은 근로자들의 자각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에 의하여 훌륭히 건설되며 따라서 모두다 한마음 로동에 바쳐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나가는 투쟁의 그길우에서만 조국의 영예를 더욱 떨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가사에서는 목적지향성이 뚜렷하고 생활에 대한 신념과 창조적기백이 높으며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체현한 우리 시대 인간들의 밝고 씩씩하고 약동하는 정서를 잘 표현하고있다.

근로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이 그대로 창조의 기쁨이 되고 생활이 곧 아름다운 노래로 되고있다.

가사는 그 시적감정이 생동하고 진실할뿐아니라 부드럽고 소박한 시적언어에는 락천적인 색채와

동적인 억양이 흘러넘치며 낭만적인 정서를 살리고 있다.

주체적인 문예리론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가사에 시가 있다는것은 정서가 있다는것을 말한다. 시에서 사상은 정서를 통하여 흘러나와야 한다. 시형상의 힘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공감시키는데 있는것이다.

가사의 밑바탕을 진하게 깔고 흐르는 낭만적인 정서는 발랄하고 힘이 있으며 전투적인 박력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있다.

가사에 일관된 선동성과 호소성은 메마르고 옹허한 웨침으로가 아니라 고상한 사상감과 아름다운 정서로 안받침됨으로써 공감을 준다.

이 가사가 거둔 사상예술적성과의 하나는 인민대중이 누구나 쉽게 알수 있고 부를수 있는 통속성을 살리고있는것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통속성은 대중가요의 인민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징표이다.

이 노래를 대중이 좋아하는것도 거기에 우리 인민의 진실한 생활감정이 담겨져있으며 가사의 간결한 구조와 평이한 언어표현, 류창한 운률적특성으로 하여 쉽게 외우고 따라부를수 있기때문이다.

가사에서는 말하려는 사상의 핵을 틀어쥐고 대를 똑바로 세워나감으로써 간결성을 보장하고있다.

가사의 매개 분절은 절가의 요구에 맞게 같은 시행과 비슷한 음절수의 지구들로 이루어지고있으며 서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살리고있다.

가사는 인민의 사상감정을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언어로 훌륭히 표현하고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가사에서는 시어를 잘 고를뿐 아니라 운률을 잘 조성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치고 있다. 시에 운률이 없으면 정서도 앓게 된다.

객관적현실에서 일어난 인간의 흥분과 고조된 사상감정은 그에 맞는 음악성을 내포한 시적언어에 의하여 표현될 때만이 가장 훌륭하게 표현될수있다.

순탄하고 평이한 가사의 운률은 시의 사상정서적 흐름에 맞게 간결하고 깊은 뜻을 담고있는 함축된 시어들로 시행을 잘 짜고 음악적으로 배렬한데서 류창하게 흘러나오고있다.

가사는 7. 5조를 기본음조로 하면서도 단순히 음수률을 맞추는데 구애되지 않고 소박하고 생활적이며 혁명적인 언어표현을 적극 살려 시의 호흡에 맞고 내용이 주는 맥박과 정서적과동에 따라 힘있고 아름다운 운률을 창조하고있다.

가사에서는 고유조건말을 적극 살려쓰고 민족적 풍격이 강한 어휘들과 표현수법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민족적정서를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하고있다.

후렴만 보아도 얼마나 깊은 뜻과 흥겨운 생활감정과 아름다운 틀조로 가득차있는가.

여기서는 시행속에 《에헤 에헤》와 같은 감동사를 잘 배합하고 《창조와 기적의 위훈을 떨치자 위훈 떨쳐나가자》 등 반복의 수법을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시적형상성을 높이고 락천적인 정서를 잘 표현하였다.

1절과 2절의 대구적표현-《기발을 날려라 높이 날려라》, 《복소리 울려라 높이 울려라》와 같은 형상적인 비유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복소리 높이 울리며 힘차게 전진하는 벽찬 시대의 숨결을 훌륭히 부각시키고있다.

시 음악적표현성이 강한 이러한 시구들은 한구절만 떼어도 흥에 겨워 저절로 어깨가 들썩거리게 하는 작용을 노는것이다.

가사 《보람찬 로동으로 내 조국 빛내자》는 시대와 생활의 지향, 우리 인민의 장엄한 발걸음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훌륭히 노래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창조적로동과 영웅적위훈으로 힘있게 고무하고있다.